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 [교리와 성약 78:19; 강조체 추가]
“저는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는 변화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거나, 또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처해 있는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 라이호나, 2016년 11월호, 101쪽.

그 이름은 어디 있느냐? 월터레인

누가복음 17:11-19 참조.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것에
대해 하신 말씀.

여성 총회

- 6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진 비 빙엄
- 9 위대한 치유자
캐롤 엠 스티븐스
- 12 힘차게 일어서라, 시온의 자매들이여
보니 엘 오스카스
- 15 4층 마지막 집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전 모임

- 19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2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와서 나를 따르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5 영혼의 진지한 소망
캐럴 에프 맥콩키
- 27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
일으키리니”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
- 3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 32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 35 하나님의 증인
닐 엘 앤더슨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39 교회 직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40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여
쿠엔틴 엘 쿡 장로
- 44 그 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라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48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52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위하여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 55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포부를
품으십시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 57 회복된 복음을 나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신권 총회

- 61 교회의 대표자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68 물문경에는 힘이 있습니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 71 엘마와 엠울레크에게서 배우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5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 지어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8 원리와 약속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80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81 기쁨과 영적 생존
러셀 엠 넬슨 회장
- 85 성찬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피터 에프 웨르 장로
- 88 위대한 구속의 계획
린다 에스 리브즈
- 90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엠 러셀 블라드 장로
- 93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딘 엠 데이비스 감독
- 96 의로우신 재판장
린 지 로빈스 장로
- 99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02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06 그리스도의 교리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 110 봉사하십시오
칼 비 쿡 장로
- 113 잊어버리지 말라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116 하나님께서 ...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에번 에이 쉬무츠 장로
- 119 자녀들이 구주를 알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케이 브렛 내트레스 장로
- 121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데일 지 랜런드 장로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25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26 교회 소식



제186차 반연차 대회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여성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린다 케이 버튼.
 개회 기도: 테니스 린드버그.
 폐회 기도: 보니 에이치 코든.
 음악: 유타 주 옥든, 헨츠빌, 모건 지역 스테이크 청년 연합 합창단. 지휘: 셰릴린 워든.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Arise, O Glorious Zion", 영어 찬송가, 40장, 와비 편곡, 미출판;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디포드, 와비 편곡, 미출판;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조이 디 존스.
 폐회 기도: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클레이 크리스찬슨.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With Songs of Praise", 영어 찬송가, 71장;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Take Time to Be Holy", 롱스태프, 룡허스트 편곡, 잭맨 출판; "If the Way Be Full of Trial, Weary Not", 스웨니,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다니엘 엘 존슨 장로.
 폐회 기도: 앨런 디 헤이니 장로.
 음악: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연합 합창단. 지휘: 라이언 에겟, 엘모 켈.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즈와 보니 굿리프.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 찬송가, 24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침례", 어린이 노래책, 54쪽, 게이츠 편곡, 잭맨 출판;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샌크 편곡, 미출판.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저녁 신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폴 비 파이퍼 장로.
 폐회 기도: 브루스 디 포터 장로.
 음악: 유타 주 웨스트벨리시티 및 마그나 지역 스테이크 벨기세텍 신권 연합 합창단. 지휘: 케니 와이저.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너 이스라엘 장로는"(남성), 찬송가, 200장, 스피엘 편곡, 미출판;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마누킨 편곡, 잭맨 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밤에 햇빛 있으면", 찬송가, 159장, 자브리스키 편곡, 홀리 스위트 뮤직 출판.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크리스토퍼 골든 장로.
 폐회 기도: 데븐 지 듀란트.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리차드 엘리엇.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In Hymns of Praise", 영어 찬송가, 75장, 윌버그 편곡;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찬송가 38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 호프하인스 및 크리스찬슨 편곡, 미출판; "감사하는 백성아", 찬송가, 34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폐회 기도: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린다 마게즈.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룡허스트 편곡, 잭맨 출판;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페리, 머피 편곡, 미출판;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엘리엇 편곡.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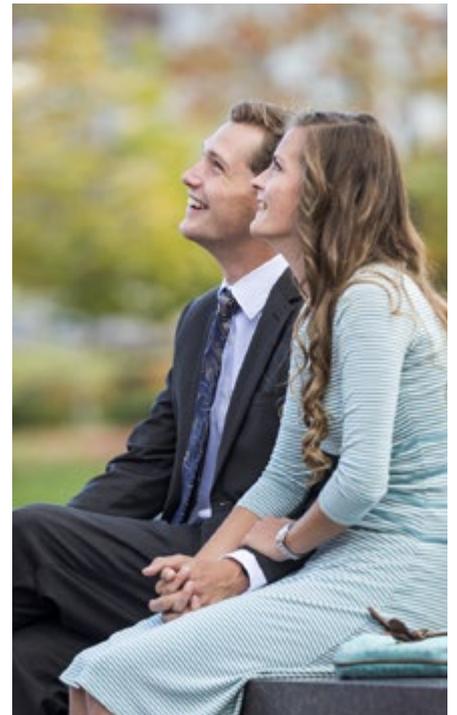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표지 사진: 애슐리 라슨.
 뒤표지 사진: 알리 보게스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의 연차 대회 전경 촬영: 코디 벨, 알리 보게스,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네이트 에드워즈, 애슐리 라슨, 레슬리 닐슨, 맷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독일의 아파트 건물 촬영: 다니엘 지 도벨리스; 해리엇 우호트도르프 가족과 선교사들: 우호트도르프 가족 제공.



2016년 11월호, 제53권, 제11호

라이호나 1329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라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자: 조셀 더블유 시타디

부편집자: 켈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쿱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코우퍼쉬케,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벤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이그 애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베서니 바르블로뮤, 브리트니 비베트,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웨드윅, 매튜 디 플라톤, 로리 폴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살렛 라카벨,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스 오데거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홀나, 민디 엠 셸루, 머러사 윌슨

편집 인턴: 메건 알크네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멘디 벤틀러, 피어 피 앤드러스,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콜린 킬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마이클 벨슨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에더어, 콘니 바솔프 보릿지,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터데 러퍼드,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브 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야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08호, 제53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라이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라이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은행계좌: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라이호나(“니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이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횡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널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라이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흥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6 Vol. 40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가즈히코 야마시타, 55
게리 이 스티븐슨, 44
닐 엘 앤더슨, 35
델린 에이치 옥스, 57
더블유 마크 베셀, 5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2
데일 지 랜렌드, 12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48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5, 19, 71
딘 엠 데이비스, 93
러셀 엠 벨슨, 81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113
로버트 디 헤일즈, 22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68
린 지 로빈슨, 96
린다 에스 리브크, 88
보니 엘 오스카스, 12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106
에번 에이 쉬무츠, 116
엠 러셀 벨라드, 90
제이 데브 코니쉬, 32
제프리 알 홀런드, 61
진 비 빙엄, 6
칼 비 쿡, 110
캐럴 에프 맥쿱키, 25
캐롤 엠 스티븐스, 9
케이 브렛 내트레스, 119
쿠엔틴 엘 쿡, 40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27
토마스 에스 몬슨, 78, 80
피터 에프 웨트, 85
헨리 비 아이어링, 39, 75, 99
후안 에이 우세다, 30

주제 색인

가르치기, 12, 22
가정 복음 교육, 61
가족, 119
간증, 27, 40, 44, 68, 113
감사, 19, 75, 99
개종, 35, 57, 68
경전 공부, 52, 68, 119
계시, 52
교회 부름, 40, 99, 110
구원의 계획, 12, 19, 80, 81, 88, 90
기도, 25, 30, 35, 57
기쁨, 55, 81, 88, 116, 121
단합, 110
모성, 119
물문경, 27, 44, 52, 68, 71, 119
배도, 68
봉사, 22, 55, 61, 71, 75, 99, 102, 110
부모의 본분, 22, 96, 119
부활, 19
사랑, 22, 48, 57, 61, 99, 113
선교 사업, 15, 35, 55, 57, 80
선도, 61, 96
선지자, 27
선택의지, 15
성신, 9, 25, 27, 30, 44, 68, 85, 106
성약, 12, 99
성전, 12
성찬, 85, 99, 106
성찬식 모임, 85
소망, 93, 116
속죄, 9, 19, 22, 32, 40, 48, 88, 96, 106, 116, 119, 121
순종, 48, 57, 80
신권, 61, 75
신뢰, 15, 52
신성한 본질, 19, 48, 119
신앙, 9, 12, 15, 25, 27, 30, 52, 90, 93, 102, 106, 110, 113, 116

안식일, 93, 99
여성, 12
역경, 6, 9, 12, 22, 40, 55, 68, 81, 99, 113, 116
예배, 93
예수 그리스도, 6, 9, 12, 22, 25, 30, 32, 35, 40, 44, 48, 55, 80, 81, 85, 88, 90, 93, 96, 102, 106, 110, 113, 116, 119, 121
예언, 27
음악, 85
의심, 90, 113
이스라엘의 집, 35
인내, 15, 106, 116
자애(사랑), 6, 93
자존감, 32
장애, 55
제자 됨, 90, 93, 102, 116
조셉 스미스, 12, 27, 35, 44, 93, 96, 99, 113
준비, 85
지도력, 71, 75
지혜의 말씀, 78
축복, 78, 110
충성심, 90
치유, 9
친절, 6
침례, 106
판단, 6, 96
하나님 아버지, 48, 102
활동 촉진, 71, 75
회개, 9, 32, 40, 48, 71, 88, 106, 121
회복, 12, 27, 35, 44
희생, 96



제186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두 개의 간결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만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간증했으며,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필수적인 부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뜻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80쪽 참조) 또한, 몬슨 회장은 신권 총회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킬 때

오는 축복을 강조했다.(78쪽 참조) 여섯 번의 연차 대회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여성 총회가 시작되자 수십만 명의 여성, 청년, 그리고 8세 이상의 소녀들이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 곳곳에 모였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네 명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고 한 명의 지역 칠십인이 해임되었으며 두 명의 지역 칠십인이 새로 부름받았다.(39쪽 참조) 일요일 모임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랜던드 장로가 2016년 7월 26일에

별세한 칠십인 정원회의 페르 지 맘 장로를 기렸다.(121쪽 참조) 6개월에 한 번,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21,000석 규모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교회의 연차 대회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에게 전해진다. 대회는 통역을 거쳐 80여 개 언어로 온라인에서 제공되었으며, 교회 잡지의 형태로 34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 이번 호를 활용하기 위한 제언은 125쪽의 일화 색인을 참조한다.





진 비 병엄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타인의 긍정적인 면모를 찾고 나눌 때, 우리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이 권고하신 말씀에 응하여,¹ 수많은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관대하고 인정 어린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개개인을 돕는 일에서부터 지역 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런 활동은 그야말로 사랑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 자원을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난민들 모두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소망과 신앙,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쌓이는 것은 참된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²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사랑은 그분이 전세에서 구주가 되기로 하신 약속, 필멸의 생애 동안 사람들과 하신 교류, 속죄라는 승고한 선물,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 데려가시고자 끊임없이 쏟으시는 노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³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표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는 “가장 큰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⁴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세 살배기 알리사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닭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화면을 본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건 공작이란다.”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세 살배기

아이처럼, 때로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이해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자신과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결점을 인식하겠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형상을 따라 지은,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지닌 자녀로 보십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을 더 내려놓게 됩니다.”⁵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⁶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더 명확히 이해할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는 경향이 줄어듭니다. 구주께서 연민과 소망,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듯, 우리도 복음의 빛으로 타인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생에서 타인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말한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이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카누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울창한 초록 숲으로 뒤덮인 언덕과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질푸른 호수들은 숨이 멎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투명한 물속에 노를 담그자 물살이 부딪히며 반짝거렸고, 카누가 호수를 가로질러 부드럽게 나아가는 동안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쉬지 않고 물속 깊숙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들인 끝에 저희는 그 큰 호수의 모퉁이를 돌아 나올 수 있었고, 바로 그때 놀랍고 기쁘게도 바람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그 귀중한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작은 방수포를 꺼내서 두 귀퉁이는 노의 손잡이에 묶고, 나머지 두 귀퉁이는 제 남편의 발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카누의 양쪽 뺨전을 향해 두 다리를 벌였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돛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자 카누에 속력이 붙었습니다.

저희 카누가 물살을 따라 수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다른 카누의 청녀들도 열린 제각기 입시 돛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웃고, 안도하고, 그날의 고비를 넘긴 데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유쾌한 바람처럼, 친구의 진실한 칭찬이나 부모의 쾌활한 안부 인사,

친형제자매의 이해와 동조, 동료나 급우의 힘이 나는 미소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맞닥뜨릴 때 “돛에 부는 신선한 바람”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만족를 한껏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⁷

말이란 것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낙담케 했던 부정적인 말과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랑이 담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강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구주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어린이였던 시절에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라는 단순한 문장을 공들여 수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여자 아이들이 함께 천 위에 글자를 수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골짜기 언덕에 사는 소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해 질 녘이 되면, 소녀는 맞은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황금 창문이 달린 빛나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조금 낡은 집에 살았던 소녀는 황금 창문이 있는 그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골짜기를 건너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열심히 자전거를 달려서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황금 창문이 달린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서 내린 소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 허물어져 가는 버려진 집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맞은편 골짜기의 언덕에서 황금 창문이 달린 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그것이 자신의 집임을 알아차렸습니다!⁸

때로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모습을 보며 그에 비해 우리는

부족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비쳐지는 삶에 몰두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사로잡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본다면,⁹ 더 진실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덟 살이건 백여덟 살이건,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곳이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이든, 말레이시아의 수상가옥이든, 몽골의 천막집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좋은 점을 찾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온 세상의 여성들은 타인에게 자신감과 신앙을 키워 주는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음으로써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한 청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청년은 고향을 떠나 군대에 들어갔고, 교육을 받았으며,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이 시기를 보내며 성공적인 경험들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가 여전히 어릴 적의 “그렇고 그런 아이”였기에, 그런 식으로만 그를 대했습니다. 결국, 이 훌륭한 남자가 그동안 기른 뛰어난 재능은 또다시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이지도 못한 채 거의 묻히고 말았습니다.¹⁰ 그 사람에게서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¹¹ 진심 어린 사랑을 의미하는 뜨거운 사랑은 앙심을 품고 있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과거의 결점을 일깨우기보다는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마음속에 담아 두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서로 다른 발전 정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게 되어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궈 가는 사람의 눈에서 빛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개종자가 침례의 물에 들어가고 그 후 성전 문에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타인이 변화하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의 축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회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을 개종자로 맞이하며, 그 개종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백미는 영원한 진보가 실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해지라는 계명을 받았습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낼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이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들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깨닫고, 힘을 다해 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¹²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친절하며 만족할 줄 압니다. 사랑이 있으면 타인을 우선시하고, 겸손해지며, 자제할 줄 알고, 타인의 장점을 찾으며, 타인의 성공에 기뻐하게 됩니다.¹³

우리 모두 시온의 자매(와 형제)들로서



“다 함께 일하여 ... 언제나 모든 일 겸손히 행하[고 구주의 이름으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¹⁴ 사랑과 큰 소망으로 타인에게 내재된 좋은 점을 찾고 알아보며, 그들의 발전을 받아들이고 격려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을 기뻐하며 자신도 발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인의 부족한 점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모를 찾고 나눌 때, 우리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때로 힘든 세상에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 주신 회개를 생각할 때, 저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를 때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이생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축복을 약속받게 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히 드립니다. 아멘. ■

주

1. 린다 케이 버튼, “나그네 되었을 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3~15쪽 참조.
2. 모로나이서 10:21.
3. 마태복음 22:37~39.
4. Sandra Rogers, “Hearts Knit Together,” in *Hearts Knit Together: Talks from the 1995 Women’s Conference* [1996], 7.
5. James E. Faust, in Dallin H. Oaks, “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13.
6. 고린도전서 13:11~12.
7. 토마스 에스 몬슨,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4쪽.
8. Adapted from Laura E. Richards, *The Golden Windows: A Book of Fables for Young and Old* (1903), 1-6.
9.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10. 제프리 알 홀런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18~19쪽 참조.
11. 베드로전서 4:8.
12.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은 결코 사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5쪽.
13. 고린도전서 13:4~6 참조.
14.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강조제 추가.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위대한 치유자

죄나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행위로 인한 고통,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혼자 떠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곳곳에서 자매님들께 배움을 얻는 것은 제게 가장 보람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얼굴을 맞대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한번은 한 상호부조회 지도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예!”라는 대답과 함께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이라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고히 이해”하는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벨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¹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 ...

그리고 이제 ...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²

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확고하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후기 성도 여성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영원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넓은 건물”을 뒤지며 더 큰 이해를 구하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³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다 보면, 머지않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⁴ 또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의 중심이심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 구주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한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⁵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초이며, 곧 “구속주의 반석[이자]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우리가]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게 됩니다.⁶

이 교리는 우리가 평안과 이해를 구하고 필멸의 이 특별한 여정을 기쁘게 견디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니파이가 말했듯이,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부터 짚어 보겠습니다.⁷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겪을 때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대한 치유자이신 구주께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슬픔을 영원히 털어 줄 권능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그녀의 심각한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중심을 보”셨고,⁸ 그 여인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오자, 생수의

상징이신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우리가 생수를 구할 때 그것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마침내 그 가르침을 이해한 여인은 신앙으로 주께 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구주를 만나 가르침 받은 끝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룹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간증을 얻고 생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⁹

가르침을 받아들여졌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설혹 우리 마음이 실수와 죄와 범법으로 무거워져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기 때문입니다.¹⁰ 그렇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동네’, 곧 우리 집, 학교,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위대한 치유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저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여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맺은 성약의 길은 힘겨운 치유의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져 버린 성약과 상처 입은 마음과 잃어버린 자신감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로 다른 이들의 중독의 결과로 야기된 간음과 언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고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 버리려고 애씁니다.

희망과 치유는 비밀의 어두운 심연이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¹¹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불필요하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 동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자 필요한 일을 했다면, 짐은 구주께 맡기십시오. ...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평온을 찾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죄의 짐을 덜게 하실 구주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올 것입니다. 또한, 불의하고 부당한 일로 생긴 흉터를 치유할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올 것입니다.”¹²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치유의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합당하게 성임된 신권 지도자들과 상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와 적절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때, 적절한 경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매일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이해력을 키우십시오. 구주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양껏 마실 수 있도록 매일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각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구주의 치유 권능과 그분의 속죄가 삶에 임하게 하십시오.

셋째, 위대한 치유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상 생활의 현실”,¹³ 곤란, 정신 질환, 질병, 만성 통증, 죽음 등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시라는 훌륭한 젊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받고자 나아가는



여정에 관해 직접 나눠 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암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를 지나 저희 가족들은 ‘바닥의 날들’이라고 불려요. 그런 날들은 감각에 과부하가 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어떤 소리나 촉감, 빛도 참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되죠.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러워요. 그중에서도 특히 절대 잊지 못할 날이 있었어요.

조울증을 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그런 일을 겪는 것이 특히나 무서웠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껴 울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필사적으로 저를 도와주려 애쓰는 어머니가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하시며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탓에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셨지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거듭 속삭여 주셨어요. ‘네게서 이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떤 뭐든 할 거야.’

그러다 어둠이 격심해져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던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거대하고 놀라운 권능이 제 몸을 덮쳤어요.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는 힘으로,¹⁴ 강한 확신을 담아, 끊임없이 제 고통을 지고 싶어 하신 어머니께 삶을 뒤바꿀 일곱 마디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누군가 이미 하신 걸요.’”

심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정신 질환의 어두운 심연에서, 조시는 기운을 끌어모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당장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칠혹같이 어둠던 시기에 희망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고히 이해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구주의 생수로써 생기를 찾으며 힘을 얻은 조시는, 이제 치유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며 위대한 치유자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앙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조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면 주님께서 친절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때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헤쳐 나갈 때 길잡이가 됩니다.”¹⁵

자매 여러분, 저는 간증드립니다.

죄로 인한 슬픔의 짐을 끝까지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혼자 떠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홀로 겪지 않아도 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¹⁶

“[그분]은 우리에게서 이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2. 니파이후서 31:17, 19~21; 강조체 추가.
3. 니파이전서 11:36.
4. 엘마서 42:8.
5. 데일 지 렌던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7~58쪽.
6. 힐라맨서 5:12.
7. 니파이후서 31:19.
8. 사무엘상 16:7.
9. 요한복음 4:5~30, 39~42 참조.
10. 엘마서 34:18.
11. 개인, 부부 및 가족, 교회 지도자를 위한 추가 도움말을 보려면, OvercomingPornography.org와 mentalhealth.lds.org 참조.
12. 리차드 지 스코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8쪽.
13. 폴 비 파이퍼, “계시된 지상 생활의 현실”, *리아호나*, 2016년 1월호, 44쪽.
14. “Lord, I would Follow Thee”, 영어 찬송가, 220장.
15. 치유를 향한 조시의 여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Morgan Jones, “Bipolar Disorder Can’t Stop LDS Woman from Spreading Light, Joy through the 444 Project,” *Deseret News*, Mar. 21, 2016 참조.
16. 제3니파이 9:13~14.

힘차게 일어서라, 시온의 자매들이여

참된 개종을 이루고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공부하고 그것이 참됨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에 교회의 어린 소녀들,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과 모일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장소에 모여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한 목적으로 단합하게 해 주는 기회와 여건에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1911년에 쓰인 찬송가 제목을 인용하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¹ 이는 교회의 남성들에게 분발하여 자신을 향상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² 우리 시대의 상황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준비하도록 수천 년에 걸쳐 경고와 훈계로 예고되었습니다. 물론서 8장은 우리 시대의 상황을 당혹스러운 정도로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 8장에서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극심한 오염, 살인,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만으로 가득하며, 값비싼 옷을 입는 데 정신이 팔리고, 종교를 비웃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곁을 지나가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³

모로나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느냐?”⁴ 이러한 비난은 점점 더 세속화하는 우리의 세상을 정확히 꼬집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마태에는 마지막 날에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될 것이라고 나옵니다.⁵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짐레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은 교회의 어린 소녀들과 청년들, 자매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들조차도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대가



전조라면, 우리는 앞으로 몰아칠 폭풍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좌절하여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버리는 것이 쉽겠지만,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게리 이 스티븐스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한 관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를 때가 찬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⁶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교리,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공격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고히 이해하며 그 이해를 활용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 내는 데 힘을 보탬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태의 속임수를 감지할 줄 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을 지니는 법을 알려, 확신과 사랑을 품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이브처럼 용기와 예지력이 있는 여성이 필요합니다.”⁷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낙관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힘든 삶을 감당할 내적인 힘과 신앙이 우리 자매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전심을 다해 믿습니다. 세리 두 자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개종을 이루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이 어떻게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변화할 것입니다.”⁸

참된 개종을 이루고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연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녀들과 여성들은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공부하고 그것이 참됨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간증의 토대가 되며 우리의 이해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구원의 중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그리고 이를 매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각자가 의로움의 길에 머물게 해 주는 위대한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어야 하는 주된 본보기이며 귀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후일에 교리와 조직과 권세의 열쇠들이 회복되어야 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선택받고 지명되었다는 간증을 얻어야 하고, 그가 고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었던 조직을 따라 교회의 여성들을 조직했음을 알아야 합니다.⁹

셋째, 우리는 성전 의식과 성약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가장 거룩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성전의 의미와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방법을 숙고하고, 연구하고, 찾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의 의식들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생활에 나타난다는 것과,¹⁰ 성전 의식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있고,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¹¹ 저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 회중 가운데 가장 어린 소녀도 신앙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경전을 읽거나 듣고, 매일 기도하고, 의미 있게 성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얻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은 가정의 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구들이 가족 기도를 위해 모일 때 가장 먼저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복음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범이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은 신권의 인도를 받는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방관자나 옹호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참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권능과 권세를 지닌 지도자로 활약하도록 부름받고 신권 열쇠를 지닌 자에게서 여러분은 성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반 회장단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며, 함께 협의하고, 반원들을 돌보며, 서로 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러분과 반원들은 함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자신을 신권 사업의 중요한 참여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의 여성들은 회장, 보좌, 교사, 평의회 회원, 자매, 어머니이며,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멕시코에서 만난 어느 자매님은 신앙으로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피사 말도나도 자매님은 3년 전에 주일학교

청소년반을 가르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당시 일곱 명이던 반원들은 이제 스무 명이 되어 정기적으로 반에 참석합니다.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어떻게 반원이 그만큼 늘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반원들이 모두 도왔어요.” 그들은 함께 회원 명부에서 지활동 이름들을 찾아보고 함께 나가서 그들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침례도 나왔습니다.

말도나도 자매님은 자기 반원들을 위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매주 몇 차례 영감을 주는 생각과 성구를 게시합니다. 자매님은 규칙적으로 반원들에게 문자로 숙제를 보내고 격려합니다. 반원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자매님의 생각인데,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매님의 표현은 간단했습니다. “전 우리 반원들을 사랑해요.” 그들의 노력에 대해 들으며 저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실천이 주님의 도움으로 이 사업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자매님의 모범을 보며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매일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며, 우리 주변에는 답을 찾기 위해

고전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공부하고 이해하라는 권고를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가족 선언문에 담긴 원리들을 거듭 들었습니다.¹² 우리는 이 자료들을 가르치고 기준으로 삼아 좁고 협착한 길에 머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일 년 전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터넷과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적극적으로 그에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가지 주제를, 보통 온라인상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를 골라서 주 중에 자녀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녀들은 묻고 싶은 질문을 하고, 어머니는 종종 어려운 주제나 사건에 대해 그들이 균형 있고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정을 편안하게 질문하고 복음 교육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피하는 분위기에 살아서 때로 옳은 원리들마저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는 장래의 선택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비칠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육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들릴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혼을 남녀 간에 행해지도록 규정하셨다고 말하기를 회피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또 동성에 문제나 건전한 성에 관한 토론도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자매 여러분, 물론 세심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만, 상식과 더불어 구원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 또한 활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복음 원리들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가르칩시다. 우리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참된 교리를 명확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들에게 사탄의 거짓말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약의 딸로서 받는 인도와 힘과 매일의 도움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고통하는 때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과 은사와 힘을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신앙과 용기를 지닌 자매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Rise Up, O Men of God", 영문 찬송가, 324장.
2. 디모데후서 3:1.
3. 몰몬서 8:39; 또한 26~38절 참조.
4. 몰몬서 8:38.
5. 조셉 스미스—마태 1:22.
6. 게리 이 스티븐슨, "답백하고 귀중한 진리", 리야호나, 2015년 11월호, 92쪽.
7.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2015년 11월호, 97쪽.
8. Sheri Dew, *Women and the Priesthood: What One Mormon Woman Believes* (2013), 163.
9.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7쪽 참조.
10. 교리와 성약 84:20 참조.
11.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1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4층 마지막 집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다시금 이 세계적인 대회에 모이게 되다니, 이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회장님께서도 교회의 자매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 중에서도 교회의 자매님들을 위한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볼 때면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성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는 권유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신 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십니다.¹ 또한 제가 첫눈에 반했던 사랑하는 아내 해리엇도 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여윈 직후에 교회의 회원이 되신 제 장모님도 계십니다. 제 누님과 딸과 손녀와 증손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여성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제 삶에 햇살 같은 기쁨을 안겨 줍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세심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영향력이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는 여성들의 능력과 재능, 지성과 간증을 통해 교회 전역에서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그런 극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찮은 사람이어서 타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힘겨워할 때도 있기에 “신앙이 있는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느껴 보신 적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무엇이고,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며, 삶에서 신앙의 힘을 발휘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믿는 바를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굳은 확신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못했을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앙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²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구를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구가 종교의 비합리성을 나타내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들은 눈이 아니고도 볼 방법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이 아니고도 느낄 방법은 많으며, 귀가 아니고도 들을 방법은 많습니다.

이 말을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가서 겪었던 경험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소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저 소리 들리세요?” 소녀는 거듭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새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몸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애야,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린다.”

답답해진 소녀는 양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붙잡고 할머니의 눈을 톡톡히 바라보며, “할머니, 더 잘 들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들을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듣거나 똑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한 사람은 영의 증거를 느끼지만, 다른 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영의 음성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광대하고 영원하며 심오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돕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잘 들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을 키우길 원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조언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 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가 아니라 영을 향해 말하는 음성을 얻으라고 권유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한 일은 영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³ 또는 생텍쥐페리가 그의 작품

어린 왕자에서 했던 다음 말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봐야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⁴

신앙의 힘과 한계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믿는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발휘되는 신앙의 힘은 엄청난 것이기에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경전을 보면 신앙을 통해 세상이 지음을 받았고, 물이 갈라졌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강과 산들이 옮겨져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⁵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라면, 왜 저는 진심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바다가 갈라지거나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저 제 병이 낫거나, 부모님이 서로 화해하시거나, 영원한 동반자가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약혼반지를 들고 문간에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 제 신앙으로는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할까요?”

신앙은 분명 강력한 것이며 종종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신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선택의지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딸이 그리스도의 무리 속으로 돌아오도록 수년간 기도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마치 탕자와 같이 어긋난 생활을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쓰라린 아픔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기도나 신앙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사람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세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삶이라는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설득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사랑과 영감과 격려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위대한 계획이 좌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혹은 아무리 진지하게 기도하더라도, 내 원을 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육체[의] 가지”라고 불렀던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시련이 축복임을 깨닫고 자신의 기도에 바라던 응답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⁶

신뢰와 신앙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⁷ 때로는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공기 조종사로서 겨우 전방 몇 미터만 볼 수 있는 짙은 안개나 구름 속을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려 주는 장치들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관계담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누군가를,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말입니다. 제가 가려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즉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잠시 보류하시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⁸

이런 신앙이 있다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⁹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리되고,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응답에 만족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관대함과 사랑에 몹시 감격하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신앙대로 생활하면서¹⁰ 항상 신앙을 키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이 없거나, 헌신적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사람들은 신앙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쉽게 낙담하거나 초점을 잃고 산만해지는 사람들은 신앙을 경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을 얻습니다.

또한, 충실함을 대가로 치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얻습니다.

개종자 침례를 보기 힘든 지역인 유럽에서 봉사하던 두 젊은 선교사의 경험에서 이 진리가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로 많은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선교사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그들은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제로 그들은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멋지고 고급스러운 4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층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와 교회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

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시도는 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건물로 가 봅시다.”

하지만 이 두 선교사에게는 신앙과 일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2층에서도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

다. 3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층 마지막 집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 어린 소녀 하나가 미소를 띠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볼 테니 기다려



충실한 두 선교사가 모든 집 문을 두드렸던 독일의 한 아파트 건물

달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최근에 겨우 서른여섯 살의 나이로 남편을 여윈 터였고 물론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에게 그들을 그냥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소녀는 그 청년들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몇 분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선교사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어머니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경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단 몇 페이지라도 읽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훌륭한 한부모 가정은 침례의 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단출한 가족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지부에 참석한 날, 한 어린 집사는 두 딸 중 하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알아보고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집사의 이름은 디이터 우흐트도르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적인 청년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들어 보자고 어머니에게 간청했던 그 소녀는 해리엇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활한 성격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1층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두 선교사를 생각할 때면 감사함으로 수도 없이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노력에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4층 마지막 집의 문 앞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에 정말 수없이 감사했습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속적인 신앙을 찾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연결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¹¹

한두 집만 두드려 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1, 2층에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4층 마지막 집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¹² 그러나 그 상이 첫 번째 집의 문을 열자마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하며 4층 마지막 집의 문 앞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이 찾으시는 답을 얻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는 빛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¹³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실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속의 조용한 간구를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 송고한 진리를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자 사도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는 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매 여러분, 신앙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며, 천 배로 많게” 하실 것입니다.¹⁴

또한 저의 신앙과 확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제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간증 기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4쪽; *Sister Eternal*(2005) 참조.
2. Hebrews 11:1, New International Version(1984).
3. 1 Corinthians 2:14, New International Version(2011).
4. Antoine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trans. Richard Howard (2000), 63.
5. 히브리서 11:3, 5, 29, 35; 이터서 12:30; 모세서 7:13 참조.
6. 고린도후서 12:7~10 참조.
7. 이사야 55:8~9 참조.
8. 니파이후서 26:24 참조.
9. 로마서 8:28 참조.
10. 고린도후서 5:7 참조.
11. 마태복음 7:7.
12. Hebrews 11:6, New International Version(1984).
13. 교리와 성약 50:24.
14. Deuteronomy 1:11,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18쪽: 청년 시절 해리엇 우흐트도르프 자매(가운데)와 그녀의 어머니, 자매, 그리고 전임 선교사들



우흐트도르프 자매는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가는 곳에 함께하여 복음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나누면서 많은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빛과 진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우 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인도와 지도력
아래 이 범세계적인 대회에서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는 동안
컴퓨터 시스템의 정확성과 확실성에 크게
의존했지만, 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제가 임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친절하게 그 일을
도와주는 업무 보조원들과 비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름에는 성역을 행하는
훌륭한 기회도 많지만, 교회 업무 또한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잘 처리하려면 주로
개인용 컴퓨터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세계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낯설고,
불가사의하며,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깊숙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는 컴퓨터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능숙한 사람들이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 서서 제 어깨 위로
팔을 뻗고는 마치 타악기를 연주하듯 빠른
속도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현란한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일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반복, 인내, 크나큰 소망과
신앙, 아내의 수많은 격려의 말,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엄청난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소비가 있었습니다.

2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컴퓨터 기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있습니다. 제 기기 숙련도는
일곱 살 아이 수준에도 못 미칠지 모르지만
70대치고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제가 깨달은
사실은 기술에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더
당연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소통은 달리는 말의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갈을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메시지는 공중으로 수천
킬로미터 또는 해저로 수천 미터를 가로질러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몇
초라도 지연되면 불만스러워하고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하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기적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해도, 경외심을 잃고 상투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듯합니다.

영적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현대 기술과 편리함을 당연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때때로 영원하고도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이와 유사한 태도로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빛과 진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행하시던 당시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초기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손에 난 상처를 만지면서 용솨음치는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고 그가 전하는 회복된 복음을 들었던 초기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다시 열려 하늘 분향에서 이 세상으로 빛과 지식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신권 권능이 실제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현재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으며,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고 이해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굉장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마음이 설레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 읽기를 지켜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스럽고 숭고한 은사에 대해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손가락 끝에 있는데도 때로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방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기보다는 주변 회원들의 불완전함에 너무도 빈번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로 덮인 길을 걸으면서도, 다이아몬드가 평범한 조약돌과 어떻게 다른지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숙한 메시지

젊은 시절에 친구들은 이따금 제 종교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혜의 말씀과 같은, 여타 종교와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와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명도 친구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우리 예배당의 한 공과실 칠판에 구원의 계획을 그리려 애썼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전세, 지상 생활, 그리고 현세 이후에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원들을 그렸습니다.

십 대 시절에 이 흥미진진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순한 말로 이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제 가슴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사망과 지옥에서 구속하신 구주에 대한 감사로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사랑, 기쁨, 소망이 담긴 이 메시지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이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웬지 이 메시지가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항상 이것들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제가 그들 마음속에 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그저 일깨워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은 태초부터 인류가 해 왔던 것입니다. 철학자,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애와 재산을 바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인생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에 답을 해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해답은 참되고, 분명하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감 어린 이 해답을 우리는 햇님반의 3세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¹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신성하고 불멸하며 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하늘 궁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엘로힘의 왕궁 출신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위엄을 보았으며, 그분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던 대평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얻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진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이 지상 생활을 시작할 때, 전세의 삶을 더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와 역경과 유혹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며, 결국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빠르게 배우기를 얼마나

바랐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며 매우 중대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영원한 희생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영혼의 힘을 다해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깨끗이 씻음을 받아 다시 한 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신앙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상 생활은 단지 일시적이며 육신의 사망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사인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²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은 육신과 재결합되어 고통과 육신의 불완전함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써 그분의 율법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압도적인 위엄을 띠는 삶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자비와 사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며,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³

그렇기에 죄로 말미암은 깊은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 완고함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비통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만족하게 되며, 또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자비, 관대함, 사랑에 놀라며 감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위가 선하다면, 우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모로나이가 말한 바와 같이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와 기쁜 심판대”를 고대할 수 있습니다.⁴

Pro Tanto Quid Retribuamu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경탄과 경외심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감탄과 기쁨을 느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회복된 진리들을 추구하고, 연구하며,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영원한 엄숙함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⁵ 그렇게 하여 신성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느껴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⁶

최근에 저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벨파스트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에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Pro tanto quid retribuamus”, 즉 “그토록 많은 것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라는 모토가 들어 있었습니다.⁷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숙고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방대한 빛과 진리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며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영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놀랍고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메시지를 말과 행위로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보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의 방법이 공의로우며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⁸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합시다. 고대의 야곱처럼 이렇게 외칩시다.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⁹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간증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93:29 참조.
2. 요한복음 5:28~29 참조.
3. 요한계시록 21:4 참조.
4. 모로나이서 10:34.
5. 교리와 성약 43:34.
6. 엘마서 5:26.
7. 시편 116:12 참조.
8. 모사이야서 27:31.
9. 니파이후서 9:13; 또한 8~20절 참조.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와서 나를 따르라”

구주의 후기 제자들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갑니다.

노 벨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이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다섯 살 난 손자가 병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던 어린 손자는 그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할아버지가 [덜 아플까요?]”¹ 오늘 저는 우리 각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덜어질까요?”

구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던 당시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중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도 있었으나,² 구주께서는 속죄로써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³

제자들은 불화 대신 용서와 친절과 연민을 보임으로써 육에 속한 인간의

방식에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구주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⁴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죄인들이나 특정 계급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염려를 나타내자, 구주께서는 인내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⁵ 이를 물문경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⁶

구주의 후기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고난과 시련과 육체적인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는 자연히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이 많은 교사이자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시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구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개종하도록 도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종하려고 애씁니다. 개종이란 구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필멸의 여정 동안 서로를 돕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⁷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퀘이커교도 사이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면 내가 당신을 들어 올려 주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⁸ 제자인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사랑을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⁹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¹⁰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적 성품을 가르치지 않는 세태를 보고 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매 순간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회를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복음과 인생의 교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기회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서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복음 교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숙고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요긴한 훈련 과정이나 교재는 없습니다.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부모가 되도록 부름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에게도 맞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맞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¹¹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교사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배우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참된 것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십시오. 전임 선교사들이 충실하게 헌납된 생활을 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고 간증을 나눕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적인 봉사는 가족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족 평의회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매주 방해를 받지 않을 시간을 따로 정해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엄마 아빠의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간단한 영적 개념과 경험을 나누고, 자녀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기를 배우도록 도우며, 함께 즐기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족의 시간입니다.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질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고 고통은 덜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영은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때, 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축적하는 척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하는 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인내심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일부가 그분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 하늘이 울었다고 나옵니다.¹²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친 부모들도 장성한 자녀가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를 알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들을 내내 지켜보면서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¹³ 우리가 언제 말하고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때로는 언제 침묵할지를 알도록 기도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은 전세에서 이미 구주를 따르겠다고 선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오직 그들 스스로 겪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성스러운 느낌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선택은 그들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주께 사랑을 보이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봉사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¹⁴

한 이웃이 생각하는데, 그의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는 아내가 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고, 귀걸이 하는 것까지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는 형제님은 우리 와드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지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다시 만나서 함께 있고 싶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요.”

아내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보살피는 일이라면 제 인생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주는 한 사람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구주의 특별한 제자로 비치는, 바로 저의 영원한 동반자 메리입니다. 제 아내는 자상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두 손은 주님의 다정하고 받들어 주는 손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있기에 저는 끝까지 견뎌 그녀와 영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혼자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구주의 보살핌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팔에 의지하십시오.¹⁵ 그분이 주는 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¹⁶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용서와 친절과 사랑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더욱 실천합시다. 육에 속한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자주 발발하는 전쟁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사랑과 평안을 선포합시다.¹⁷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알았고”¹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속죄]”를 알게 되었다면,¹⁹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며, …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 버려 두지도 아니하리니, … 오히려 너희는 …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²⁰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²¹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²²

저는 구주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모습이 토르발센의 조각 작품인 그리스도상의 활짝 뻗은 양팔에 잘 표현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²⁴ 그분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²³ “와서 나를 따르라”라며 손짓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을 따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더욱 사랑하여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Elie Wiesel, *Open Heart*, trans. Marion Wiesel (2012), 70.
2. 마태복음 5:38.
3. 마태복음 5:44; 또한 제3니파이 12:44 참조.
4. 요한복음 13:34.
5. 마태복음 25:40.
6. 모사이야서 2:17.
7. 고린도전서 12:12 참조.
8. “A Story of the ‘Barefoot Boy’: Written for J.G. Whittier’s Seventieth Birthday,” *The Poetical Works of John Townsend Trowbridge* (1869), 227.
9. 모사이야서 18:8.
10. 교리와 성약 88:77.
11. 요한1서 4:19.
12. 교리와 성약 76:26; 모세서 7:37 참조.
13. 누가복음 15:17, 20.
14. 제3니파이 13:4; 또한 마태복음 6:4 참조.
15. “Lean on My Ample Arm,” 영어 찬송가, 120 참조.
16. 요한복음 14:18.
17. 교리와 성약 98:16 참조.
18. 모사이야서 4:11.
19. 모사이야서 4:7.
20. 모사이야서 4:13~15.
21. 요한복음 13:34.
22. 요한복음 14:15; 또한 요한복음 15:10 참조.
23. 아람서 6:4 참조.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영혼의 진지한 소망

값진 기도를 드리는 모든 순간은 성신의 권능으로써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고 전장에 나가 싸우며 역경과 마주하고 질문에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와 자신의 원수를 벌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그녀의 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간청에 못 이긴 재판장은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¹

기도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앙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²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³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주어지는 응답대로 행한다면,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하고, 경청하며, 순종합니다.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보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길을 열어 줍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⁵

받기를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찾던 조셉 스미스는

경전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⁶ 그가 신앙으로 드린 기도예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내려오시어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시자,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치유, 강력한 보호, 신성한 지식, 자유롭게 하는 용서, 값진 평화는 우리가 신앙으로 “영혼의 [진지한] 소망”⁷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므로, 기도할 때 신회의 세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유일하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과 그가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그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사랑을 흠족히 취”할 것입니다.⁹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암으로 생명이 다해 가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과 자녀들 간에 존재하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우리는 아침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침대에 다시 오르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는 언제나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왜 이처럼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보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절할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용감한 아들들을 필요로 하신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를 들어 올려 주시리라 믿으며, 끝까지



용감하게 분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아셨고, 그 점을 절대 잊지 않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¹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¹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¹²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앞에서 옹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¹³ 그분은 고통을 겪고 피 흘리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자비롭게도 우리를 대신해 간청하시어 우리 모두 이생에서 평안을 얻고 다음 생에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고통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정결케 하는 그분의 권능을 통해 짐을 덜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는 말을 외우거나 되풀이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며, 그분처럼 기도하고 행하고 그분처럼 되고자 굳게 소망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¹⁴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¹⁵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법을 알고, 분별할 줄 알며,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뜻과 목적을 명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명확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¹⁶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장 분명히 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에 전해질 수 있으며 또 마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¹⁷

구주께서는 겹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영혼의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극한 고통 속에서 그분이 의지할 곳은 아버지뿐이었기에, 이렇게 애원하셨습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¹⁸ 구주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은 물론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었습니.¹⁹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²⁰ 잔은 치워지지 않았습니.²⁰ 그분은 겸손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며 강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신성한 소명을 이를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과 친절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성임받은 모든 일을



이를 만큼 강화됩니다. 주님은 위태로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²¹

혼자서 또는 가족과 기도하건, 교회나 성전, 또는 어디에서 기도하건, 그리고 우리가 용서, 아버지의 지혜, 또는 단순히 견딜 힘을 구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건, 우리는 항상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릅니다. 그분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과 인생의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지한 소망이 우리나라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과 “밝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²²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의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진 기도를 드리는 모든 순간은 성신의 권능으로써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18:1~8; 또한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18:8 (Luke 18:8, footnote a) 참조.
 2. 로마서 10:13.
 3. 모로나이서 10:4.
 4. 요한복음 5:21~29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행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화합을 이룬다.
 5. 마태복음 7:7~8.
 6. 야고보서 1:5.
 7. “기도는 영혼의 소망”, 찬송가, 61장.
 8. 교리와 성약 20:17, 19.
 9. 야곱서 3:1~2.
 10. 헨리 비 아이어링, “가족과 기도”, *리아호나*, 2015년 9월호, 4쪽.
 11. 사도행전 4:12.
 12. 교리와 성약 93:19~20 참조.
 13. 교리와 성약 45:3~5 참조.
 14. 교리와 성약 46:30.
 15. 몰몬서 9:28.
 16. Melvin J. Ballard, “Our Channels of Power and Strength,” *Improvement Era*, Sept. 1923, 992; quoted in M. Russell Ballard, *Yesterday, Today, and Forever* (2015), 133.
 17. 헨리 비 아이어링, “저의 마음에 기록하여”,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8. 마태복음 26:39; 또한 38절 참조.
 19. 엘마서 7:11, 13.
 20. 마태복음 26:39~44 참조.
 21. 교리와 성약 101:16.
 22. 니파이후서 31:20.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일 정원회 회장단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 일으키리니”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천국을 그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모 로나이는 조셉 스미스를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 ...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고 경고했습니다.¹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에서,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마음은 고취되었으나, 시온의 대업과 조셉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는 적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전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어린 조셉이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특히 인터넷상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이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 네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고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세와 축복을 구하리라.”²

저는 오늘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사명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모든 분께 제 간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³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진리가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거룩한 속성,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 그분들의 면전에 돌아가게 해 주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조셉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전 영원한 평의회에서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한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받을 자로 정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고 ... [그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영원한 곳에서 예임되었습니다.”⁴

조셉 스미스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준비되도록 매일 고된 삶을 살며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러나 사랑에 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셉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했으나,⁵ 그 시대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개념들이 서로 상충하였기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셉은 자신이 품은 의구심이 신앙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다가 다음 권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⁶

조셉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⁷

조셉은 단순한 신앙으로 이 영적 느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조셉이 묘사한 다음 글에는 큰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였다.”⁹

조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셉의 첫번째 시현이었습니다. 뒤이은 몇 년 동안,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물몬경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하늘의 존재가 그를 방문하여, 수 세기 동안 사라진 진리와 권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성한 전갈이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짐에 따라 천국 문이

열리고 영원한 세상의 영광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셉의 삶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응답이 하늘의 존재를 통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영감 어린 생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성신의 권능으로 옵니다.¹⁰ 우리는 성신을 통해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¹¹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물몬경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세미나리반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왕성한 상상력을 지닌 소년답게 마치 제가 물몬경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조셉 스미스인 것처럼 그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방식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저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물몬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물몬경에 담긴 회복된 진리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셉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가 언급된 성구들을 번역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의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조셉으로서 이 구원 의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기도를 했으며, 그러자 침례 요한이 방문하여 아론 신권과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¹²

또는 조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반구 백성을 방문하시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병자를 고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신권 권세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성찬을 집행하셨다는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¹³ 당시에 조셉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고대 교회의 의식과 조직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그는 이후에 주님을 도와 그 동일한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물몬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조셉과 아내 에머는 젓먹이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 물몬이 적은 다음 기록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으니, ...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이니라.”¹⁴

아마도 조셉이 물몬경에서 가장 놀랐을 만한 성구는 니파이후서 3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3장에는 주님이 후기에 일으키실 한 “뛰어난 선견자”, 곧 부친의 이름을 따라 조셉이라 불릴 선견자에 관한 고대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예언에는 이 미래의 선지자가 “높이 여감을 받”고 그의 백성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줄 권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¹⁵ 조셉 스미스가 이 예언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은 단순히 역사 기록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적인 회복에 관해, 그리고 조셉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우리라는 내용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조셉이 주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을 성취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조셉이 이 예언을 번역할 당시만 해도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 중에 그가 완수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도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교회는 아직 조직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드나



지부도, 선교사도, 성전도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그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조셉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종 조셉의 손으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성취가 곧 선지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자신의 간중에 의구심이 있는 분, 또는 그의 생애와 성역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로 고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열매, 곧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계시와 선지자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시현, 치유, 천사의 성역이 베풀어지는 기적의 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¹⁶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는 모두 침례, 성신의 은사, 성찬을 비롯한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누립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에게는 성전의 축복과 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결속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며,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언젠가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¹⁷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는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소중한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압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천국을 그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¹⁸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수많은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에는 오늘날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제일회장단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증거에 작지만 확고한 저의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신권과 권세는 다시금 지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훌륭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간증과 감사를 두려움 없이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33.
2. 교리와 성약 122:1~2.
3. 아모스 3:7 참조.
4.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Oct. 26, 1859, 266;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44 참조.
5. 조셉 스미스—역사 1:8.
6. 야고보서 1:5.
7. 조셉 스미스—역사 1:12.
8. 조셉 스미스—역사 1:15.
9.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10. 교리와 성약 8:2 참조.
11. 모로나이서 10:5.
12.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참조.
13. 제3니파이 11~20장 참조.
14. 모로나이서 8:11~12.
15. 니파이후서 3:6~15 참조.
16. 모로나이서 7:35~37; 신앙개조 제7조 참조.
17. 교리와 성약 84:21~22.
18. 요한복음 17:3.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실 때 진심을 담아 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십니까?

19 77년에 저는 페루 쿠스코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쿠스코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장엄한 마추픽추 유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적지 방문을 끝낼 무렵에 일부 선교사들이 등산로의 일부인 잉카 브릿지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등산로는 산 측면 육백십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 등산로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구역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그들에게 잉카 브릿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들은 그 등산로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너무 거세게 요청하는 바람에, 영이 제게 알려 주었는데도 저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 다리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잉카 브릿지에 이르는 등산로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무리의 맨 뒤에 있었으며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한 바에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선교사들은 아주 빠르게 걷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라는 제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잡아서 되돌아가자고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참 뒤쳐져 있던 저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 두 명이 지나가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길에 한 선교사가 암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곳에서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지점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앞서간 선교사들을 제가 따라잡아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주었으며, 저는 등산로를 따라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면에 녹색 식물이 가득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른발을 지면에 내디딘 순간, 저는 추락하면서 녹색 식물 밑이 허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등산로 아래쪽의 나뭇가지 몇 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육백 미터 아래에서 잉카 산맥의 신성 계곡(Sacred Valley)을 가로질러 흐르는 우루밤바 강이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고 이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짝딱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붙잡은 나뭇가지는 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락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굳건한 손이 제 팔을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 저는 온 힘을 다해 등산로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 머물렀던 그 선교사가 저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세 번씩이나 잉카 브릿지로 가지 말라는 영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앞서간 다른 선교사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고, 그들을 찾았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하면서 침묵 속에 마추픽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하고 있던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께서는 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공의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크신 자비로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엘마서 26:20 참조)

하루를 마감하면서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지[여]”라고 기도드렸습니다.(고린도후서 1:3)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모로나이서 10:4)

그날 아침에는 입으로 기도했지만 비명횡사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크나큰 자비를 여러 번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날 페루 쿠스코 마추픽추에서 제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제가 늘,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여쭙었습니다.(누가복음 11:1)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겐세마네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누가복음 22:42) 기도하시면서 정말 진실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특히 겐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브리서 5:7) 기도하실 때 진심을 담아 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십니까?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누가복음 3:21)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느끼십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은 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누가복음 6:12~13)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준비하십니까? 기도하는 순간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더라.”(제3니파이 19:26)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권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0:5)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째서 우리는 때때로 받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눈과 귀가 이제 여러분과 맞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이로운 사실은 그분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과 자비가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순간은 참으로 매우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분은 “아니, 지금은 네 말을 듣지 않겠다. 네가 힘겨울 때만 내게로 오니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진정으로 노력하며 자기 합리화나 반항을 하지 않는다면, 즉 은혜를 구하며 자주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종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자애로운 은혜 속에 의과 대학을 마친 저는, 젊은 의사로서 쟁쟁한 고강도 프로그램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련의들을 만나고 보니, 지식이나 준비 면에서 제가 가장 형편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턱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시작하고 석 달이 막 지난 어느 늦은 밤, 저는 병원의 간호사실에 앉아 폐렴에 걸린 어린 소년의 입원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혼자 훌쩍이다 졸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주눅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열 살짜리 아이의 폐렴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배 레지던트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그의 말에 저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그를





비슷한 다른 모든 선배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제가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조차도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선배가 저를 믿어 준 것입니다.

제 경험처럼, 우리 회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정말로 “구원받기에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구원을 “얻거나”,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앞의 두 질문도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면서 간혹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순수한 권유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다 따르지는 못해.”, “이들같이 좋은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을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의 느낌은 아마 그날 밤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거나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말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립니다. 비교해야 한다면, 우리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에, 더 나아가 이루어 하는 미래의 모습에 견주어 봅시다. 우리에게 관한 중요한 의견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여쭙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바로잡아 주실 뿐, 절대 낙담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회개하며 자기 합리화나 반항을 하지 않는 한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경기에서 탈락시키려고 갖은 구실을 찾아내는 무자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온전하고도 다정한 아버지시며, 모든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가족으로 영원히 살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바로 그 영원한 진리에서 희망과 위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이자 영광입니다.²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쓰시던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분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로지 노력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이어야 합니다!”³

“진정한 노력”이란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 개선이 필요한지 깨닫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⁴ 주님의 은혜나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⁵

저는 가끔씩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성도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속죄는 우리가 악을 극복하고 피하며,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 ‘각 개인이 ... 이루기 힘든 훌륭한 일을 ... 힘과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덕택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정전 안내서, “은혜”, 강조체 추가] 혹은 …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늘 도움입니다.”⁶

하늘 도움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구하고 의로운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과거의 죄로 승영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가 살던 시대의 범법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⁷

주님께서도 죄인에 대해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⁸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지었더라도 말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 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⁹

그렇다고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란 언제나 그 결과를 동반합니다. 죄를 짓는 자나 피해자나 모두 해를 입고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¹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한 죄책감과 오점을 거두신다고 해도, 죄의 모든 결과마저 바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때로는 죄의 결과가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는, “일단 저지르고 회개는 나중에 하자”는 식의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자신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무릇 나누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¹¹

또한 엘마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¹²

엘마의 말이 유독 사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로 성신에서 멀어지고 낙담하다가 결국 회개마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주의 속죄로 우리는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순간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란 걸 하나님도 아실 테니, 그분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시겠지.” 하며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전 추천서를 받을 때 묻는 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필요한 도움을 바로 얻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바로 반항입니다. 모세서를 보면 사탄이 반항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³ “하나님도 회개도 이제는 필요 없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반항의 길로 들어섭니다.

중환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저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온당치 않게 거부할 때 불필요한 육체적 사망을 맞을 수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는 일은 유일한 도움과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¹⁴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그분의 도움을 생각해 보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진정으로 노력하며 자기 합리화나 반항을 하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자주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자녀를 모두에게 주시려는 축복과 영광,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3:16 참조.
2. 모세서 1:39 참조.
3. 핑클리 회장의 다음 인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인쇄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그러십시오.” (“도전의 시간, 훌륭한 시간”, *세미나리를 가르침: 예비 독서 자료*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4년, 18쪽) “실폐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성취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지는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록한 표상을 세우십시오”,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108쪽)
4. 교리와 성약 50:24 참조.
5. 이디서 12:27 참조.
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라*, 2012년 4월호, 14쪽.
7. 모로나이어서 6:8.
8. 모사이야서 26:29-30.
9.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라*, 2012년 5월호, 33쪽.
10. 교리와 성약 10:15-19 참조.
11. 교리와 성약 1:31.
12. 엘마서 41:10.
13. 모세서 4:3 참조.
14. 니파이후서 2:6-8 참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전 6세기에 중국의 공자나 동인도의 부처와 같이 뛰어난 사상가들이 배출되었지만, 하나님의 신권 권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 다니엘 위에 있었습니다.

밤에 꿈에 대해 몹시 번민한 왕은 박수와 점쟁이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 말해 보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왕이 꾸는 꿈을 알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을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¹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자 격노하여 모든 고문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지혜자 중 하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기를 간구했습니다.²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꾸는 꿈의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꾸는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가 왕이 꾸는 꿈을 알 수는 없으나 ... 이런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즉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 하나가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채우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입니다.”³

꿈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전해지자,

왕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⁴

온 세상을 채우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왕국, 즉 지상에 회복될 것이라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미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니엘에게 밝혀졌습니다.

니파이는 후일에 교회 회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그들은 온 지면 위에 있을 것이고, 신권의 권능과 의식은 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다니엘이 예고했듯이 지상을 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⁵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왕국[과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⁶

나누어야 할 책임

이스라엘의 집합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재림의 영화스러운 사건들 앞에



놓일 수많은 퍼즐 조각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산더미 같은 퍼즐 조각을 보면 당혹스럽듯이, 초기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임무를 받고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착수했고, 한 번에 한 조각씩 가장자리부터 퍼즐을 맞추듯이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여 이 신성한 사업의 뼈대를 조금씩 세워 갔습니다! 그리하여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또 수만 명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성약을 맺은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업에서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퍼즐의 한 조각이며, 다른 필수적인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위대한 대업에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가 퍼즐에서 빈 공간을 채워 나갈 때, 계속되는 기적과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며⁷ 위엄과 영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 같이 나아가 함께 일하는 가운데 ...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⁸

한때는 주로 전임 선교사의 어깨 위에 놓였던, 하늘에서 부여한 책임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며,

감사하게도 매주 수천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이 크기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의 한계

복음을 나누려는 강한 소망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과거에 했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다음과 같은 말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했는데, 별 관심이 없더군요. 매번 거절을 당하니까 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난처해서 괜히 죄책감만 들어.”

제가 조금 도와 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얼마큼이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가솔린 차에 장착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차 안을 밝혀 주고, 시동을 걸어 주고, 전조등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에는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배터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책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도리어 엘마가 가르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십시오.⁹ 이런 기도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가 됩니다.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분의



이스라엘의 집합은 마치 재림에 앞서 제자리를 찾아 놓이게 될 거대한 퍼즐과도 같다. 우리 각 사람은 퍼즐의 한 조각이며, 다른 필수적인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도움을 준다.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할 데 없는 은사에 대해 말하십시오. 물론경에 나오는 그분의 힘찬 진리를 나누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¹⁰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될 기회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자주 기도한다면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찾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속삭임에 응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할 것이며, 언젠가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노력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돕는 영적인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선교사의 도움을 얻고, 또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종 시점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¹¹

카를라 페르산드는 모리셔스 제도 출신으로, 저희가 그녀를 만났던 1991년 2월 당시에 그녀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줄곧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인지 그녀를 저희 집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침례를 베푸는 영광을 얻었지만, 카를라가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국에 있던 친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때가 되자 카를라는 침례를 받았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에 따른 축복이 그녀의 온 주위에 가득하며, 그녀의 아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노력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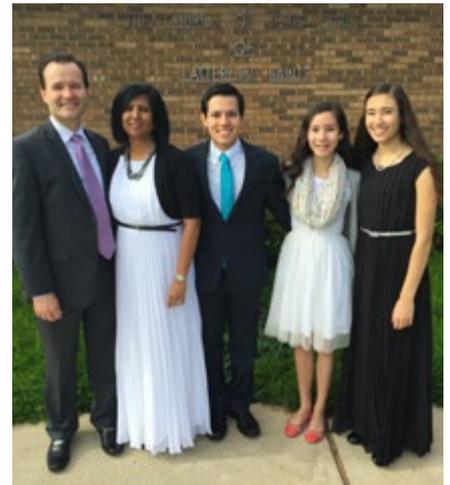
디에고 고메즈(위, 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와 카를라 페르산드(우측, 침례받은 뒤 25년 후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의 개종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손을 내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 왔다.

느낌에 대해, 또는 선교사를 만나 보라는 권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합격/불합격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¹²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들이는 노력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여러분의 성적은 항상 최우수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선교사 활동을 제한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훌륭한 회원들은 더 큰 용기를 내어 “어느 때에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출신의 나테즈다는 자주 물론경을 선물 상자에 넣고 사랑을 그 주위에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스베틀라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서 자주 보던 한 남자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보시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빅토르를 가르쳤고,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빅토르와 스베틀라나는



훗날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칠 년 전, 저희 부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디에고 고메즈와 그의 행복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지만, 교회에 관해 더 알아보라고 권유하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올해 5월에 저는 디에고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담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만났고, 토론을 거쳐,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저는 제 친구이자 제자의 길을 함께 가는 동료인 디에고 고메즈와 함께 침례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개종은 그만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와 인연이 닿았던 많은 사람의 도움과 지원도 또한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전하는 권유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훌륭한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권유와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질문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피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맨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현대의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대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¹³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므로¹⁴, 여러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나 중남미, 태평양,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그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즉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 하나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므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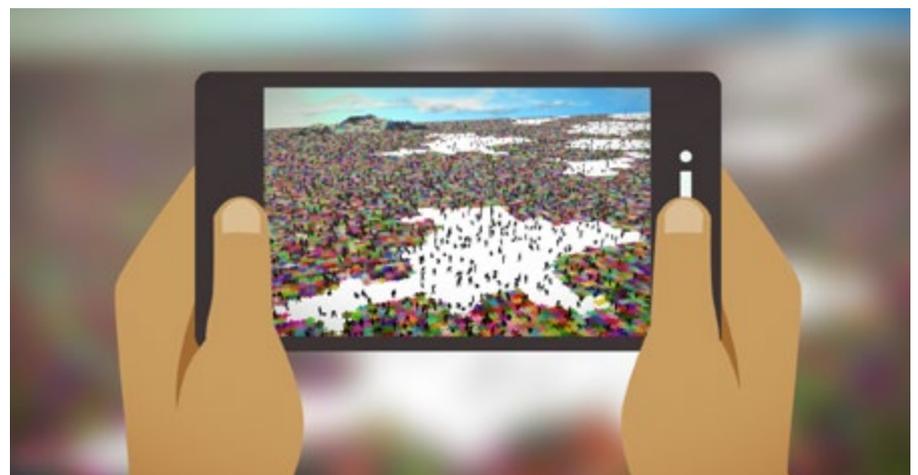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¹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다니엘 2:10.
2. 다니엘 2:18.
3. 다니엘 2:26~28, 28, 44~45; 또한 34~35절 참조.
4. 다니엘 2:47.
5. 니파이전서 14:12~14 참조.
6. 교리와 성약 65:2; 또한 110:11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또한 보이드 케이 패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4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쪽.
9. 모사이야서 18:9.
10. 마태복음 10:32.

11. 한 달 전, 저는 브라질의 산타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호아오 그랄 형제님은 자신이 청남 시절에 2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침례를 받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똑같은 소망을 품고 있던 누이들에게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등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그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사는 그들의 큰아버지께서 다니러 오신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방에 계실 때, 아이들은 침례를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또다시 졸랐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날도, 거긴 참된 교회야. 침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어라.” 큰아버지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몇 달 전에 침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생 집으로 가 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들이 침례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에 레이날도 또한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는 한 사람을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2. “여러분이 권유한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성공한 것입니다.”(Clayton M. Christensen, *The Power of Everyday Missionaries* [2012], 23; 또한 everydaymissionaries.org 참조)
13. 마태복음 28:19.
14. 모사이야서 15:28.
15. 다니엘 2:44~45; 또한 34~35절 참조.
16. 교리와 성약 65:5.



전 세계의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다루는 능숙한 솜씨로 도움을 주기 위해 온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역원 지지

형 제 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가 교회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칠십인의 지지를 묻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러셀 매리온 넬슨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니엘 엘 존슨, 자이로 마자가르디,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를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직에 임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6년 7월 26일에 별세하신 페르 지 맘 장로님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맘 자매님과 자녀 및 손자, 손녀분들께 우리의 사랑과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앨런 알 위커를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커 형제님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바누 케이 히라나다니, 산디노 로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역원 지지가 끝났습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이런 걸림돌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영 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은²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용기를 가로막아 영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³ 걸림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제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목장 부지 한쪽에 작은 오두막을 지으셨습니다. 초원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오두막집에 벽을 세울 무렵 저는 그곳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집 창문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전신주를 향해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그 전신주는 멋진 풍경을 가로막는 거대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신주가 창문 바로 앞에서 풍경을 가로막는데 왜 그냥 두셨어요?”라고 여쭙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제 아버지는 유난히 현실적이고 차분한 분이시지만 이때는 조금 감상적인 어조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쿠엔틴, 내겐

저 전신주가 이 목장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다! 저 전신주를 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자랄 때와는 달리, 요리하고, 손을 씻고, 목욕할 물을 샘에서 길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거든. 밤에 책을 읽으려고 초나 등잔에 불을 붙일 필요도 없지. 그래서 나는 창문의 정중앙에 저 전신주가 보였으면 한단다.”

전신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전신주가

풍요로워진 삶을 의미했으나, 저에게는 멋진 풍경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미적인 풍광보다 전기, 빛, 청결함의 가치를 더 높이 사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겐 단지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전신주가 아버지에게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걸림돌이란 “어떤 것을 믿거나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또는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죄나 그릇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⁵ 우리가 의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이런 걸림돌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걸림돌 때문에 간증에 혼란이 생긴 채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제 아버지가 목장에 있는 그 전신주를 옹호하셨던 것만큼이나 순수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우리의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하며, 그 간증에 용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걸림돌 중 하나는 인간의 철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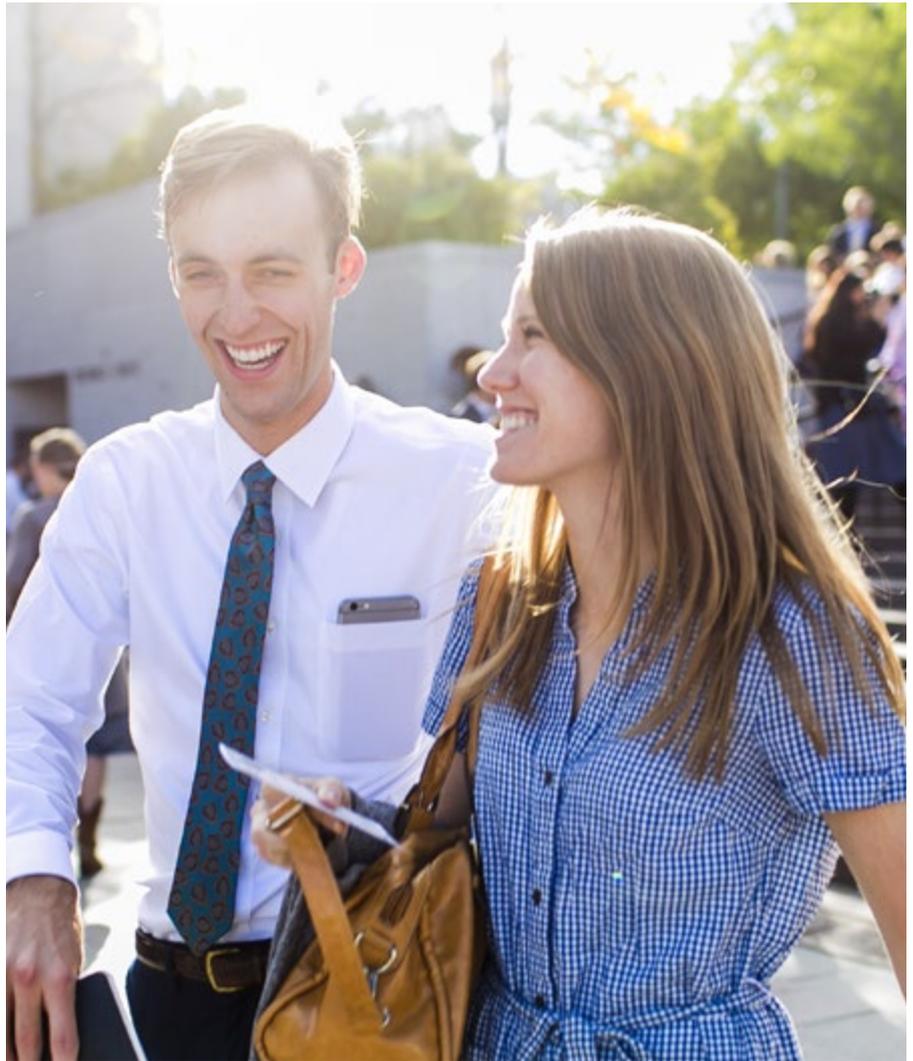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고⁶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의 철학을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주를 통해 기적적이고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증인이 되었습니다.⁷ 바울은 이러한 독특한 배경 덕분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솔직한 순박함”과 빌립보 사람들의 “따뜻한 동정심”을 사랑했습니다.⁸ 처음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헬라인을 이해하는 것을 더 힘들어 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마르스 언덕)에서 했던 설교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교리”만을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⁹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¹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관한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 몇 가지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15장은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작품인 **메시아**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습니다.¹¹ 이 작품은 구주에 관한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에 바로 이어지는 **메시아 제3부**의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 이루신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¹²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교리보다 우선시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배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으며, 그 명백하고 귀한 진리가 변질되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믿음을 기존의 문화와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이교 신앙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것을 접목했다. 소멸하고 있던 그리스의 사상이 환생하게 되었다.”¹³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적으로 아주 세련되지 않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 초기에는 적어도 많은 이들이 구주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시대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히버 시 김볼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 최초의 십이사도 일원이었으며 브리검 영 회장의 제1보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언젠가는 성도인지 하나님 백성에 대적하는 적인지 구별하기 힘들 ...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체를 주의하십시오. 체로 걸러 내는 시간이 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볼 장로님은 시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말씀을 맺었습니다.¹⁴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종교적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기도 어려워집니다. 확고히 자리 잡은 철학 사상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의 명분의 영향을 받게 된 일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982년,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하신 다음 말씀은 히버 시 김볼 장로님의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과오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번 체로 걸러질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배반자에게 속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마다 그에 걸맞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¹⁵

또 다른 걸림돌은 죄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특징적이면서도 염려되는 측면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묻지 않으셔야 한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엘마 이세의 아들 코리엔톤이 취한 입장도 이와 같았습니다. 코리엔톤은 통탄할 만큼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고 엘마에게 훈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감한 암흑의 심연”과 “기이한 빛”을¹⁶ 몸소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마가 아들에게 전했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엘마서 39장에서 우리는 엘마가 어떻게 회개의 단계에 따라 아들을 훈계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거두러 오실지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부정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¹⁷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시켰습니다.

엘마서 42장은 속죄에 대하여 경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엘마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¹⁸ 부당한 것이 아님을 코리엔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시대로부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할 기간”을 주셨으며, 회개 없었다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¹⁹ 또,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²⁰

엘마의 가르침은 참으로 교훈적입니다.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²¹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회개하고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엘마가 코리엔톤에게 그랬듯이, 죄가 되는 선택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²²라는 말이 그래서 자주 회자되는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가 가져다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은 회개하면 죄가 씻긴다는 것입니다. 코리엔톤이 회개하고 나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²³

풋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선지자 야콥은 고대 유대인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함을 ... 경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풋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으며,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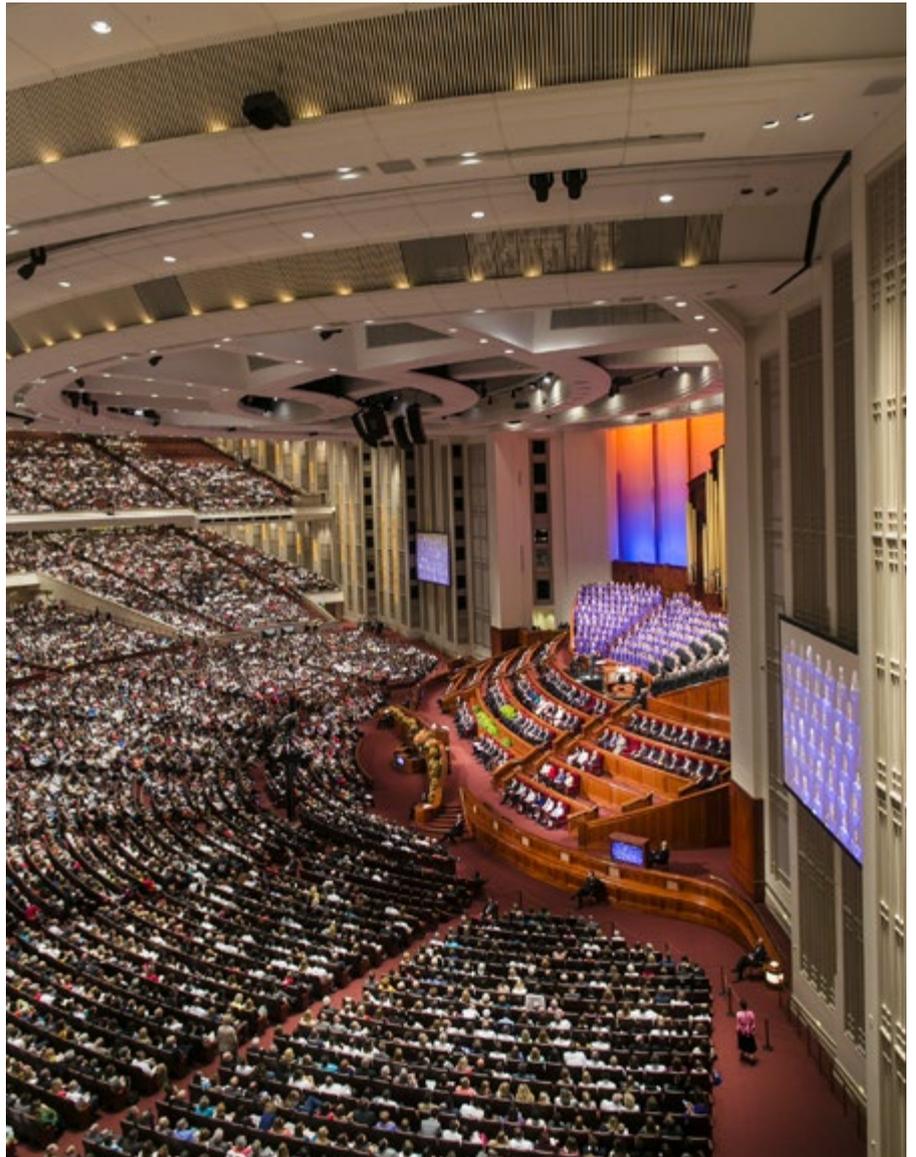
풋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예가 많이 있지만,²⁵ 그중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극단주의입니다. 복음 극단주의는 어떤 복음 원리를 똑같이 중요한 다른 원리들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그에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변경하자고 주장하거나, 특정 부분 위주로

강조하는 것 등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여 너무 값비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개인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을 종용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한 율법이나 기타 다른 원리를 종교적 광신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는 꾀대를 지나쳐 보는 것입니다.”²⁶

주님은 “누구든지 이에 더하거나 덜한 것을 선포하는 자,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²⁷라는 중요한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원리를 더 중요시하여 이와 동등한 다른 중요한 원리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약화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꾀대를 지나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회원들은 선한 대의명분이 기본적인 복음 교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대의명분에 전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작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의무는 이차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킵니다. 어떤 것을 구주에 대한 헌신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구주를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 아닌, 그저 또 하나의 선생님 정도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꾀대를 지나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꾀대입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지²⁸ 여부가 해의 왕국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들과 달의 왕국에 있을 자들을 구분하는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려면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권능과 속죄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²⁹ 또한 성전의 신성한 의식뿐 아니라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구주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빛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³⁰



결론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려면, 많은 고결한 이들의 진보를 옹아매고 방해하는 걸림돌을 피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할 때에는, 구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인간의 철학을 피해야 합니다. 죄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고 회개를 통해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꾀대를 지나쳐 보지 말고,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전신주가 전기와 빛을 공급하고, 먹고 씻는 데 쓸 물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신주는 그분의 삶을 향상시킨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걸림돌이 “고결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디딤돌”이³¹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는 것은 우리를 구주의 은혜와 해의 왕국을 누릴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디딤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입니다.³²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고귀한 역할에 대한 저의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교리와 성약 14:7; 또한 요한복음 17:3 참조.
2. 교리와 성약 76:79.
3.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26~127쪽 참조.
4.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stumbling block."
5.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stumble."
6. 교리와 성약 93:36.
7. 사도행전 9:1~9; 26:13~18 참조.
8.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1898), 319 참조.
9.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319~320 참조.
10. 고린도전서 2:4~5.
11. George Frideric Handel, *Messiah*, ed. T. Tertius Noble (1912) 참조.
12. 고린도전서 15:20~22, 55, 57.
13. Will Durant, *The Story of Civilization, vol. 3, Caesar and Christ* (1944), 595.
14. Heber C. Kimball,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45), 446.
15. 닐 에이 맥스웰, "기운을 내라",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02쪽.
16. 모사이야서 27:29.
17. 엘마서 40:26.
18. 엘마서 42:1. 후기 성도 교리에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들, 이해력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29:46~50; 137:7~10 참조)
19. 엘마서 42:5.
20. 엘마서 42:8.
21. 엘마서 42:34. 영어에서 justice(공의)는 남성 명사이며 mercy(자비)는 여성 명사임을 참고로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22. Robert Louis Stevenson, Carla Carlisle, "A Banquet of Consequences," *Country Life Magazine*, July 6, 2016, 48. 칼라일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인용했다고 함.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
23. 엘마서 42:29.
24. 야곱서 4:14.
25. 필자는 2003년 교회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작성했던 기사에서 야곱이 묘사한 신학적 어둠과 넘어짐을 초래할 수 있는 네 가지 분야, 즉 복음 진리를 인간의 철학으로 대치함, 복음 극단주의, 매일의 헌신을 영웅적 행위로 대신함, 규칙을 교리보다 앞세움에 대해 강조했다.("정도를 지나쳐",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1~24쪽 참조)
26. 쿠엔틴 엘 쿡, "정도를 지나쳐",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2쪽.
27. 교리와 성약 10:68.
28. 교리와 성약 76:79.
29. 니파이후서 31:17~21 참조.
30. 니파이후서 31:20~21 참조.
31. Henry Ward Beecher, Tryon Edwards, *A Dictionary of Thoughts* (1891), 586.
32. 니파이후서 31:21; 모사이야서 3:17 참조.

그 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라

물문경을 우리의 종석, 즉 우리가 지닌 힘의 영적인 중심으로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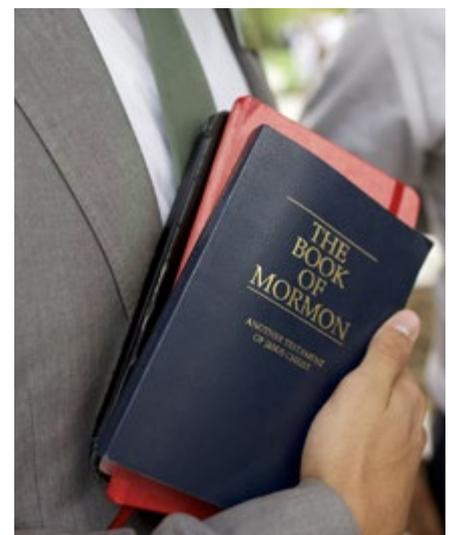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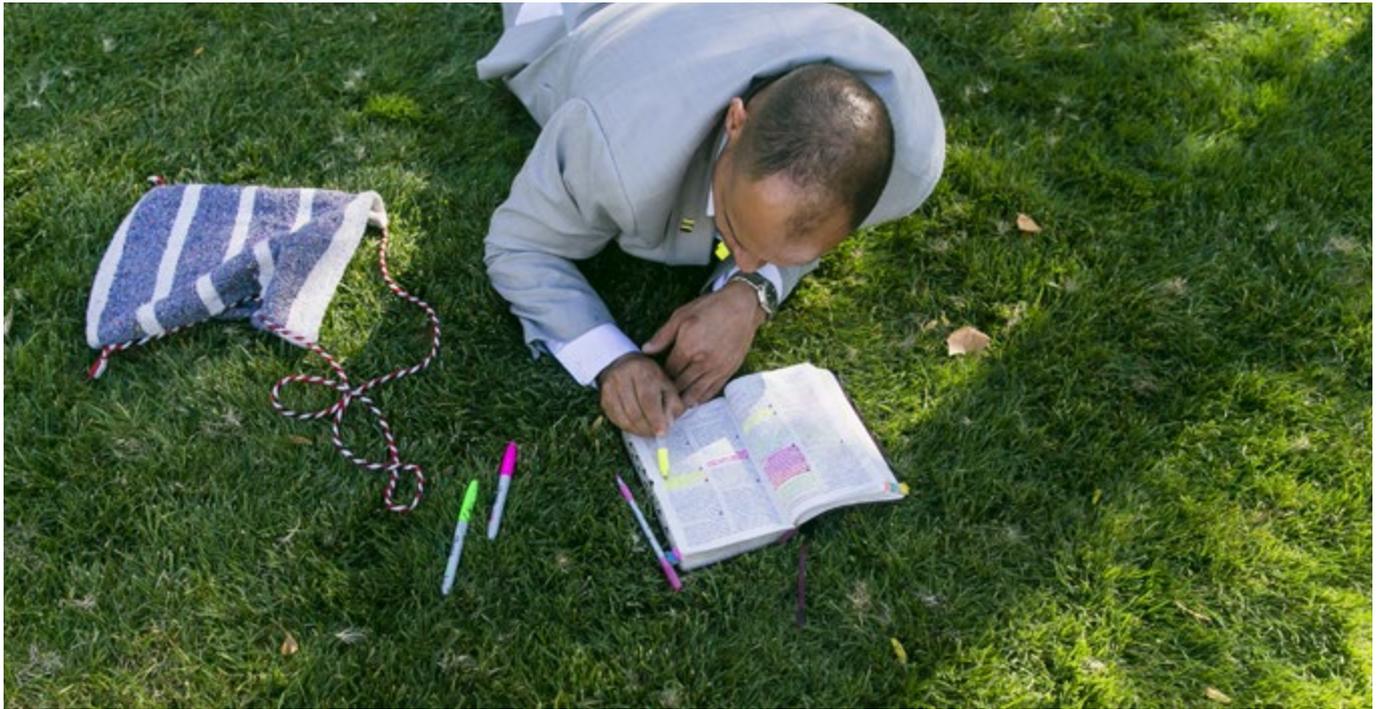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이 대회에 모임을 시청하고 계실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며, 여러분께 모범과 교훈이 될 실화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유혹을 이기고자 더 큰 권능에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큰 호수에서 배가 가라앉은 사고로 세 살이 채 못 되어 아버지를 여윈 소녀가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오빠, 여동생과 함께 이모 부부와 살기 위해 다른 주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가족이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조직된 종교의 선교사와 회원들이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라는 젊은이에게 고대의 기록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그 기록을 번역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라는 두 방문자는 모두 금속으로 된 판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휘트머는 손으로 직접 그 금판을

만져 본 터였습니다. 최근에 이 기록이 책으로 출판되자 휘트머 형제가 직접 이 책을 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의 이름은 물문경이었습니다.

열두 살 난 메리는 그 책에 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문경은 분량이 많은 두꺼운 책이었지만, 메리는 그 책이 간절히 읽고 싶었습니다. 휘트머 형제는 그곳을 떠나면서 아이작 몰리 형제에게 이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메리의 이모부와 친구 사이인 아이작 몰리 형제는 새로운 교회의 현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 [몰리 형제님] 댁으로 가서 그 책을 보여 달라고 부탁드렸다. 형제님은 내 손에 그 책을 건네주셨고, 그것을 들여다보던 나는 몹시도 그것이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형제님은 본인도 아직 한 장을 채 읽지 못했고, 대부분의 형제들은 이 책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 간절히 애원하자, 마침내 ‘애야, 내일 아침 식사 전에 가져올 수 있다면 가지고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달려온 메리는 책에 푹 빠져들어 밤을 거의 새워 가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가 책을 돌려주러 가자 몰리 형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읽지는 못했겠구나. 그래도 혹시 거기 나오는 말을 한마디라도 들려줄 수 있겠니?” 메리는 똑바로 서서 물몬경의 첫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 니파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애야,

가져가서 마저 읽어라. 나는 그다음에 읽으마.’”

머지않아 책을 모두 다 읽은 메리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물몬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그 책이 참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책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메리는 물몬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특별한 방문객이 집으로 메리를 찾아왔습니다. 메리는 오래 기억될 그날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 잠시 후 그분은 ... 나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고 ... 나에게 그 책을 선물해 주시며 몰리 형제님께는 다른 물몬경을 한 권 더 드리겠다고 하셨다. ... 우리는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분이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서 권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라는 이 소녀는 살면서 많은 기적을 더 보았고, 항상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잃지 않았습니다.¹ 이 이야기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저의 4대조 고모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과 더불어 메리 할머니의 모범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도

물몬경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간증의 종석

메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교훈을 줍니다. 청년과 청년, 어린이 여러분은 모두 메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알고 싶다는 바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메리가 느낀 감동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물몬경에 대해 간증할 때, 여러분도 메리처럼 영적인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몬경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똑같은 영적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간증이 하나하나 쌓이면 물몬경은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종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물몬경을 번역했으며, 물몬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²

물몬경은 1830년에 초판이 인쇄된 이래, 우리 종교의 종석으로서 건재함을 자랑하며 110개의 언어로 1억7천4백만여 권이



아치 모양 입구의 종석과 같이, 몰몬경은 우리 간증의 종석이 된다.

출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건축에서 종석은 아치형으로 된 입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종석은 썩기 모양의 돌로, 아치의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놓입니다. 종석은 아치 양편의 돌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돌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적인 요소 덕분에 문이나 그 아래 공간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몰몬경처럼 형태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우리가 그것을 손에 들고 읽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이자 축복입니다. 몰몬경을 우리의 종석, 즉 우리가 지닌 힘의 영적인 중심으로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 몰몬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몰몬경에 있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찾을 것입니다.”³

제 개인적인 간증

제 경우 몰몬경은 수년에 걸쳐 많은 경험을 쌓는 동안 제 간증의 종석이 되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로서 제가 봉사했던 첫 번째 지역은 일본 구마모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만의 간증을 얻는 데 아주 중요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반자와 함께 가가호호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친절하시게도, 일본어로 *겐칸*이라고 하는, 현관 안쪽으로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저는, 그 무렵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고 그 책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생활을 막 시작한 터라 일본어가 신통치 않았습다. 사실, 할머니는 제 말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몰몬경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고대의 기록이 새겨진 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간증을 전하던 저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 위로와 평온을 느끼며 가슴속이 훈훈해졌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속]에서 뜨겁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⁴ 저는 이 느낌을 통해서 몰몬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일본인 할머니께 말씀을 전하며 얼마나 강한 느낌을 받았던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그 특별한 느낌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

여러분도 모두 이 책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책은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면서 받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비롯한 고대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 몰몬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물론 당시의 백성들도 이 책을 온전히 소유하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지자와 제사, 왕들이 소중히 받아들여 보존했던 그 성스러운 기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온전한 몰몬경을 직접 손으로 들어 보는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몰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라는 선지자는 우리 시대, 곧 여러분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모로나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시현으로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즉 몰몬경]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⁵

몰몬경이 여러분의 간증에 종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만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젊은이들이 하루 평균 일곱 시간을 TV,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데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⁶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소셜 미디어,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데 쏟는 시간의 일부를 몰몬경을 읽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연구가 정확하다면, 매일 10분만이라도 몰몬경을 공부할 시간을 찾기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전자 기기로부터 책으로부터 자신이

즐기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몰몬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몰몬경 읽기를 결코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쓰디쓴 약을 재빨리 꿀꺽 삼키고는 끝났다면 한숨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⁷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몰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만 읽고 싶어지는 장이나 구절, 부분이 나오면 다음, 그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메리의 모범을 따르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여러분이 신이 나서 몰몬경을 읽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답을 발견하고, 인도의 손길을 느끼고, 몰몬경에 대해 자신만의 간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몰몬경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며,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랑하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서는 어렵잡아 평균 1.7절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나옵니다.⁸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이 후기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은 참되도다”라는 말씀으로 간증하셨습니다.⁹

저는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몰몬경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권고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이 권고와 약속을 읽어 드리고, 거기에 저의 간증을 더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몰몬경)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나,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할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¹⁰

저는 이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었고 몰몬경은 그 회복에 대한 손에 잡히는 증거임을 간증드립니다. 거의 2세기 전, 열두 살 난 소녀가 이 책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배우는 진리로 그와 같이 고양되고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여러분은 신앙이 강화되고,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며, 스스로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미래를 위해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기쁨이 배가되고, 이해력이 커지며, 필멸의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몰몬경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임을,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26, 193~195 참조.
2. 몰몬경 소개.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4. 교리와 성약 9:8.
5. 몰몬서 8:34~35.
6.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Media and Children,” aap.org 참조.
7. Russell M. Nelson, “Strengthen the Shepherds” (address given at the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s, Sept. 28, 2016).
8. Susan Easton Black, *Finding Christ through the Book of Mormon*(1987), 16~18 참조.
9. 교리와 성약 17:6.
10. 모로나이서 10:4; 또한 3, 5절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히 인내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 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해 줍니다.¹ 그분은 사랑의 완전한 전형이시며, 우리는 그 사랑의 한결같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보편성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²

이 신성한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주 듣는 표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맞지만,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경전에는 그분의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³ “온전한 사랑”,⁴ “구속하시는 사랑”,⁵ 그리고 “영원한 사랑”⁶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용인하시며 참아 주신다거나,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거나, 또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히 인내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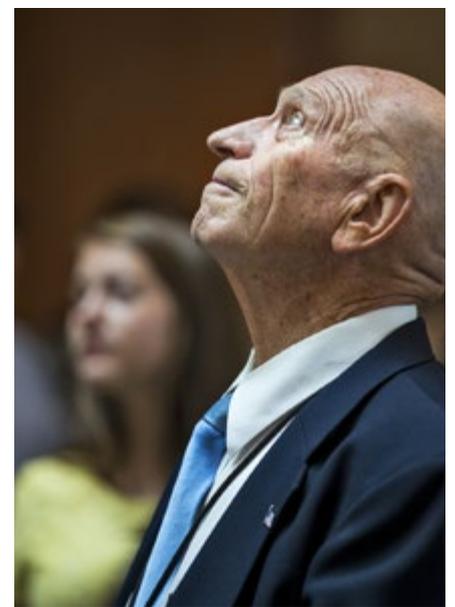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뜻입니다.⁸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으며, 성신을 받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죄 중에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¹⁰ 앰올레크가 지에스롬에게 한 말, 즉 구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죄 중에

구원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¹¹ 그 이유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¹²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¹³

물론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 즉 그분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인 그 고통당하심의 목적은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을 배웁니다.

또한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¹⁴

그렇기에 회개는 그분께서 매우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는 주님의 산상수훈을 근거 삼아¹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또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즉 그분의 사랑과 율법과 공의와 자비가 허용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그분처럼 너그러워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순종이라는 덕목에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부신 꽃다발에는 영생을 포함하여 우리가 합당치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게 할 수 없으며, 주님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축복하시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앨마서 11:37 참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¹⁷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¹⁸ 죄에서 깨끗해지고 흠 없이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두 번째 필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 즉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¹⁹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전의 무고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 아버지는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딸들이 당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²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징계가 주어질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²¹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²² 그것은 우리가 “해의 왕국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²³ 우리를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²⁴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라 할 것입니다.”²⁵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을 신성한 사랑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해 주는 좋은 일화입니다. 헬렌은 1880년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일 때 그녀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헬렌은 매우 총명했지만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느끼려고 할 때마다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헬렌이 가족들의 입술의 움직임과 그들이 입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습니다.”²⁶ 여섯 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헬렌의 욕구와 그에 따른 좌절감이 극에 달했고, “그녀는 매일, 때로는 매 시간마다 감정의 폭발을 겪었습니다.”²⁷

헬렌의 부모는 딸을 위해 가정교사를 구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듯이,²⁸ 앤 설리번은 그녀 스스로 많은 고초를 겪었기에 헬렌의 약점과 장애를 잘 이해했습니다. 앤은 다섯 살 때 병으로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거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앤이 여덟 살 때 그녀의 모친은 세상을 떠났고, 부친은 앤과 남동생 지미를 버리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극빈자 구호소”로 보내져서 생활했는데 그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나머지 동생 지미는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앤은 끈질긴 고집과 노력으로 맹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퍼킨스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외과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앤은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부친이 퍼킨스 스쿨에 연락하여 딸의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문의했을 때, 앤 설리번이 적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²⁹

그 일은 처음에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헬렌은 “교사인 앤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찼으며 이를 하나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앤은] 결국 켈러 집안 소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헬렌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되면서 조금씩 헬렌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일관성을 유지한 덕분에, 결국 앤은 그 어린 소녀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³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교사에게 저항하는 대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헬렌이 글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앤은 익숙한 물건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헬렌의 손바닥에 써 주었습니다. “[헬렌은] 이 ‘손가락 놀이’를 좋아했지만, 그 놀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앤이 헬렌의] 손에 물을 뿌리면서 ‘w-a-t-e-r’이라고 썼을 때였습니다. [헬렌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마치 잊었던 기억처럼 어렴풋한 의식을 느꼈고, … 어떻게 된 일인지 언어의 경이로움이 내 눈 앞에 열렸다. 그런 뒤 이제 나는 그 ‘w-a-t-e-r’이란 것이 내 손에 흐르는 기분 좋고 시원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살아 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를 자유롭게 했다! …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고, 각각의 이름은 새로운 개념을 불러왔다. 우리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만지는 … 모든 물건들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³²

헬렌 켈러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 그녀는 언어에 대한 사랑과 작가로서의 글솜씨, 그리고 유창한 연설로 유명해졌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 헬렌의 부모들은 거칠고 사나웠던 딸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공손히 앉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식사를 마친 뒤 냅킨을 접을 정도로 길들여지자 앤 설리번이 이룬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앤은 헬렌에게 훨씬 더 큰 가능성과 능력이 있음을 알았으며, 그녀가 세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³³ 우리 역시 우리가 살면서 한 일들에 상당히

만족하고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 믿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인식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³⁴ 단어가 생명을 얻으면서 그녀의 영혼이 빛을 보고 자유로워졌을 때 헬렌 켈러가 느꼈던 그 기쁨처럼, 우리 모두는 신성한 잠재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황홀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³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시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이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그]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그]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³⁶ 겹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어떤 필멸의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³⁷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견디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 두 가지 모두를 가져다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겹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상징입니다.³⁸ 구주께서 계시던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먼저 올리브 위로 큰 돌을 굴려 올리브를 으깨고, 이렇게 으깨진 올리브를 성기게 짠 부드러운 바구니에 넣고 이 바구니들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면, 이 바구니들의 무게로 인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쌓아 놓은 바구니들 위에 큰 기둥이나 통나무를 올려 추가적으로 압력을 가해 더 많은 기름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해, 이 기둥의 한쪽 끝에 큰 돌을 매달아 압착 강도를 최대한 올립니다.³⁹ 이 올리브 기름이 처음 흘러나올 때는 마치 피처럼 붉은색입니다.

저는 그 운명의 밤에 구주께서 껌세마네로 들어가실 때를 묘사한 마태의 다음 기사를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⁴⁰

그런 뒤, 아마도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그분께서는 두 번째로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셨고, 마침내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 번째로 간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공의가 만족되도록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사랑은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⁴² 그분은 자상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⁴³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⁴⁴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⁴⁵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⁴⁶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⁴⁷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여러분께 자비롭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⁴⁸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요한1서 4:8.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속성은 아니다. 그분의 “성품, 완전함, 속성”(Lectures on Faith[1985], 38쪽)에는 또한 공의, 진리, 불변함이 포함된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Lectures on Faith, 41쪽 참조) 완전한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다른 특질과 속성들을 그분이 지니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실 것이다.

2.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4쪽.

3. 교리와 성약 138:3.

4. 요한1서 4:18; 모로나이서 8:16.

5. 엘마서 5:26.

6. 예레미야 31:3.

7. 요한복음 15:9~10.

8.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9. 니파이후서 31:11~21; 제3니파이 27:16~20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0:29~34 참조.

10. 엘마서 11:32~37 참조; 또한 엘마서 42:13, 15, 22~27 참조.

11. 힐라맨서 5:10~11 참조.

12. 엘마서 11:37; 또한 모세서 6:57 참조.

13. 힐라맨서 5:11.

14. 엘마서 34:15~16.

15. 마태복음 5:45; 또한 제3니파이 12:45 참조.

16. 마태복음 5:44~45; 또한 제3니파이 12:44~45 참조.

17.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16쪽, 또한,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또한 제3니파이 14:21) 참조.

우리는 또한 이렇게 가르친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0~21)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탐갈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잊고 있다.(교리와 성약 1:31) 그와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 확인하셨다.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2)

18. 제3니파이 27:22.

19. 제3니파이 27:27 참조; 또한 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20.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8쪽.

21. 히브리서 12:6; 또한 히브리서 12:5, 7~11; 요한복음 15:1~8 참조.

22. 요한복음 15:12 참조.

23. 교리와 성약 88:22.

24. 모사이야서 3:19.

25.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원문 강조.

26. “Helen Keller,” perkins.org/history/people/helen-keller.

27. “Helen Keller,” perkins.org/history/people/helen-keller.

28. 히브리서 4:15 참조.

29. See “Anne Sullivan,” perkins.org/history/people/anne-sullivan.

30. “Helen Keller,” perkins.org/history/people/helen-keller.

31.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93:28.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참조.

32. “Helen Keller,” perkins.org/history/people/helen-keller.

33. William Gibson, *The Miracle Worker* (motion picture, 1962) 참조.

34. 고린도전서 13:12.

35. 고린도전서 2:9.

36. 교리와 성약 19:18.

37. 모사이야서 3:7 참조.

38. 모사이야서 3:7.

39. Richard Neitzel Holzapel and others, *Jesus Christ and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2006), 18; Richard Neitzel Holzapel and others, *Jehovah and the World of the Old Testament* (2009), 281 참조.

40. 마태복음 26:37, 39.

41.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42. 제3니파이 9:13.

43. 제3니파이 9:14.

44. 요한1서 4:19 참조.

45. 요한복음 14:15 참조.

46. 요한복음 15:13 참조.

47. 요한복음 15:14 참조.

48. 요한복음 15:10 참조.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칠십인 정의회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분의 뜻과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선물을 하나 받으셨는데, 그 물건은 저와 동생 데이비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에게서 받은 금판을 축소한 모형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것은 글씨가 쓰여 있는 10쪽짜리 정도의 금속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산속 깊이 숨겨져 있던 금판을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배웠고 그에 대한 찬송가도 불렀습니다.¹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형 판에서 두 개의 작은 금속 밴드로 단단히 봉인된 부분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형 판이 작은 탁자 위에 자리 잡은 지 며칠도 안 되어, 우리는 그 호기심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형 판이 모로나이가 전해 준 실제 금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봉인된 부분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동생과 저는 버터 바르는 칼이나 낡은 숟가락, 그리고 생각나는 도구를 모두 동원하여 그 판의 봉인된 부분을 벌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밴드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벌려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장난기 어린 호기심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은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판을 엿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망과 좌절 속에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봉인된 부분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정작 그 금속판의 입을 수 있도록 잘 보이던 부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와, 모로나이 천사가 전해 준 실제 금판을 보았던 조셉 스미스와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간증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도와 지도력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우리의 발전과 배움을 위해 경전으로 남겨졌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²

또한, 과거의 여러 경륜의 시대와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은 성신을 항상 동반하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발전하고 배움을 연습니다.

제 동생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던 그 모형 판에 쓰인 글을 분명히 다 읽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백하고도 귀중한 진리는 무시한 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알아내겠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판을 캐고 엿보려는” 것과 같은 그릇된 소망은 우리의 발전과 배움을 더디게 하거나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캐느라고 니파이의 말대로 우리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진리, 즉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진리를 자칫 외면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 그의 비밀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일런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냄은 불가능하니라.”³

야곱이 한 말은, 우리가 “판을 캐고 엿보려” 하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억지로 밝히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밝혀집니다.⁴

야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이는 보라,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 오 그러하다면 어찌 능히 그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땅이나 그 위에 있는 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그런즉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⁵

하나님의 비밀이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나 니파이는 몸이 어렸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⁶ 주님께서도 니파이가 신앙을 행사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당신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⁷

니파이가 지식을 추구했던 사례를 보면 그 속에는 (1) 진실한 소망, (2) 겸손, (3) 기도, (4)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5) 신앙의 행사, (6) 부지런함, (7)

순종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판을 엿보려” 했던 것이나,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신의 권능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들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식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쉽게 알거나 얻을 수 없으면, 그것을 묵살하거나 불신합니다. 넘쳐 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출처가 불분명해도 당장 이용 가능한 자료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록한 다음 내용은 아마도 지금의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라, [그들은] 목이 뻗뻗한 백성이었던지라, 그들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쫓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으며,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 주셨음이라.”⁸



그에 반해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선교사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선교사들은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계명을 지킬 만큼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근면과 수고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⁹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투명해지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자료를 출판한 후에도 회원들은 때로 학습으로는 풀 수 없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 어떤 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¹⁰

고대 선지자들은 이 똑같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배움을 얻는 주님의 방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약전서의 잠언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¹¹

이사야는 주님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¹²

니파이 역시 이렇게 선언하며 그의 간증을 더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¹³

주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계획에는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들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야 합니다.”¹⁴

위대한 신앙을 지닌 니파이마저도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라는 천사의 질문에 자신이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¹⁵

엘마도 아들 힐라맨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리라.”¹⁶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만 니파이와 엘마가 그랬듯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기에, 저 또한 삼가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또 내게도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¹⁷

우리가 현명하시고 헌신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 그러하다면”, 영적인 발전과 배움을 우리 자신의 뜻과 기쁨보다는 “그분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⁸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분의 선지자이며,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주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이시며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금판”, *어린이 노래책*, 61쪽 참조.
2. 니파이후서 4:15~16.
3. 야곱서 4:8.
4. 니파이전서 10:19 참조.
5. 야곱서 4:8~14.
6. 니파이전서 2:16.
7. 니파이전서 2:19~20 참조.
8. 야곱서 4:14.
9. Dieter F. Uchtdorf, “The Lord’s Work” (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5, 2016), 6.
10. 델린 에이치 옥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17쪽.
11. 잠언 3:5.
12. 이사야 55:9.
13. 니파이후서 4:34.
14. 엘마서 32:21.
15. 니파이전서 11:16~17; 강조체 추가.
16. 엘마서 37:11.
17. 엘마서 30:41, 44.
18. 야곱서 4:9.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칠십인 정의회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포부를 품으십시오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숭고하게 견디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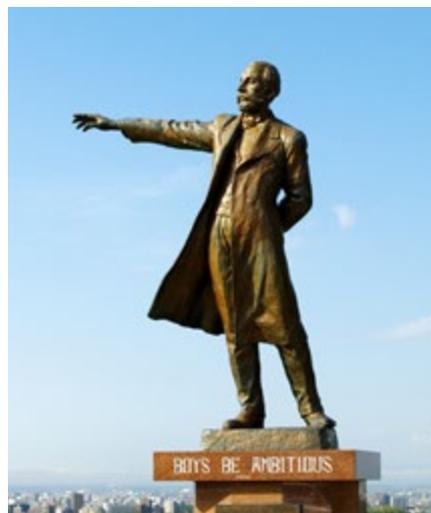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훌륭한 선교사들을 비롯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어서도 마음은 청춘이신 분들은 모두 제 말씀을 들어서도 좋습니다.

작년 8월 21일,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일본의 세 번째 성전인 아름다운 삿포로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삿포로 성전은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라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유타 주처럼, 홋카이도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척자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1876년, 명망 있는 교육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¹ 초청을 받아 홋카이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겨우 8개월을 거주했지만, 그의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인이 아닌 젊은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각인되었습니다. 클라크 박사가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전한 작별의 메시지는 그의 동상에 새겨져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²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어라.”³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으라’는 그의 권고는 오늘날 후기 성도들이 하루하루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업에 정진할 동기를 부여받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는



유명한 교육자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 그는 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큰 뜻을 품으라”고 촉구했다.

것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 것은 우리가 속한 와드와 지부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포부를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코완 장로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코완 장로는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부로 오고 나서 몇 주 후, 저는 그의 동반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완 장로가 자전거를 타던 중에 의족이 망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족을 잘 수리해 줄 곳으로 코완 장로를 데려갔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족은 수리되었고, 그는 다시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의족은 거듭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의료 고문은 코완 장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임무를 맡는 편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완 장로는 훌륭한 선교사였고 일본에 남아서 봉사하기를 굳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완 장로는 점차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완 장로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봉사하도록 조정하라는 조언을 재차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심사숙고했습니다. 코완 장로와 그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역시 코완 장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후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제 제안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이튿날 아침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제 조언을 따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접견하며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코완 장로님, 선교사 추천서를 보낼 때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선교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전거를 타야만 하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스테이크 회장님께 말씀하셨었나요?”

저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체육관에 가서 제 몸을 단련하여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접견을 마치기 전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마시타 회장님, 제가 왜 일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제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코완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압니다. 장로님은 저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와 함께 봉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알게 된 것은 제게 축복입니다.”

코완 장로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차로 다닐 수 있는 선교부로 다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코완 장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장로 여러분, 그리고 자매 선교사 여러분, 신앙을 발휘하고 집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포부를 품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문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었던 이들의 기사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엘마 이세는 어려서 교회와 회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겪었고, 훌륭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를 구했고, 함께 봉사하는 동반자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는 마주하는 시련들을 극복했습니다.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니라.”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⁴

제 둘째 아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무 살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싹텄습니다. 가족과 교회 회원들이 베푸는 사랑과 기도, 도움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연민과 은혜가 있었기에 아들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첫 삼 개월 동안은 매일 밤마다 화장실로 가서 울곤 했습니다. 코완 장로와 마찬가지로,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아들이 일 년 정도 봉사했을 때 우리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고대 선지자들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어려움도 정말 많지만, 더없이 행복해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에요. 어떤 것도 이 일과 견줄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들은 엘마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더니!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⁵

우리는 살면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다면 시련 속에서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속주는 비할 데 없는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며 그분의 훌륭한 모범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송고하게 견디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맺은 성약의 길에서 기쁨을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포부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걱정을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소망, 또는 포부를 갖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1826~1886)는 화학, 식물학, 동물학 교수였으며, 남북 전쟁 중에 대령으로 복무했다. 또한, 농업 교육 지도자이자 매사추세츠 농업 대학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William S. Clark,” wikipedia.com 참조)
2. 삿포로 히추지가오카 전망 언덕에 있는 동상.
3. William S. Clark, in AnnB. Irish, *Hokkaido: A History of Ethnic Transition and Development on Japan's Northern Island* (2009), 156.
4. 엘마서 36:3; 37:35, 37 참조.
5. 엘마서 36:20.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된 복음을 나눔

우리가 “회원 선교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1.

지상에서의 성역이 끝나 갈 때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9)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모든 기독교인은 만민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이 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오늘 오전 모임에서 말씀하셨듯이, 후기 성도는 누구보다 이 위대한 책임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축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식과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교리와 성약 112:1) 이것은 후기 성도가 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거운 특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영원한 진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채널이 있고, 회복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회복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스테이크나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근에 생긴 단위 조직부터 가장 오래된 곳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부터 종교를 점점 더 적대시키는 문화권이나 국가까지,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나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등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회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회원이 이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회복된 복음을 나누려면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업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개종과 활동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할 때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¹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일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토록 지니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피아노의 88개 건반 중 가끔 누르는 건반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결심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선교 사업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쉬지 않고 연주해야 하는 강렬한 선율의 주요 화음과도 같은 것입니다.”²

II.

어떤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든지 모든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소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순종적인 회원은 회복된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실한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려 할 때 구주의 영이 항상 그들 곁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각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감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는 경전에서 진정한 의도, 또는 마음의 뜻을 다함이라고 일컬은 것과 같은 굳은 다짐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감에 따라 행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회복된 복음의 또 다른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영감을 간구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앨마서 32:6)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과 가족에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권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복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었을 많은 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십시오.³ 우리가 신앙을 보일 때 찾아오는 이런 기회는 “강압이나 조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⁴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영원토록 중요한 사랑의 사업에서 인도와 영감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상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진정으로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III.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1.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⁵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회복된 교회의 추가된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 같은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온 결과를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영을 느끼게 되고, 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행복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거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⁶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평의회, 정원회, 상호부조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더 배워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해 더 배워 보라고 권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⁷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론경의 위대한 역할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한 다음에야 오는 것이지 그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3.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한 진실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도와주려고 노력하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돌보아 주거나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4. 복음을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은 친구나 동료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브라질 올림픽 때,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후기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청소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원 선교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구주의 회복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개심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¹¹

저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제3니파이 11:11 참조) 그분의 회복된 복음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 줍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과, 불멸에 이를 때까지 견딜 힘을 줍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쪽.
2. Quentin L. Cook, “How to Be a Member Missionary,” *New Era*, Feb. 2015, 48.
3.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4쪽.
4.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4쪽.
5. 클레이트 엠 크리스텐슨, *위대한 회원 선교사*(2013), 54쪽.
6. 크리스텐슨, *위대한 회원 선교사*, 44쪽 참조.
7. Gary C. Lawrence,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Seven Steps to Improve Our Image* (2008), 34-35 참조.
8. Ashley Kewish, “Cab Driver Hands Out Copies of Book of Mormon to Rio Visitors,” Aug. 8, 2016, ksl.com 참조.
9. 크리스텐슨, *위대한 회원 선교사*, 39쪽.
10. 개인 사진, 2016년 8월 21일.
11. 엠 러셀 벨라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9쪽.

성도 택시 기사가 차에 7개국어로 된 물문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승객 중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자신을 “택시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도로는 제 선교 임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⁸

회원 선교사로서 인상적인 경험을 쌓아 온 클레이트 엠 크리스텐슨 형제님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맺고 있는 친분 관계의 깊이와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될 가능성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⁹

5. 와드 감독단은 특별한 성찬식을 계획하여 회원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이런 모임이 흥미를 유발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계획될 것이라는 확신이 커져서, 모임에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덜 꺼릴 것입니다.
6.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기회도 많습니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한 신회원에게서 행복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자매님은 자신이 아팠을 때 오래된 학교 친구가 병문안 전화를 하면서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신을 표현하던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몇 달간 선교사들과 공부하고 나서 저는 침례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나아졌어요.”¹⁰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나아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7. 우리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묘사하면서 물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 주시매, …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제3니파이 26:14)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엄지 손가락]을 풀어 주시매 그들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의 대표자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지명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얼마 전에 한 독신 자매님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 자매님을 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몰리는 지하실이 물로 가득 차 5센티미터 정도 침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수관이 이웃집과 연결되어 있던 터라, 더러운 물이 온통 차 오른 것을 보자마자 이웃집에서 분명 빨래와 목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몰리는 친구에게 와서 도와 달라고 말했고, 그 둘은 곧 물을 퍼내며 바닥을 닦아 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인가 봐!”

몰리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가정 복음 교사는 확실히 아니야.”

몰리는 젖은 바지에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손에는 아주 멋진 고무장갑을 낀 채 맨발로 문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괴상한 차림새도 눈앞에 펼쳐진 뜻밖의 광경만큼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정 복음 교육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가정 복음 교육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연차 대회에서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 말이죠! 하지만 뽀뽀를 해 줘야 할지 아니면 대걸레를 줘야 할지 결정하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몰리, 죄송해요. 지금 바쁘신 것 같군요.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아요. 다음번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 버렸죠.”

지하실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몰리는 “분명 세 명의 니파이인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죠.”라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꼭 누르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야. 그런데 메시지를 나누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느꼈나 봐.’”¹

형제 여러분, 교회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차적인 자원”으로 묘사된 이 신권 의무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² 가정 복음 교육을 편성하고 재편성하는 데 들어간 종이만 해도 수많은 숲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심리학 단체도 대상자들에게 이것만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권 의무인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 “교회를 항상 돌아” 봐야 하는 주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성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³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일부는 교회의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현재 회원들이 약 188개의 국가와 영토에서 3만 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골목 교육”이라 불리던 프로그램으로 이웃끼리 방문 교육을 하던 교회 초창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형제 자매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욱이 교회의 여러 단위 조직에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는 신권 소유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가정 복음 교육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열여덟 가정에서 스무 가정 또는 그 이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집이 너무 멀 수도 있고, 교통수단 이용이 쉽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야근과 주말 근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대받지 않고 집을 방문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세계 여러 곳곳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각 가정을 매달 방문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에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청하면 형제님들이 마치 실패자처럼 느끼게 된다는 점을 깨달은 제일회장단은 2001년 12월에 교회 신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유용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권 소유자 수가 부족하거나 현지의 다른 어려움 때문에 매월 모든 가정에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일이 ...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중 몇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도자들은 각 회원을 돌보고 강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⁴

형제 여러분, 제가 속한 와드나 지부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 아픈 신권 동반자와 저는 (지침서의 정책인) 제일회장단의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완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라는 경전상의 지시를 따라,⁵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간과 방문 수를 고려하여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순위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도자, 새로 침례받은 개종자, 아픈 사람들, 외로운 이들, 저활동 회원, 아직 집에 아이들이 있는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집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을 활용하여 우리 명단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방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촉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에서 우리의 대상 가족들을 돌볼 것이며, 경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할 것입니다.⁶ 그에 더하여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며 문자를 보내고 또한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의 여러 다양한 형태 중 하나를 활용하여 인사말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전 구절이나 연차 대회 말씀 문구 또는 LDS.org에 있는 수많은 자료에서 사용 가능한 물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의 서한 내용처럼 우리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정 복음 교육을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호소합니다. 부디 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자녀들을 돌볼, 주님의 대표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세 율법과 같이 월말이 되었을 때 정신 없이 허겁지겁 서둘러 이미 대상 가족들이 읽은, 교회 잡지의 메시지를 적어서 전달하는 전통을 이제는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복음에 기초하여 회원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는 전통을 세워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것은 가정 복음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모두 보고하십시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보고는 청지기 직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축복했고 보살폈냐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특정 장소와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맡은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항상 돌아”보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⁷

작년 5월 30일에 제 친구 트로이 러셀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테저렛 인터스트리에 물건을 기부하기 위해 차고에서 작은 트럭을 천천히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뒷바퀴가 무언가를 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럭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차에서 내렸는데 도로에는 아홉 살 난 그의 소중한 아들 오스틴이 길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 신권 축복, 응급 구조 대원, 병원 직원들, 이 모두가 이번에는 도움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옉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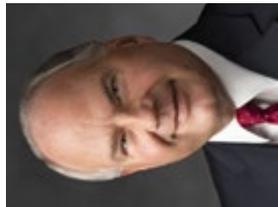
퀸틴 엠 쿝



디터 크리스토퍼슨



닐 앤드루 레스먼드



로널드 에이 레스반드



케리 이스티븐슨



데이비드 지 렌런드

철심인 회장단



엠 러셀 벨라드



도널드 엠 홀스트롬



리처드 게이 매인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올리베스 쇼어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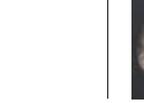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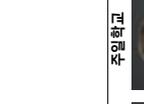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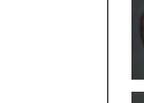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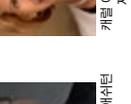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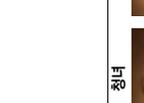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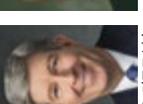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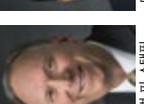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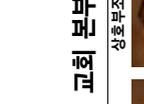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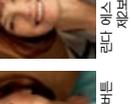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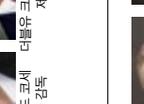


린 지 폴란스



케빈 더블유 쿝

핵심인 총관리 직원 (일파렛 순)

| | | | | | | | |
|---|---|---|---|---|--|---|---|
|  |  |  |  |  |  |  |  |
| 미준 안 아이유가터리스 | 병기 안 클라크앤유 엠 포스터 | 윤우 안 클라크앤유 엠 포스터 | 재환 안 카탈루냐 에이 고드윈 | 재환 안 제임스 비 마르타노 | 재환 안 제임스 비 마르타노 | 재환 안 제임스 비 마르타노 | 재환 안 제임스 비 마르타노 |
|  |  |  |  |  |  |  |  |
| 재환 안 호서 엠 알콘소 | 재환 안 제이 데브 코너서 | 재환 안 로버트 시 게이 | 재환 안 오민 이 마르타노 | 재환 안 마이클 티링우드 | 재환 안 조시 에프 제넬로즈 | 재환 안 레이스 디 포터 | 재환 안 가즈히코 아마사타 |
|  |  |  |  |  |  |  |  |
| 재환 안 이안 에드워드 | 재환 안 호안인 이 코스타 | 재환 안 크리스토퍼 플른 | 재환 안 피터 에프 웨트 | 재환 안 에번 에이 사무츠 | 재환 안 다블유 크레이그 조우트 | 재환 안 클라크앤유 디 지빅 | 재환 안 레이스 디 포터 |
|  |  |  |  |  |  |  |  |
| 재환 안 머빈 비 아놀드 | 재환 안 리그랜드 알 카터스 이세 | 재환 안 윌터 에프 곤잘레스 | 재환 안 후고 몬토야 | 재환 안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  |  |  |  |  |  |  |  |
| 재환 안 다블유 마크 배저 | 재환 안 마시모 데 페오 | 재환 안 시스코트 그로우 | 재환 안 미카스 비 내쉬 | 재환 안 조셉 다블유 시터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  |  |  |  |  |  |  |  |
| 재환 안 세인 엠 보웬 | 재환 안 제인 알 단칸 | 재환 안 제임스 케이 윌몰러 | 재환 안 브랜트 에이치 닐슨 | 재환 안 마이클 존 우 | 재환 안 마이클 존 우 | 재환 안 마이클 존 우 | 재환 안 마이클 존 우 |
|  |  |  |  |  |  |  |  |
| 재환 안 랜들 케이 베네트 | 재환 안 에드워드 듀브 | 재환 안 케빈 에스 해밀턴 | 재환 안 에스기프트 톨슨 | 재환 안 번 피 스펠링 | 재환 안 번 피 스펠링 | 재환 안 번 피 스펠링 | 재환 안 번 피 스펠링 |
|  |  |  |  |  |  |  |  |
| 재환 안 데이비드 에스 헵스터 | 재환 안 벤자민 데 호요스 | 재환 안 오 빈센트 할레크 | 재환 안 케이 브렛 나이트레스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  |  |  |  |  |  |  |  |
| 재환 안 크레이그 에이 기든 | 재환 안 레이 쟈이 에코 포트 | 재환 안 폴 브라이 존슨 | 재환 안 앨런 에프 패커 | 재환 안 후안 에이 우세다 | 재환 안 후안 에이 우세다 | 재환 안 후안 에이 우세다 | 재환 안 후안 에이 우세다 |
|  |  |  |  |  |  |  |  |
| 재환 안 헤더포드 티클레이튼 | 재환 안 앤리케 알 팔라벨라 | 재환 안 폴 지거 | 재환 안 앤소니 디 퍼킨스 | 재환 안 스콧 디 와이팅 | 재환 안 스콧 디 와이팅 | 재환 안 스콧 디 와이팅 | 재환 안 스콧 디 와이팅 |
|  |  |  |  |  |  |  |  |
| 재환 안 칼 비 쿡 | 재환 안 워트클레버가튼 | 재환 안 폴 비 마이머 | 재환 안 레이 와이 밀슨 | 재환 안 레이 와이 밀슨 | 재환 안 레이 와이 밀슨 | 재환 안 레이 와이 밀슨 | 재환 안 레이 와이 밀슨 |
|  |  |  |  |  |  |  |  |
| 재환 안 로버트 이 코브리지 | 재환 안 앤디 디볼 코우리쉬캐 | 재환 안 리마엘 이 파노 | 재환 안 치홍 (생) 웡 | 재환 안 치홍 (생) 웡 | 재환 안 치홍 (생) 웡 | 재환 안 치홍 (생) 웡 | 재환 안 치홍 (생) 웡 |

감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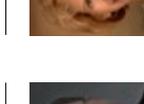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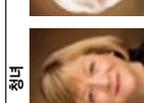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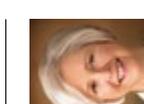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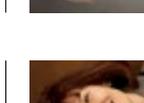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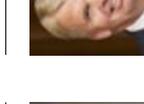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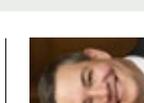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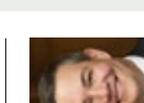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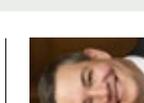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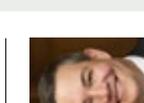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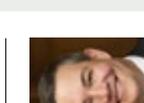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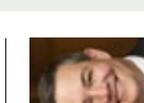


단 엠 데이비스
제보좌

제임스 호세
감독

제임스 호세
감독

교회 본부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인 지 두린트 제보좌 | 태드 알 볼리스터 회장 | 레이스 디 포터 회장 | 조시 에프 제넬로즈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클라크앤유 디 지빅 |
|  |  |  |  |  |  |  |  |  |  |  |  |  |  |  |  |  |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재환 안 스티븐 이 스노우 |



않았습니다. 오스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평안을 찾지 못하던 트로이는 슬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뇌의 시기에 세 가지의 구속의 힘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케 하는 영이었습니다. 그 영은 성신을 통해 전달되어 트로이를 위로해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으며, 사랑을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훌륭하고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 디드라였습니다. 그녀는 트로이를 안아 주고 사랑을 전하며 자신도 역시 아들을 잃은 엄마지만 결코 남편까지는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는 존 매닝으로, 그는 특급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존과 그의 후임 동반자가 어떤 일정에 따라 러셀 가족을 방문했는지, 혹은 그 집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난 봄에 매닝 형제님이 마치 작은 오스틴을 들어 올리듯 손을 내밀어 트로이 러셀을 그 집 앞에서 있었던 비극에서 끌어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을 가정 복음 교사, 파수꾼 또는 형제처럼 존은 신권으로 트로이 러셀을 보살피며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트로이, 오스틴은 네가 다시 일어설길 바랄 거야. 농구장에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매일 아침 5시 15분에 데리러 올게. 와서 너를 깨우기는 싫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 디드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너를 깨우길 원치는 않을 거야.”

트로이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오스틴을 데리고 갔던 곳인데, 농구장에 가면 그 기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존의 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거의 저 혼자 이야기했고 존은 듣기만 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라스베이거스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키만 188cm였지 느리고 농구도 못하며 점프슛도 엉망인 그 친구가 제 삶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까지 저를 사랑하고 경청해 주었기에 결국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⁸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가정 복음 교육이나 보살핌 또는 개인적인 성역에 대해 말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칭하든지 간에, 바로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리를 부지런히 돌보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증거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개인적인 대화, 2016년 6월.
2. *Melchizedek Priesthood Leadership Handbook* (1990), 5.
3. 교리와 성약 20:53.
4. First Presidency letter, Dec. 10, 2001: 이 권고는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7.4.3에 포함되어 있다.
5. 교리와 성약 20:47, 51.
6. 모로나이서 6:5.
7. 교리와 성약 20:53.
8. 개인적인 대화 및 이메일 교류, 2016년 4월.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몰몬경에는 힘이 있습니다

몰몬경이 지닌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19 89년 6월 14일, 아프리카의 가나 정부는 교회에 대한 일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그래서 선교사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지부 모임이나 선교사의 도움이 없던 이 시기 동안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회원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서로 보살피면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빛나게 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해가 풀렸고, 1990년 11월 30일, 암흑기가 끝나면서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¹ 그 후로 교회와 가나 정부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 암흑기를 경험했던 회원들은 그 힘들었던 시기에 도리어 축복이 찾아왔다고 주저 없이 말합니다. 목전의 역경을 헤쳐 나간 많은 사람의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 와중에 축복 하나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니콜라스 오포수헤네는 암흑기 동안 후기

성도 집회소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은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밤중에 그 건물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처음 집회소에 도착했을 때, 종기와 책, 가구 등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엉망인 곳에서 몰몬경이 한 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책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니콜라스는 더 이상 그 책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집어 들었고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밤새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처음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니파이전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다음 번에는 니파이후서를 다 읽었습니다. 니파이후서 25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오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²

니콜라스는 이 구절을 읽으며 영을 강하게 느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어 가면서, 이제껏 읽었던 경전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정확한 경전이라고 속삭이는 영의 음성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소문과는 달리, 후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흑기가 끝나고 선교사들이 가나로 돌아온 후, 니콜라스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니콜라스를 만났을 때, 그는 경찰서 서장이었으며, 교회에서는 가나 타말레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³

또 다른 가나 사람인 엘리버트 데이비스는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 집회소에 왔었는데, 그 친구는 회장단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버트는 옆에 있던 책을 읽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엘리버트는 그 책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몰몬경 한 권도 텀으로 받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와서 그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촛불을 켜고 새벽 3시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밤을 그렇게 새웠고, 그 책에서 읽은 내용과 받았던 느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버트는 현재 교회 회원입니다.

안젤로 스키폴라는 열 살 때 조국인 이탈리아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신부가 되어 자신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부를 더 할 기회를 찾다가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부할수록, 의문은 쌓여만 갔습니다. 읽은 내용과 자신의 느낌을 통해, 예수님과

초기 사도들이 가르친 참된 교리에서 전반적인 배도가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젤로는 여러 종교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교를 찾아보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던 두 명의 교회 회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끌린 그는 그들의 메시지를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안젤로는 물론경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벽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젤로가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던 진리를 물론경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영을 통해 그에게 주셨습니다. 감미로운 느낌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내용과 선교사에게서 배운 내용을 통해 전반적인 배도가 있었다는 자신의 결론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젤로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⁴ 제가 안젤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우리 교회에서 이탈리아 리미니 지부의 회장이었습니다.



물론경과 관련해 니콜라스와 앨리버트, 또 안젤로의 경험은 팔리 피 프렛의 이런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책을 집어 열심히 읽었다. ... 온종일 읽었다.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밤이 찾아와도, 자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자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읽으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분명하게 또 명백하게 깨닫고 알듯이,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알았다. 내 기쁨은 전처럼 가득했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희생과 고통을 갚고도 남을 만큼 아주 기뻐다.”⁵

물론경을 처음 펼치자마자,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책을 읽고 또 그에 대해 기도하면서 참됨에 대한 증거가 서서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학생이었던 십 대 때, 물론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읽었던 물론경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읽는 동안 어디선가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경을 펼칠 때마다 온기와 영이 느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자 그 느낌이 커졌습니다. 그 느낌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물론경을 펼칠 때마다, 영이 제 마음과 영혼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하지만 물론경에 대한 간증이 많은 연구와 기도 끝에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물론경이 참된지 알기 위해 탐구해 가며 물론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의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물론경이 참된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모로나이서의 권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⁶ 그러나 그는 약속된 영적인 대답을 즉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영이 물론경의 참됨에 대해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를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창문을 내리고는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 책은 참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그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오든, 또는 상당 기간에 걸쳐 오든, 우리가 그 책을 계속 읽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 책은 온 생애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험악하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을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⁷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아론 신권 소유자를 비롯해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분에게 권유드립니다. 몰몬경이 주는 힘을 발견해 보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책이 참된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⁸ 이런 과정 동안 여러분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낄 것입니다. 그 영은 몰몬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 간증은 여러분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⁹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큰 부름을” 준비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¹⁰ 사람들이 온갖 악의적인 표현과 비난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 할 때, 그 간증은 확실한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즉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바위와 같이 굳건한 신앙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몰몬경을 계속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간증을 거듭 확인해 주는 성신의 확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게 될 모든 부모님께 저는 몰몬경을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침 식사를 하며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용했던 책갈피입니다. 앞면에는 몰몬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벤슨 회장의 인용문이 있습니다.¹¹ 뒷면에는 제일회장단 보좌를 역임하신 매리온 지

롭니 회장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를 더 잘 따르며 순종할 것입니다. 더더욱 의로워질 것입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해져서, 그 결과로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¹²

제 아이들이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나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롬니 회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함께 몰몬경을 읽을 때 그 책의 힘과 축복이 가족 모두의 삶에 흘러들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지닌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몰몬경은 주님과 그분의 구속하는 사명에 대한 확고한 증거입니다.¹³ 몰몬경을 통해 우리는 속죄의 위엄과 권능을 이해하게 됩니다.¹⁴ 몰몬경은 그분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¹⁵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사건이 몰몬경에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여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¹⁶

형제 여러분, 몰몬경이 지닌 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영어나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읽든, 또는 책이나 전자 기기로 읽든 간에, 몰몬경의 장과 절에서 놀라운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영이 제 삶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물문경의 능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이 놀라운 경전이 지닌 힘을 우리 각자가 충분히 활용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You Can't Close My Heart": Ghanaian Saints and the Freeze," Jan. 6, 2016, history.lds.org 참조.
2. 니파이후서 25:26.
3. 니콜라스 오푸수헤네가 보낸 이메일, 2015년 10월 27일.
4. 안젤로 스키폴라, "회복을 찾아서", 성도의 벗, 1993년 6월호, 16~20쪽; 예지오 카라미아가 보낸 이메일, 2016년 9월16일.
5.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37.
6. 모로나이서 10:4~5 참조.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2014), 141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2쪽;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쪽 참조; *A Prophet's Voice: Messages from Thomas S. Monson* (2012), 490-94.
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을 가진 모든 형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아론 신권을 가졌든 멜기세덱 신권을 가졌든 간에,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유혹을 피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쪽)
10. 엘마서 28:14.
11.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문경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여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127쪽)
12. 매리온 지 톰니, "물문경",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67쪽.
13. 예를 들어, 물문경 표제지; 니파이전서 11장; 니파이후서 25장; 모사이야서 16장; 18장; 엘마서 5장; 12장; 힐라맨서 5장; 제3니파이 9장; 물문서 7장 참조.
14.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2장; 9장; 모사이야서 3장; 엘마서 7장; 34장 참조.
15.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31장; 제3니파이 11장; 27장 참조.
16. 제3니파이 11~28장 참조.

엘마와 앰올레크에게서 배우십시오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분이 있다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엘마와 앰올레크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엘마 이세

경전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인물 중에는 엘마 이세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이었으나 한때 길을 잃어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는 부친에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며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능변에 설득력까지 있었으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¹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나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였을 때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엘마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웬일인지 희미한 기억이 아른거리며 마음속 어둠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부친이 가르쳐 준 영원한 진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엘마는 오래전에 그런 개념을 거부했으나, 이제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겸손하고 열렬하게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²

그런 경험을 한 엘마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입힌 손해를 바로잡는 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회개와 용서, 지속적인 충실함을 보여 주는 강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엘마는 마침내 부친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니파이인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엘마의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의 시대였다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은 엘마에 관한 사진과 영상과 이야기로 넘쳐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제이라헤블라*라는 주간지 표지에 정기적으로 등장하고, 논설 및 텔레비전 특집 방송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엘마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마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다툼으로 자코한 것을 보자 공직에서 물러나 니파이인 사이에서 회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직에 …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³

처음에 엘마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마침내 그는 앰몬아이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마가 더 이상 정치적 지도자가 아님을 잘 알았던 그 성의 백성은 그가 지닌 신권 권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마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상심한 엘마는 앰몬아이하 성에서 등을 돌리고 나왔습니다.⁴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교회에 적대적인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어쩌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마는 망설이지 않고 “속히 돌아”갔습니다.⁵

엘마는 여러 날을 금식하던 중에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낯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낮은 종에게 먹을 것을 줌 주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⁶

앰올레크

그 사람의 이름은 앰올레크였습니다.

앰올레크는 부유했으며 앰몬아이하에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 태생이었으나 신앙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앰올레크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만]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해 왔었노라.”⁷

그러나 하나님은 앰올레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앰올레크는 엘마를 만나자 그 주님의 종을 집 안으로 맞이했으며, 엘마는 여러 날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⁸ 그 시간 동안 앰올레크는 엘마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었으며,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앰올레크는 그 메시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엘마가 다시 앰몬아이하 백성 사이로 가르치러 나갈 때, 그의 곁에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그 백성의 한 사람인 앰올레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경전을 통틀어 가장 쓰고도 달콤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엘마서 8~1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첫째: “나는 엘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둘째: “나는 어떻게 앰올레크와 같은가?”

나는 엘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엘마는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지닌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마는 앰몬아이하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엘마는 앰올레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앰올레크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망설이는데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위대한 구원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기를 너무나 자주 주저합니다.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혼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물러나 있거라.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와서 나를 따르라”였습니다.⁹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권유하며, 가르치신 다음, 그들을 신뢰하시며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본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¹⁰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종들을 강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직책에서 봉사하든, 여러분이 집사 정원회 회장이든 스테이크 회장이든, 아니면 지역 회장이든 간에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분의 앰블레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점잖은 사람이거나 심지어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흔쾌히 봉사하려 하지 않거나 봉사할 능력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앰블레크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 남자 혹은 여자, 미숙한 사람, 지쳐 있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활동적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주님께는 당신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심으로는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의 귀환을 위해 지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낫을 휘두르며 힘을 다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강화하기를 원하지만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부탁받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와드나 지부, 선교부와 스테이크에서 행동 개시를 하도록 요청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천사가 앰블레크에게 전했던, 주님의 축복이 그들과 그들의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 회원에게 해 주십시오.¹¹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숨겨져 있었을, 주님의 용감한 종을 발견하고 놀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앰블레크와 같은가?

우리 중 일부는 앰블레크를 찾아야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나는 어떻게 앰블레크와 같은가?” 하는 질문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여러 해에 걸쳐 결실이 시들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간증의 불꽃이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환멸을 느꼈거나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일부 에베소인처럼 “처음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숭고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¹²

어쩌면 여러분은 앰블레크처럼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앰블레크에게서 보신 것을 여러분에게서도 보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용감한 종이 되어 중요한 일을

하며 간증을 나눌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고양하도록 성스러운 잠재력이 있는 거룩한 신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음으로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한 회원의 여정

저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들겠는가?” 하고 자문해 본 한 형제의 여정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멋진 형제를 데이비드라 부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약 30년 전에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법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던 시기에 그는 교회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더욱 동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회 기록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데이비드는 반항기에 있던 앰블레크처럼 교회 회원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대화에 참여하며 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런 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논쟁하던 한 회원들



제이콥이라 부르겠습니다. 제이콥은 데이비드에게 늘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했으나 교회를 옹호하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데이비드와 제이콥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쌓아 갔습니다. 데이비드가 몰랐던 사실은 제이콥이 데이비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 그 기도를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이콥은 주님의 성전에 있는 기도 명부에도 데이비드의 이름을 올려놓고 친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데이비드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했던 영적 체험을 즐겁게 떠올리기 시작했으며, 교회 회원이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을 기억해 냈습니다.

엘마처럼 데이비드는 한때 받아들였던 복음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올레크처럼 주님이 자신에게 손을 뻗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데이비드는 명성 있는 법률사무소의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자로서 평판을 얻었기에, 교회 재가입을 요청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목자의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성구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¹³ 데이비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후기 성도가 되고 싶지만, 응답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영의 속삭임과 친구들의 영감 어린 대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의심은 하나둘씩 신앙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교회에 대한 간증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데이비드는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존심도 극복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침례의 물에 들어갔으며,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축복이 회복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쁘게도, 지난 여름에 데이비드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에 온전히 참석하며,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탈바꿈에 대해 말하고, 자신이 폐를 끼친 부분을 바로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 간증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에 있는 엠올레크를 찾고, 발견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의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엠올레크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속삭이며 여러분의 처음 사랑인 당신께 돌아와,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하고, 신권을 합당하게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료 성도들과 나란히 봉사하라고 촉구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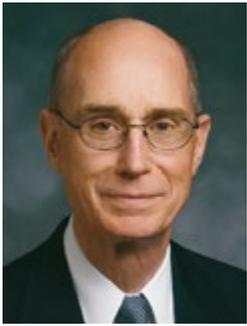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며,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하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제자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엘마와 엠올레크에게서 배우며,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구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¹⁴

저의 이 모든 간증과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께 남기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27:8~10 참조.
2. 엘마서 36:6~20 참조.
3. 엘마서 4:20.
4. 엘마서 8:24 참조.
5. 엘마서 8:18.
6. 엘마서 8:19.
7. 엘마서 10:2~6 참조.
8. 엘마서 8:27 참조.
9. 누가복음 18:22.
10.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5(경전 안내서에 나눔)
11. 엘마서 10:7 참조.
12. 요한계시록 2:4 참조.
13. 야고보서 1:5.
14. 엘마서 10:7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어다

저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고향하여 영예로운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우리의 부름을 잘 수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 나님의 신권을 지닌 분들과
이 모임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남성과 소년들로 이루어진 이 조직의 헌신과
신앙 및 이타적 봉사는 현대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된 모든
연령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권의 의무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신권 직분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교회 회장일
때, 신권 직분과 관련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 교사에 성임되었습니다.
즉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저는 그 선교 사업 기간 내내 교사로서
봉사했습니다. ... 그 대회에서 저는 제사에
성임되었습니다. ... 저는 제사에 성임된 후,
남부 지방에 있는 선교부로 파송되었습니다.
1834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게는
동반자가 있었는데, 저희는 전대와 배낭
없이 출발했습니다. 홀로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제가 제사에 불과했기에
교회에서 확인 의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 저는
장로에 성임되기 전에 얼마 동안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

[이제] 제가 십이사도의 일원이 된 지도
약 5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원회 및
다른 정원회와 더불어 어언 60년을 여행해
왔으나, 여기 계신 회중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사
직분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특히 제사로서
포도원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에도,

사도였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지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
하는 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¹

다름이 없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능성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아론
신권이라는 주님의 표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² 부속이란 말은 두 신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신권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가능한
힘과 축복이 되는 데 중요합니다. 신권은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기
때문입니다.³

연결은 단순합니다. 아론 신권은 청남이
더 성스러운 신뢰를 얻도록 준비시킵니다.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니라.”⁴

이 신권 열쇠는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 곧 교회 회장이자 주님의 교회 감리
대제사만이 온전히 행사합니다. 그런 다음,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모든 남자는 교회
회장의 위임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권세와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능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가족과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 및 그분의 영원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론 신권 소유자가 이 영화로운 멜기세덱 신권에 대한 신앙과 권능,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장로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온전한 신권 봉사를 하며 제 몫을 다하려면, 장로들은 필수적으로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사, 교사, 제사 시절에 더 높은 신권을 지닌 이들이 신권 여정에 나선 여러분을 고양하고 격려하고자 다가왔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누구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감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되살리고, 한때 받았던 것과 같은 도움을 되도록 많은 분께 베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권 권능 안에서 지닌 잠재력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저를 대해 주신 감독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제사였을 때, 그분은 어느 일요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감독님은 와드의 어떤 회원을 방문하는 데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그 일을 저와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단에는 훌륭한 보좌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잃은 가난하고 굶주린 부인을 방문했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감독님을 도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산을 세워 활용하도록 권유하며, 그분이 스스로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위치에 이를 수 있다고 약속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 소녀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집을 나서며 감독님은 넉넉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들은 우리가 온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다.”

그다음 방문한 집에서 저는 한 저활동 회원에게 와드 회원들이 그 형제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주님께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감독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감독님은 모범으로 제 잠재력을 일깨우고 저를 복돋워 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제가 미숙한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때 다가와 저를 들어 올려 주셨기에 저는 아직도 그 감독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후에 그분이 저를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책임이 더 막중한 미래의 신권 행로를 걷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선친께서도 제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노련하고 지혜로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언젠가 한 사도님이 선친께 지구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잘못된 글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친께서는 그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구의 나이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어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리라는 점을 아셨기에, 조심스레 그것을 작성하셨습니다.

선친께서 그 글을 제게 건네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할, 너에게는 내가 이것을 사도님들과 선지자에게 보내도 괜찮을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단다.” 저는 그 종이에 담긴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나 제가 보지 못하는 영적 지혜를 제 안에서 본, 한 훌륭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느꼈던 감사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제가 사도로 성임된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 교리에 관해 쓴 어떤 글을 읽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녁 내내 읽고 계시던 책을 한 권 건네시더니,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군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장로님께서도 할 일이 있으셔야 하겠지요?” 그런 다음, 제 선친께서 여러 해 전에 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은 장로님인 것 같군요. 장로님은 이 책을 출판하는 게 옳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이 시야를 높여 주고 자신감을 주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방식이 어느 날 밤 교회가 후원하는 연설 대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17세 때, 많은 청중 앞에서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주제를 받지 못했기에 복음에 관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며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말씀 직후에 느꼈던 실패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연사이자 마지막 연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튜 카울리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전체 회원에게서 사랑을 받는 대단한 연설가이셨습니다. 연단 옆 좌석에서 그분을 올려다보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은 힘찬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연설을 들으며

마치 큰 대회장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실패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를 제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비록 갈 길은 멀었지만, 저는 그분 덕분에 제가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으로 인해,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말씀할 때면 여전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울러 카울리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 덕분에, 저는 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좀처럼 실망하는 법이 없고 자주 감탄하며, 카울리 장로님이 그러셨듯이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형제들이 신권 안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많으나 그들이 신권 봉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도록 신앙과 자신감을 키워 주는 일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과 자신감은 가장 은사가 많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고취해 주었을지라도 한 차례의 경험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권능에 의지하는 능력은 신권 면에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전하는 수많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는 또한 성신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훈계가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변함 없이 신권에 합당하고자 할 때** 주어지며, 그들이 하게 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인 베냐민 왕의 말씀이 참됨을 모범과 간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⁵ 그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권입니다. 베냐민 왕은 주님의 격려와 교정을 받도록 순수함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이,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⁶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의로움의 원수가 극심한 바람같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우리에게 이들은 힐라맨의 아들임을 자칭한 청년 병사처럼 보입니다. 베냐민 왕이 촉구했듯이, 이들이 자신을 지킨다면, 그 젊은 병사들처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힐라맨의 아들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었기에,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⁷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닌 신앙의 힘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 이런 크나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스스로의 개종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어머니들의 그러한 보살핌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⁸

저는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그는 약한 자를 데리고 갈지니, 그리하여 그로 지극히 온유한 가운데 교화되며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이다.

그러므로 소신권에 성임된 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너희 앞서 보내어 약속을 맺게 하며, 길을 예비하게 하며, 너희가 몸소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라.

보라, 이것이 옛날에 나의 사도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세우던 방식이니라.”⁹

신권 지도자요 아론 신권 소유자의 아버지인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름을 받아들여 그 일을 자신 있게 하는 청남들이 충실한 장로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양하고 용기를 북돋운 많은 이들이 충실함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합당하게 결혼하며, 이로써 다른 많은 사람을 고양하고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이나 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나은 교재, 또는 더 좋은 소셜 미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름 외에 다른 어떤 부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권능과 권세, 그리고 방향을 제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 교리와 성약 84편에 나오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주의 깊게 연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청남이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개종을 일으키는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월포드 우드럽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고양하여 영예로운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우리의 부름을 잘 수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복돋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고양하는 법을 보여 주신 훌륭한 분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이 시기에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평생 봉사하시는 동안 다른 이들을 고양하고자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복돋우고 다른 이들을 고양하는 법을 보여 주신 방법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자 그분의 왕국입니다. 이 신권은 주님의 신권입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이 사실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Wilford Woodruff, "The Rights of the Priesthood," *Deseret Weekly*, Mar. 17, 1894, 381.
2. 교리와 성약 84:30; 107:14 참조.
3. 교리와 성약 84:17.
4. 교리와 성약 107:18~19.
5. 앨마서 13장 6~9절은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6. 모사이아서 4:29~30.
7. 앨마서 56:47 참조.
8. 누가복음 22:32 참조.
9. 교리와 성약 84:106~108.

원리와 약속

신성하게 제정된 계획인 지혜의 말씀에 명시된 원리를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형 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1833년에 주님께서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계획을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는데, 그러한 약속에는 건강과 강한

체력이 포함됩니다.¹

최근에 저는 이러한 약속이 극적으로 나타난 실화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던 존 에이 라슨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함선 캄브리아호에서 미국 연안 경비대로 복무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폭격기와 가미카제 전투기 중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시 탈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함선 캄브리아호는 이미 출항했기에 존과 세 명의 동료는 이제 막 출항하는 다른 배에 올라탈 수 있기를 바라며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보병상륙정에 올라타게 되었고 속도를 내어 만을 떠나는 그 마지막 배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떠나고 있던 배의 선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항구를 벗어나려고 갑판에서 분주히 움직였기에 그 네 명의 병사들에게는 겨우 밧줄을 던져 줄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희망컨대 그 밧줄을 타고 갑판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등에 무거운 무선 장비를 매고 있던 존은 12미터 길이의 밧줄에 의지해 광활한 바다로 향하는 배의 측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번갈아 가며 줄을 당겨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밧줄을 놓치면 분명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올랐을 때 팔은 고통으로 육신거렸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더는 밧줄을 잡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던 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지혜의 말씀을 지켰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으므로 약속된 축복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존은 이후에 말했습니다. 존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밧줄 위를 날아오르듯 했습니다. 갑판에 올랐을 때는 숨도 차지 않았으며 전혀 힘을 쓰지 않은 듯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약속되었듯이 향상된 건강과 체력이라는 축복이 존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존은 도와 달라는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시는 물론 남은 여생 동안 감사를 드렸습니다.²

형제 여러분, 신성하게 제정된 계획인 지혜의 말씀에 명시된 원리를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증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9:18~20 참조.
2. John A. Larsen, in Robert C. Freeman and Dennis A. Wright, comps., *Saints at War: Experiences of Latter-day Saints in World War II* (2001), 350-51 참조; 허락을 받아 사용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

이 곳 컨퍼런스 센터 또는 전 세계에 모이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눌 이 기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2년 전 1964년 7월 저는 뉴욕 시에 임무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그곳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는 박람회의 물문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행복의 추구라는 교회 영화 상영 바로 전에 도착했는데, 그 영화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 주는 영화로 그 이후로 교회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35세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남성 옆에 앉았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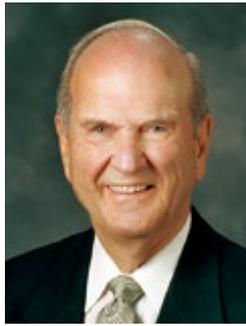
우리는 내레이터의 음성에 귀 기울였는데, 그 내레이터는 보편적이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이 삶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가? 모두 귀를 쫓긋이 세우고 답변에 집중했고, 모든 시선은 제시되는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이 지상에서의 목적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 삶을 떠나, 먼저 영의 세계에 가 있던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동스럽게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름답게 묘사된 그 영화가 끝나자 관중들은 조용히 줄을 이루어 빠져 나갔는데, 많은 이들이 분명 영화의 메시지에 감명받은 듯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그 젊은 방문객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물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뉴욕 세계 박람회에 있었던 그 젊은 친구처럼 진리를 알아보고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우리는 그분의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¹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제 모든 영혼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기쁨과 영적 생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생존의 열쇠가 되는 원리를 논하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비극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늘어감에 따라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후기에 살고 있으므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바울, 니파이, 몰몬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는 위험한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¹ 우리 시대에 온 세상이 동요할 것이요,²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 무정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³ 많은 사람이 대적의 일을 떠받치는 사탄의 종이 되리라고 말합니다.⁴ 실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⁵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비열한 테러범들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며, 기업에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부패가 더욱 만연해질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까요? 이 후기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삶의 혹독한 시련을 이기려면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까요?

선지자 리하이는 영적 생존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하이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가르치다가 박해를 받았으며, 재산을 뒤로한 채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막에서 생활하며 미지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연명했습니다. 또 두 아들인 레이먼과 레뮤엘이 주님의 가르침에 맞서 모반을 일으키고 형제인 니파이와 샘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리하이는 반대, 걱정, 비판, 고통, 실망, 그리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계시하신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⁶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멸의 삶의 속성과 목적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낱말 중에서 그는 기쁨이란 말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 온갖 종류의 시험과 난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쁨을 갖기 위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쁨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부 상호부조회 제2대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흥미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1838년 혹독한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미주리 주는 악명 높은 곤질령을 발표했고,⁷ 그녀를 비롯한 성도들은 즉시 미주리 주를 떠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의 가족은 난민이 된 성도들이 사용했던 작은 통나무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앞선 이들이 통나무 틈새를 메꾼 재료를 대부분 굶어내어 땀감으로 사용했던지라, 통나무 사이에는 고양이



드나들 만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음식은 딱딱하게 얼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6.1 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통나무 집 안에는 80명가량의 성도들이 웅송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몸을 덥히려고 애쓰며 앉거나 선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일단의 남자들이 타오르는 불가에 모여 일부는 찬송가를 부르고, 일부는 언 감자를 구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엘리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걸로만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지사에게 추방당한 무리가 아니라 유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쯤으로 보였을 것이다.”

살을 에도록 추운 그 고달픈 저녁에 관한 엘리자의 이야기는 놀랄 만큼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매우 유쾌한 밤이었다. 오직 성도들만이 어떤 상황에 있던 행복할 수 있다.”⁸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해 동안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성탄 절기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하며 기쁨을 느낍니다.⁹ 또 우리는 그 기쁨을 일 년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 회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은¹⁰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서입니다.¹¹

구주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듯¹² 인간의 논리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심오하며 폭넓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불치병을 앓거나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고난은 잠시뿐”이며¹³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며¹⁴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얻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¹⁵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입니다.¹⁶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욱 실제적인 존재로 느끼고 그분께 기쁨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쁨은 커집니다.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¹⁷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구주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는 기쁨, 회개할 모든 이의 죄값을 치르는 기쁨, 우리가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분향으로 돌아가 하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는 기쁨이 분명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할 기쁨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렵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한

아버지는 중국에는 깨끗해져서 주님께 합당해지는 기쁨, 즉 죄와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감독에게 외설물로 인한 문제와 거기서 이어진 외도를 모두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독의 권고를 철저히 따르며 다시 아내의 신뢰를 얻고자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대중적이고 자극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조롱을 견뎌 내기 위해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아내를 수시로 비하하고 자녀에게 화를 참지 못하던 한 남성은 변하지 않는 동반자인 성신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너무나 자주 굴복하고 말았던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고,¹⁸ 필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 친한 동료 한 명은 최근에 저에게 과거 이십 년간의 힘겨웠던 시련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네. 나의 짐은 참으로 우리 구속주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 되었다네.”¹⁹

우리 “앞에 있는” 기쁨에 집중할 때,²⁰ 우리는 어떤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약한 부분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²¹ 어떤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²² 어떤 낙담이, 곧 어떤 비극이 유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²³ 어떤 쉽지 않은 봉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²⁴

부지런히 구주께 집중하고,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였던 코리호어를 기억하십니까? 코리호어는 구주에 관해 거짓을 퍼트리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대제사 앞에 끌려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돌아다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쁨함을 훼방하려 하느냐?”²⁵

그리스도나 그분의 교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과 여러 블로그에 넘쳐 나는 인간의 철학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철학은 코리호어가 한 일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²⁶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의 공식을 따른다면,²⁷ 우리는 절대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다양한 정서와 감각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기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²⁸ 기쁨은 충실한 이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²⁹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 데서 오는 은사입니다.³⁰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자 선택하고³¹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역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³² 배우자를 보살피고 자녀들을 인도할 때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해의 왕국의 율법대로 생활하고, 날마다 성약을 지키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기쁨은 우리 것이 됩니다.

시편의 저자가 쓴 다음 말씀을 새겨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³³ 이런 원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³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1~5 참조.
2. 교리와 성약 45:26; 88:91 참조.
3. 디모데후서 3:2~4.
4. 교리와 성약 10:5 참조.
5. 에베소서 6:12.
6. 니파이후서 2:25.
7. 1838년 10월 27일에 린번 더블유 보그스 미주리 주지사가 물론 근절령을 발표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49쪽 참조)
8. Eliza R. Snow, Edward W.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1877), 145-46 참조.
9.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30장.
10.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등으로 주님의 명을 행한다.(마태복음 28:19; 마가복음 16:15; 물몬서 9:22; 교리와 성약 68:8; 84:62; 112:28 참조) 예수께서는 중보 기도에서 당신과 제자들이 누리게 기쁨의 관계를 밝히셨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3; 강조체 추가)
11. 엘마서 13:22 참조.
12. 빌립보서 4:7.
13. 교리와 성약 121:7.
14. 니파이후서 2:2 참조.
15. 히브리서 12:2.
16. 교리와 성약 6:36.
17. 히브리서 12:2.
18. 모사이야서 3:19 참조. 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적이기도 하다.

19. 엘마서 31:38 참조.
20. 히브리서 12:2.
21. 이더서 12:27 참조.
22. 히브리서 12:6 참조.
23. 교리와 성약 122:7 참조.
24. 마태복음 19:26; 마가복음 10:27 참조.
25. 엘마서 30:22.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쁨과 환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코리호어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그와 다른 선택은 무엇이든 궁극적인 멸망으로 이어진다.
26. 근거 없는 말을 뜻하는 중상모략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평판을 손상하려는 의도로 전하는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로 정의된다. 중상모략은 코리호어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중상모략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 나아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44쪽)
27. 세상은 소비가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도 기쁘지 않다면, 더 많이 소비하라고 한다. 또한, 세상은 거듭 죄를 지음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해도 기쁘지 않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한다. 세상은 모든 향락의 무지개 끝에는 기쁨의 향아리가 있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8. 이 세상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러하다.
29. “세상의 짐자기를 견딘 의로운 성도들은 …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니파이후서 9:18)
30.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27:30; 엘마서 27:16~18 참조.
31. 니파이전서 17:40 참조.
32. 모사이야서 4:2~3 참조.
33. 시편 16:8, 11.
34. 이사야 35:10; 니파이후서 8:3 참조.



피터 에프 웹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찬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스러운 성찬 의식에서 그 영향과 효력을
배가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찬 모임에 관한 제 오랜 기억 중 하나는 호주 워닝볼에 있던 저희 집에서 가졌던 모임입니다. 저희 지부에는 10~15명 정도가 참석했고, 세 명의 신권 소유자 중 한 분이셨던 제 아버지께서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축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겸손하고 주의 깊게 성찬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실 때 들었던 느낌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을 느끼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감정을 추스르느라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였던 저는 그 기도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찬을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성신이 주는 고요하면서도 확신에 찬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제3니파이 18:1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스러운 성찬 의식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영향과 효력을 배가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성찬식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성찬을 취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과 준비를 깊이 생각해 보기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생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시련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지] …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실수와 결점을 회개하며, 이 계속되는 여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로이 할 기회가 되는 성찬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2. 일찍 도착하십시오

모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전주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게 되는 경험들은 훨씬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경건하게 연주되는 전주 음악은 영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것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¹ 또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주 음악이 연주되는] 이 시간은 대화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도자와 회원들이 성찬식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시간입니다.”²

3. 성찬 찬송을 부르고 그 가사를 통해 배우십시오

성찬 찬송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게 되는 경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드높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그 안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 성찬 찬송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사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 피 흘려”³, “기억하여 우리 마음과 손이 청결하고 깨끗하도록”⁴,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⁵

상징물을 취할 준비를 하며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는 성약을 지키려는 우리 결심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이 충만하오니, 당신이 택한 길을 걷겠나이다.”⁶

4. 성찬 기도에 영적으로

참여하십시오(모로나이서 4~5장 참조)

익숙한 성찬 기도문이라고 흘러들어가서 아니라, 우리의 다짐과 성스러운 기도에 담긴 연관된 축복을 생각하며 그 기도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빵과 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축복되고 성결하게 됩니다. 빵과 물은 구주의 희생과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떡을 취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물을 마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면 구속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

자발적으로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 기도는 설명해 줍니다.

그 기도에서 성약은 “저희가 기꺼이”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모로나아서 4:3) 이 문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잠재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봉사하고 참여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약점을 고치려 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타인에게 다가가 그들을 축복합니까? 우리는 기꺼이 구주를 신뢰합니까?

약속이 선언되고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기꺼이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 그분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
-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숭고한 권유와 약속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모로나아서 4:3)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22~23)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찬 상징물이 전달되는 동안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전달하는 경건한 순간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빵이 전달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서 “사망을 짊어지[셨으며],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하신 것이었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앨마서 7:12)

또한,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는 부활이라는 영화로운 축복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앨마서 11:44)

물이 전달될 때에는 구주가 남기신 간절한 당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 내가 그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8)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음을 기억합니다.(앨마서 7:12)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게 되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 성찬식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하여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찬식이 시작될 때 경건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계시를 얻기 위해 나는 어떻게 더 공헌할 수 있는가?
- 성찬 찬송은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가?
- 성찬 기도문을 경청하면서 무엇을 듣고 느꼈는가?
- 성찬이 전달될 때 무엇에 대해 생각했는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 사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아, 죄 사람을 항상 간직할 수 있습니다.”⁷

우리가 성찬 의식을 위해 더욱 잘 준비하고 그 의식에 영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 마련된 수많은 축복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61쪽.
2. 러셀 엠 넬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3쪽.
3. “나사렛 예수는 구주며 왕,” *찬송가*, 119장.
4. “While of These Emblems We Partake,” *Hymns*, no. 173.
5.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6. “As Now We Take the Sacrament,” *Hymns*, no. 169.
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죄 사람을 항상 간직하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1쪽.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위대한 구속의 계획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는 진정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 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본부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회개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그 죄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자취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죄의 희생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죄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날 패커 회장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분에게 일어난 그런 일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간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수년 전에 성적인 죄를 범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아내와 신권 지도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오랫동안 너무나 수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픈 맘도 있었지만, 정작 그가 하게 된 생각은, 아내와 아이들을 슬픔과 수치심, 혹은 자신의 고백으로 빚어질 시련 속에 몰아넣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종종 사탄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알려져서 일어나는 피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 이타적 행동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 신권 열쇠로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감독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타적이고도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구속의 계획입니다.

결국 그는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충실한 아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그것은 전에 없던 아주 힘든 경험이었지만,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가 느낀 안도감과 평안,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들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상관없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내와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도 조치와 부름 해임이 있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상심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에 휩싸일 것이라는 점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각한 범법은 때로 이혼에 이르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남편을 포용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남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한 구주의 치유 권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부부와 세 자녀는 굳건하고 신앙심이 두텁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훌륭하고 사랑 넘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닌 간증의 깊이, 또한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은 그분의 삶에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앰블레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너희가 나아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 너희가
회개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¹

선교부를 감리하는 남편과 함께 봉사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과 함께 꽤
많은 선교사를 데리러 공항으로 갔는데,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우며, 심란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세심하게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 청년은 뒤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그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과 회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매우 애석하긴 했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낸 그를
진심으로 살뜰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연락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훌륭한 청년은 훌륭한 부모님과
뛰어난 신권 지도자들을 둔 데다 도움과
사랑이 넘치는 와드에 다니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구주가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일 년간
혹독히 노력한 끝에, 그는 우리 선교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데리러 공항에 갔을 때, 우리가 느꼈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성신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고, 충실하게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교사가 되었으며 이후, 남편과 저는 그의
성전 인봉에 참석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 사업 전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면 분명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선교
사업 동안 몇 배로 더 열심히 하다가 선교
사업이 끝나기 직전에 선교 회장님께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획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언젠가 한 남자의 침례 접전을 하러
가는 남편과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접전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남자를 가르친 자매 선교사들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전이 끝나자,
남편은 선교사들에게 그 남자가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심각한 죄들로 침례를
받을 수 없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구속주와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성품과 소망이 바뀌며, 한때 죄에
끌리던 마음은 이제 점점 그런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

… 회개할 때 치르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²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물몬경에 나오는
이노스가 생각합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로
[주께] 부르짖었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³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손주들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다음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대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란
부딪히면, ‘미안해’라고 말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구주와
그분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나쁜 느낌은
사라져요.”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여러분이 회개하길 바라실까요? 십 대인
제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발전해서
그분들처럼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또 전
영이 늘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데요, 그런
훌륭한 축복을 누리려면 매일 회개해야 해요.
제가 그분들께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부족할
거예요.”

네 살배기 브라인리는 이 질문을 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세요.”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장로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 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 혹은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⁴

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저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 모두가 죄와 약점을 매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가까이 느끼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할까요?

패커 회장님의 경험과 간증처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는 진정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 위안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세계 있어 이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흥해를 가르고 산을 옮기거나 육신을 치유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열렬히 구하고, 그 후에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구주께서 베푸신 속죄의 희생으로 변화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34:31.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0~41쪽.
3. 이노소서 1:4-8.
4.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3쪽.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결국 우리는 모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구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수 년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 행해졌던 곳으로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가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17장을 가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¹

이 말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진 저는 언젠가 제가 제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성스러운 곳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족, 친구, 주님, 그리고 회복된 교회와 맺는 소중한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며 굳게 다져야 합니다.

경전에서 가장 가슴 저미는 이야기 중 하나는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떠나가서”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게 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²

이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³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⁴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 곁에 남았습니다.

후에 열두 사도는 오순절이 되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남아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여전히 힘든 것으로,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특정 정책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힘겨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사 문제나, 과거 또는 현재의 일부 회원과 지도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두고 고민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행함에 지치”고 만 이들도 있습니다⁵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흔들려 “떠나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앙으로 동요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지활동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떠나기로 하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회원 및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들과 “다시 ...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나 정책,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과 “다시 ...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장 그런 내적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시면 매사는 저절로 해결될 방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영감 어린 통찰력이나 계시가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물론경에 담긴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단히 읽고 숙고하고 적용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해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십시오. 제 사랑하는 벗이자 동료였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언가를 단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⁶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포기하기에 앞서 맨 처음 나는 무엇 때문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게 됐었는지, 모든 것을 멈추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으며,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신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를 증거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다른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총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신앙의 부족에서 오는 연약함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구주,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께 배우기 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⁷

경이로운 가능성과 가르침 및 필멸의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가득한 계획,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화평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은 지상 생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가르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심하고 영감에 찬 조직을 갖춘 교회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한 권고와 이해와 위안과 영감을 주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찾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고 자녀와 손자녀들에게도 전해 주기 원하는 그런 정해진 가치관과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전의 구원 의식과 성약을 통해 오는 기쁨을 다른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생은 몹시 가파르고 힘겨운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따금 길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재점검하며, 다시금 속도를 조절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길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수로 원기를 되찾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잡된 일이 될 것입니다.

위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벗어나려 할 때 다가옵니다.⁸ 배우고 연구하며 알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믿고 신뢰하고 소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구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⁹ 우리 모두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답이 쉽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신앙이 왜 누군가에게는 더 쉽고 누군가에게는 더 어려운가를 제가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답은 언제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진심으로 답을 구한다면, 계속하여 복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우리가 품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름으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유하여 그들이 복음의 길을 찾고 그곳에

머무르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¹⁰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중 누구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 위에서 우리가 선 지점은 모두 다르며, 우리는 그 점을 유념하고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의문을 품고 있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이를 감싸 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귀에 익은 비유를 들어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 “시온의 정든 배”를 떠나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폭풍우와 파도가 정든 배에 몰아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명령으로 폭풍우를 꾸짖을 수 있으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행사해야 하며,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¹¹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베드로가 구주의 질문과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¹²

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며,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¹³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를 부르셨고, 가르침과 계명이 주어지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올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게 하셨음을 간증합니다.¹⁴

아울러,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¹⁵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에 머물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회복된 복음은 하늘 부모의 면전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7:9, 11, 20~21.
2. 요한복음 6:66, 강조체 추가.
3. 요한복음 6:67.
4. 요한복음 6:68~69, 강조체 추가.
5. 교리와 성약 64:33.
6. Neal A. Maxwell, *Not My Will, But Thine*(1988), 124.
7. 엘마서 7:11~12.
8. 니파이전서 8:20~30 참조.
9. 요한복음 6:67.
10. 니파이전서 8:15.
11. 마가복음 4:35~41 참조.
12. 요한복음 6:68~69.
13. 모사야서 3:17.
14. 교리와 성약 115:6.
15. 니파이후서 26:33.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예배는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이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문

기록한 경전에서 가장 경이롭고 애정 어린 기록 중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온 지면이 변형”될 정도의 참담한 재앙을 겪었습니다.¹ 이 사건을 담은 기록에 따르면, 재앙 이후 모든 백성이 우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고,² 극심한 슬픔 중에 백성들은 치유와 평화와 구원의 손길을 갈망했습니다.

구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분의 발치에 두 번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신성한 권능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을 때였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³

그런 다음 주님은 그곳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할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경배”했음을 압니다.⁵

오늘날

올해 초에 저는 미국 서부에 있는 한 스테이크를 방문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고, 그곳에는 평범한 모임과,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임 시작 바로 전이라, 예배당에는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는 부모의 수고가 때때로 헛되긴 했지만, 그들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때, 머릿속에 영감을 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원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혹은 연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곳에 모인 여러 다양한 회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회원들은 천국에 있는 듯 경건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엇인가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일요일, 그곳의 회원들은 매우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저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참된 예배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상에서의 예배

후기 성도들은 교회 부름에 관한 한 매우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단순히 업무를 보는 것처럼 판에 박힌 듯이 부름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거룩한 요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영적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는 우연히, 운 좋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이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경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랑과 겸손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힘 있는 기도로 마음을 복돋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분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평의회나 교회나 성전에서 그분을 아무리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또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⁶

자신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신성한 분의 면전에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렸는지를 검토해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이로움, 감사, 그리고 희망

19세기 초에, 기독교계는 하나님에 여전히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거의 단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1820년 봄, 보잘것없는 한 시골 소년이 숲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되는 경이로운 시현과 계시와 천사의 방문이 지상을 뒤덮었고, 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 그리고 그분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귀중한 지식이 부여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결코 잊혀지 않을 날들이었다. … 얼마나 기뻐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⁷

우리는 올리버의 기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장엄한 경외감과 깊은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특히 안식일에, 하늘나라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선하심과 크나큰 사랑을 찬양할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빛, 지식, 그리고 신앙

축복된 오순절 날, 성령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빛과 지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으니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자, 의심도 거리낌도 사라졌습니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참된 예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의 빛과 지식과 강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은 확고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지니고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에 빛과 진리가 찾아와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제자 됨과 사랑

우리는 물몬경에서 엘마 이세가 반항의 결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는 담대하게 “온 땅과 …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가]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⁸

그는 열정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선생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성실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여 더욱 그분과 같이 됩니다.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더욱 용서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목살하고,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⁹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감

그때 그 평범한 일요일 아침 평범한 스테이크의 평범한 집회소에서 시작되어 영원히 제 삶을 축복할 그 특별한 영적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날까지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간, 부름, 임무를 아무리 훌륭하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또 “완벽한” 개인, 가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구원자, 하늘의 왕,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화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고대 미대륙 백성들과 똑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무한한 경이로움과 외경심으로 그분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희망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영혼에는 빛과 진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성신의 빛을 통해서만 보이는 영적인 풍경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¹⁰ 그렇게 하여 우리는 신앙을 연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혼이 정제되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으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온종일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회소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숭배하며 공경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유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표징이자 표현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평범한 교회 모임은 놀라운 영적 향연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해를 넓혀 줄 것이며, 간증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고대 다윗 왕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며,]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¹¹

우리는 성실하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며 희망, 신앙, 사랑 안에서 피어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빛을 우리 영혼에 모을 것이며,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신성한 의미와 변치 않는 평화와 영원한 기쁨으로 차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8:17.
2. 제3니파이 8:23 참조.
3. 제3니파이 11:10~11.
4. 제3니파이 11:14, 16~17.
5. 제3니파이 11:17.
6. 교리와 성약 133:39~40.
7.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8. 모사이야서 27:35.
9. 요한1서 4:20 참조.
10. 고린도전서 2:14 참조.
11. 시편 100:4~5.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매우 지혜롭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재판관이셨습니다. 경전에서 “의로우신 재판관”(디모데후서 4:8; 모세서 6:57)으로 불리는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의로우 비판을 하고”(조성, 마태복음 7:1~2 참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여 “의로게 판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12)

우리도 그분과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분은 니파이인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우 심판을 좇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러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강조체 추가)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을 때, 의롭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잊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판단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불의한 판단의 부끄러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이 죄인임을 망각한 채 구주와 그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 모두를 불의하게 판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누가복음 15: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난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기쁨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구주께 데려온 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요한복음 8:3) 그들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지 보려 했습니다.(5절 참조) 그다음 이야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판단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양심에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났는지 말합니다.(9절, 강조체 추가) 그런 뒤 그분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8:11)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에 속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의하게 판단하려는, 또는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구주의 사도들 중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사람들이 구주를 함부로 대하자 분노했습니다.(누가복음 9:51~54 참조)

“[그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54~56절, 역자 주: 55~56절의 일부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으나 주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남을 비난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감독과 지부 회장 등 오늘날의 “보통 판사들”은 이와 비슷한, 비난하려는 충동을 피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74) 의로운 재판관은 죄를 인정하는 고백에 대해 연민과 이해를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한 청소년이 결코 부끄럽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으로 감독실을 나서게 해서 안 됩니다. 그는 감독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속죄의 기쁨과 치유의 권능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감독실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은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린 양을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누가복음 15:4 참조)

훈육

그러나, 연민이 훈육의 필요성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는 배운다는 뜻의 라틴어 *discere* 또는 학습자라는 뜻의 *discipulus*에서 왔으며 제자를 학생이자 따르는 자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¹ 주님의 훈육 방법은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주님은 훈육에 대해 말씀하시며 종종 징계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예를 들어, 모사이아서 23:21; 교리와 성약 95:1 참조) 징계라는 단어는 라틴어 “*castus*”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순결한, 정결한, 또는 정결해지도록 징계함”입니다.²

세상에서,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여 옥에 가두는 것은 현세의 재판관입니다. 대조적으로, 몰몬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인 감옥에 처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앨마서 41:7) 역설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판사가 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집니다. “이는 징계로써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그분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95:1, 강조체 추가) 의로운 재판관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구원하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금판을 얻기 전 4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훈육을 받았습니다.³ 이후 조셉 스미스가 116쪽의 원고를 분실했을 때, 그는 다시 훈육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비록 조셉은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특권을 잠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95:1)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우림과 둠뎀을 내게 돌려주었을 때 기뻐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충실함과 겸손함을 기뻐하시고 끈기와 근면으로 기도를 드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⁴ 주님께서는 조셉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르침을 주기 원하셨기에 그에게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희생은 훈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었습니다.

희생

“고대 시대에, 희생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⁵ 희생의 이와 같은 의미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징계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나 잘못을 지었을 때 이를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즉 희생을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⁶ 그 희생은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킬 뿐 아니라(앨마서 34:14) 구주의 속죄를 더욱 감사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이를 뉘우칠 때 그 뉘우침의 일부로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더 큰 희생을 폄하하고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이것은 곧 냉담한 배은망덕의 표시입니다.

반면, 사실 우리는 희생이 부여하는 감미로운 역설을 통해, 희생할 때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즉 그분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얻습니다.(교리와 성약 84:38) 또한 희생은 회개의 한 절차로서, “양심의 가책”(앨마서 42:18)을 “양심의 평안”(모사이아서 4:3)으로 바꿔 주는 치유의 연고 역할을 합니다. 희생 없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바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계속 그들의 뇌리에 맴돌 것이기 때문입니다.⁷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할 부모

우리 중 보통 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의로운 판단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며, 특히 자녀들에게 매일 이 원리를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부모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양육의 본질이며,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적이고 그야말로 통솔하기 힘든 경우라도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면 ...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⁸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칠 때,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훈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권고가 나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교리와 성약 121:41~43)

이 성구는 마음이 화로 가득했을 때가 아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성신과 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버지인 악마에게 속한 자이며,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기

때문입니다.(제3니파이 11:29)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영감이 임하는 곳에서는 불친절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은 친절의 정신이자 인내와 자애와 사랑, 관용의 영이며 오래 참는 영입니다. ...

... 그러나 건설적이지 못한 태도로 잘못을 찾 ... 는 정신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동반한 결과가 아니며,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

친절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 ... 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⁹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정체성

구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어린아이들과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 무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 주시매,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

... [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더라].”(제3니파이 26:14, 16)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유아들의 입을 연 것 이상으로, 그 자녀들의 놀란 부모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영원에 관계된 것들을 잠시 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며 그들 자녀들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전세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지 않았을까요? 이를 과테는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고,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짓는다.”¹⁰ 자녀의 정체성, 즉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앞을 내다보는 은사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의로운 재판관의 이해력이라는 신성한 영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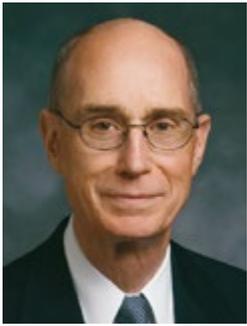
결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¹¹ 이 원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disciple,” etymonline.com 참조.
2.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chasten” 참조.
3. Karen Lynn Davidson and others, eds.,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2), 83.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71쪽; 강조체 추가.
5. 경전 안내서, “희생”; scriptures.lds.org.
6. Bible Dictionary, “Sacrifices” 참조.
7. 매주 우리가 성찬대 위의 제단에서 드리는 성찬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다.(니파이후서 2:7; 제3니파이 9:20; 교리와 성약 59:8 참조) 상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며, 통회하는 심령은 순종하는 심령이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너는 돌이킨 후에”,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2쪽 참조)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39년), 299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225, 226, 228쪽; 강조체 추가.
10. Attributed to Johann Wolfgang von Goethe, brainyquote.com.
11.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

후기 성도에게 안식일은 감사와 사랑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 대회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하도록 지명해 주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신이 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특히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낯선 사람의 친절, 배고플 때의 한 끼 식사,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새지 않는 지붕, 그리고 부러진 뼈가 나았을 때, 갓난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런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후기 성도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런 하루이지요. 주님께서는 1831년에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더불어 금식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계시를 받았습시다.¹

주님께서는 초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하고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이같이 이르노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이다.”²

그런 후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³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시다. 이 노래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없는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주가 하신 일을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너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⁴



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시달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로부터 편지와 방문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적어도 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마저 합니다. 안식일에 느끼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의심을 떨쳐 버리고 마음속에 노래가 흐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축복은 적어도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주의 제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오고 싶어도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치안을 담당하거나, 사막이나 밀림에서 목숨을 바쳐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명이라도 모여 성찬을 취할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에 충분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 덕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종들이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성찬을 매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그 신권 소유자들이 드리는 성찬 기도문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성찬을 취할 때 느끼는 용서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을 하신 구주에 대해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빵과 물을 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축복은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계명을 더 쉽게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⁵ 또한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신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그와 같은 축복을 세어 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침례의 물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맺었던 성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우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이나 정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안식일에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약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유타 주 바운티폴에서 집사 정원회를 가르치고, 아이다호 주에서 주일학교 공과 교사를 했던 시절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반에서 제 아내의 보조로 봉사했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임무는 장난감을 나누어 주고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했던 단순한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야 영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안식일에 주님을 위해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저의 미숙한 노력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행한 봉사의 결과를 당장 볼 수는 없듯이 주님의 다른 종들이 행한 일들의 축적된 결실 또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 년에 대해 요란스레 내보이지 않고 충실하며 겸손한 종들을 통해 당신의 왕국을 조용히 세우고 계십니다. 점점 커지는 그 장엄함은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회원 몇 명과 우리 가족이 전부인 작은 지부의 성찬식에 참석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를



통틀어 교회에서 지은 집회소는 그곳이 유일했습니다. 작은 지부 하나밖에 없었던 뉴저지 프린스턴에 지금은 두 개의 큰 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성전 헌납식에 앞서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집회소에서 지방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성전 하나와 네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학업을 위해 앨버커키를 떠나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를 모두 합쳐 집회소 하나와 지방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 아름다운 시골 언덕길을 달려서 조그마한 지부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작은 임대 건물이나 개조한 주택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사추세츠 주 벨몬트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이 있고, 그 지역 곳곳에 여러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조그마한 성찬식에 참석했던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범위까지 왕국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려 하셨는지 그 의중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것을 계시로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니파이는 우리 회원들의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빛은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 그 수가 적더라. ...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⁶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놓인 기회들에 대한 비슷한 예언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요,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 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⁷

저는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는 변화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거나, 또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처해 있는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앰울론이 엘마 백성들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도 힘든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낼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이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⁸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킬 때마다, 당신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충실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분은 우리를 밝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강화하도록 오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개인과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를 그분께서 바라시는지 알고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외롭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신을 통해 알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그 응답대로 행한다면 안식일에 기쁨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맺고 새롭게 하는 성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더욱 구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희과 진실에 대한 의구심에 맞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59편 참조.
2. 교리와 성약 59:5, 7-8.
3. 교리와 성약 59:21.
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5. 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6. 니파이전서 14:12, 14.
7. 교리와 성약 78:17-19; 강조제 추가.
8. 모사이아서 24:13-15.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단지 구주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점점 더 깊이 그분을 알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구 주께서 산상수훈을 끝맺으시며 강조하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들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¹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²

이 구절이 어떻게 영감으로 수정되었는지 숙고해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흠정역에 나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³로 수정되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고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을 들은 후에야 등에



필요한 기름을 사러 갔던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앙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⁴

이 비유가 우리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영감에 찬 수정에 의해 확장됩니다. 중요하게도, 흠정역에 나온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문구는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⁵로 바뀌어 뜻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문구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영적 성찰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주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점점 더 깊이 그분을 알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이러한 영혼의 질문이 제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중대한 주제를 숙고하는 동안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게 된다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⁶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필멸의 삶의 위대한 목적은 단지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네 단계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⁷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소양을 끌어모아 주님의 가르침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그분 말씀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할 때, 우리는 구주를 알아 가기 시작합니다.⁸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람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속하고, 치유하고, 강화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안에서 주님에 초점을 두며, 언제나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계시된 종교의 첫째 원리이고, ... 모든 의의 기초이며 ... 모든 지적 존재들의 행동 원리입니다.”⁹ 구속주께서 선포하신 올바른 원리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얻고 행사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¹⁰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¹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구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영의 은사를 받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¹² 경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흠족히 취하며,¹³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¹⁴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구할 때,¹⁵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의 은사를 받는 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¹⁶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분을 따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¹⁷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강력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¹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¹⁹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같은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²⁰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일의 한 가지는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 갑니다.

예수께서는 필멸의 성역 기간에 길을 보여 주시고 인도하셨으며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온전함과 속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²¹은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전념하여 그분을 따르는 동안에 변치 않는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구주를 따르는 것은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향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실질적인 지식”²²을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한 지식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며, 우리의 현재적 추구나 평범한 필멸의 염려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약의 길을 따라 꾸준하고 한결같이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향로입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꿈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 그리고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인 자원들을 알려 줍니다.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깊이 “주께로 돌이[키는]”²³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며²⁴ 손짓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은 모두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분을 섬김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겐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²⁵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왕국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도움과 영의 은사와 더욱 큰 능력을 후히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절대 혼자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만져 주리라.”²⁶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곳에 가고, 주께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구주를 알아

가게 됩니다.²⁷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순순히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열망은 주님의 열망과 더 온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²⁸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이 필요합니다.²⁹ 결과적으로, 자신을 잊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중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은 자애라는 영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³⁰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³¹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면서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경전에 나오는, 그리고 이 연단에서 선포되는 교리와 원리들을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교회 회원들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복음 진리들이 자신의 삶과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축복이 자기 삶에 작용할 수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충실하게 부름을 수행하고 있지만 회복된 복음이 아직 자기 삶에서 살아 있는 힘이자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확신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신약전서에서 한 아버지가 구주께 자기 아이를 고쳐 달라고 청하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³²

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수차례 숙고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간구하는 의도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자로 믿고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을 믿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었지만, 주님의 치유하는 권능이 정말로 그토록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반적으로 믿었지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만, 우리 각자에게 더 적합한 질문은 아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권 권세로 집행한 성스러운 의식들은 구주를 믿고, 그분을 알아 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멜기세덱] 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³³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가 집행됨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문이 열려 우리가 삶에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의식들을 받고 충실하게



생활하며 우리 얼굴에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지닐 때, 우리는 구주를 믿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³⁴ 구주의 속죄가 지나는 변화시키고 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권능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이 뿌리 내리고],”³⁵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거하고 마음에 기록되고,³⁶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배릴 때”³⁷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믿는 것은³⁸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진진하고, 주님의 뜻 아래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우선순위와 시간표에 순응할 때에 뒤따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즉 그분의 권능과 약속이 참됨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트인 시야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약속과 간증

미래의 어느 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³⁹ 그 축복된 날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각자를 아시고 이름을 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믿을 때 우리는 단지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깊이 알게 될 것임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88), 249쪽.
2. 마태복음 7:21~23.
3.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7:33.
4. 마태복음 25:10~12.
5.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25:11.
6. 요한복음 14:6~7.
7. 니파이후서 2:8; 31:19; 모로나아서 6:4 참조.
8. 엘마서 32:27 참조.
9. *Lectures on Faith* (1985), 1.
10. 야고보서 2:20.
11. 야고보서 1:22.
12. 로마서 10:17.
13. 니파이후서 32:3; 교리와 성약 18:34~36 참조.
14. 모로나아서 10:4 참조.
15. 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121:46 참조.
16. 요한복음 7:17 참조.
우리 각자는 신앙의 은사를 구하고 이를 받기에 합당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17. 마태복음 4:18~20.
18. 마태복음 16:24.
19. 조셀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6(경전 안내서) 참조.
20. 제3니파이 27:27 참조.
21. *Lectures on Faith*, 38 참조.
22. *Lectures on Faith*, 38 참조.
23. 엘마서 23:6.
24. 누가복음 18:22.
25. 모사이아서 5:13.
26. 교리와 성약 84:88.
27.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참조.
28. 힐라맨서 10:5.
29. 교리와 성약 4:2 참조.
30. 모로나아서 7:47 참조.
31. 모로나아서 7:48.
32. 마가복음 9:23~24.
33. 교리와 성약 84:19~20; 강조체 추가.
34. 엘마서 5:14, 19 참조.
35. 엘마서 26:13.
36. 히브리서 8:10 참조.
37. 엘마서 22:18.
38. 옴나아서 1:26 참조.
39. 모사이아서 27:31.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의 교리

우리를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 줄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얻게 됩니다.

부 활하신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방문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¹ 그런 뒤, 예수께서 친히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속죄 희생을 증언하시며,²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와 당신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과 발에 생긴 못 자국을 만져 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이런 증거로써,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구주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따라, 구주의 속죄 덕분에 가능해진 모든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⁴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그리스도의 교리로 정의합니다.⁵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고,⁶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⁷ 모든 선한 일을 얻으며,⁸ 영생을 얻을 수 있는⁹ 조건들이 형성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써 가능해진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를 현재의 영적 상태에서 구구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 줄 영적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얻게 됩니다.¹⁰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을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적인 출생과는 달리 거듭남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상 생활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¹¹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루는 각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입니다. 선지자들은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¹²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속죄 희생을 증거하며, 용서와 축복, 승영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¹³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을 발휘하여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¹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니파이는 가르쳤습니다.¹⁵ 예수께서는 전세에 하나님이셨고¹⁶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¹⁷ 속죄를 행하시는 동안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공의의 요구에 응하셨기에,¹⁸ 만민에게 부활을 선사할 권능과 열쇠를 얻으셨으며¹⁹ 회개라는 조건에 입각하여 자비가 공의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²⁰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자비를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²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²²

또한 신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레이먼인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²³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중한 선물로, 그분의 독생자가 치르신 희생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점점 더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까지도 변화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입니다.²⁴ 회개는 중대한 죄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며,²⁵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결점, 약점, 부족함을 극복하게 됩니다.²⁶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²⁷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됩니다.²⁸ 회개는 완벽한 삶을 살겠다는 계획이 틀어질 때를 대비해 마련된 대안이 아닙니다.²⁹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³⁰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때,³¹



우리 삶에 은혜가 내려집니다.³² 은혜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도움이나 힘”을 말합니다.³³ 회개는 결국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변화를 피하려면 구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해 왔던 의롭지 못한 행동과 약점, 부족함, 두려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행동과 믿음으로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례와 성찬입니다. 선지자 몰몬은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라고 가르쳤습니다.³⁴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그 회개가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이 집행하는 침례 의식과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와 그 밖의 의식에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³⁵

우리는 침례와 성찬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또는 그분의 사업과 성품³⁶)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³⁷ 그러면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 또는 사하시겠다는 성약을 맺으시고³⁸ “[우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³⁹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되도록 도우시어 영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⁴⁰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인 더글러스 디 홈즈 형제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침례 및 성찬 의식은 거듭남의 과정과 최종 결과를 모두 상징한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육으로 된 오래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⁴¹ 또한 이런 변화는 매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임을 성찬식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약을 맺고 점점 더 영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간다.]”⁴²

의식과 성약은 그리스도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신권 의식을



받고 그에 따르는 성약을 지킬 때,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⁴³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경건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⁴⁴

네 번째는 성신의 은사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확인 의식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⁴⁵ 우리는 이 은사 덕분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으며,⁴⁶ 본질적으로 그분의 영향력과 함께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동반자인 성신은 우리가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권능과 힘을 더해 줍니다.⁴⁷ 또한, 성신은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⁴⁸ 즉, 우리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순수하고, 깨끗하며, 거룩하게” 됩니다.⁴⁹ 우리는 성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은사나 구주의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되며,⁵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⁵¹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지게 됩니다.⁵² 우리 삶에서 신앙, 회개, 의식,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그리고 의로운

노력을 통해 성신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⁵³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딤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고 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⁵⁴ 데일 지 렌던드 장로님은 끝까지 견디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침례의 축복과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고,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더 충만하게 받[을 때,] … 끊임없이 점점 더 …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⁵⁵

다시 말해, 성신을 받아들여 우리 내면에 변화가 생길 때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커지면 또 다른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런 후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과 죄를 성찬 제단에 바치면, 성신의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성신의 더 큰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모든 구원 의식과 복음의 성약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받아 결국에는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⁵⁶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⁵⁷ 이런 과정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제 삶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⁵⁸ 사실, 죄로부터 구속받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뿐입니다.⁵⁹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니라.]”⁶⁰ 또한, 예수께서는 니파이인 열두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끝까지 견디는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져[져] …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⁶¹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더 온전히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매주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성찬 제단으로 가져와서 신앙으로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영적 은사를 구하며,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⁶²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우리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결점을 극복하도록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며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⁶³ 모든 선한 것은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⁶⁴ 그러나 진실로 영생을 포함한 “모든 선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⁶⁵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11:7.
2. 제3니파이 11:10~11 참조.
3. 제3니파이 11:14~15 참조.
4. 제3니파이 11:21~39 참조.
5. 니파이후서 31장; 제3니파이 27:16~20 참조. 그리스도의 교리는 경전 전반에 걸쳐서 나오지만, 특히 물문경에서 자주 볼 수 있다.
6. 니파이후서 2:8.
7. 모로나이서 10:32.
8. 모로나이서 7:22~24 참조.
9. 교리와 성약 132:23 참조.
10.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교리가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룬다.(제3니파이 27:13~21 참조)
11.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거듭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8쪽.
12. 로마서 10:17; 니파이후서 31:19; 엘마서 32:27~29; 모로나이서 7:25 참조.
13. 니파이후서 32:3 참조.
14. 니파이후서 31:10, 13 참조.
15. 니파이후서 31:19.
16. 요한복음 1:1~3; 모세서 7:47; 아브라함서 3:24~27 참조.
17. 히브리서 4:15; 교리와 성약 45:4 참조.
18. 엘마서 34:16 참조.
19. 니파이후서 9:21~22;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52쪽 참조.

20. 엘마서 34:15~16 참조.
21. 엘마서 34:15.
22. 그리스도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지해야 한다.(모사이아서 4:7~8 참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교리와 성약 27편 2절에는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계명이 주어졌다.
23. 힐라맨서 14:13.
24. 러셀 엠 넬슨, “회개와 개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2~105쪽 참조.
25. 날 엘 앤더슨, “회개하여...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43쪽 참조.
26. 제프리 알 홀런드,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9~71쪽; 앤소니 디 퍼킨스, “크고도 놀라운 사랑”,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6~78쪽 참조.
27. 모로나이서 7:48.
28. 모로나이서 8:16 참조. 참으로 회개는 우리가 구주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증거이다. 꾸준히 회개하거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9. *선교사 생활에 적용함*(소책자, 2013), 46쪽 참조.
30. 모사이아서 4:5~7 참조.
31. 니파이후서 10:24; 25:23 참조.
32. 힐라맨서 5:11; 이터서 12:27;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33. Bible Dictionary, “Grace”.
34. 모로나이서 8:25.
35.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하나님과 맺은 모든 성약이 새롭게 된다.(Delbert L. Stapley, Conference Report, Oct. 1965, 14; 엘 톱 페리,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1쪽 참조)
36. Dallin H. Oaks, “Testimony”(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5, 2014), 1~2 참조.
37. 침례를 받을 때 맺는 다른 성약들에 대해 알아보려면, 모로나이서 4:3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18:8~10;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38. 모로나이서 8:25 참조.
39. 모사이아서 6:10.
40. 고린도후서 3:18; 이터서 12:27; 교리와 성약 35:2; 모세서 1:39 참조.

41. 로마서 6:4 참조.
42. Douglas D. Holmes, “Come unto Christ—the Doctrine of Christ”, 미출판 원고.
43.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4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2쪽.
45. 확인은 안수에 의해 이루어짐(예를 들어, 사도행전 8:17 참조)
46. 교리와 성약 20:28; 경전 안내서, “성신” 참조.
47. 고린도후서 3:18; 니파이전서 14:14; 교리와 성약 93:20 참조.
48. 제3니파이 27:20 참조.
49. 경전 안내서, “성결하게 됨”, scriptures.lds.org.
50. 모로나이서 7:48; 8:26; 10:8~18 참조.
51. 모사이아서 4:14; 교리와 성약 84:33; 브루스 알 맥퉁키, “신권의 열 가지 축복”,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48~52쪽 참조.
52. 모사이아서 5:2.
53. 또한,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니파이후서 32:5; 교리와 성약 45:57 참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지를 알도록 이끌어 준다.(고린도후서 3:18; 이터서 12:27; 교리와 성약 84:46~48 참조)
54. 니파이후서 31:16. 끝까지 건담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므로 적절한 명명이라 할 수 있다.(야고보서 1:2~4 참조) 사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중에는 반대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발전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래 참는 성품을 키울 수 있겠는가?
55. 데일 지 랜런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6쪽.
56. 교리와 성약 93:12, 19 참조.
57. 모로나이서 7:25; 또한 교리와 성약 2:41 참조.
58. 교리와 성약 39:4~6 참조.
59. 니파이후서 9:24 참조.
60. 요한2서 1:9.
61. 제3니파이 27:17.
62. 똑같은 것을 여러 주 동안 성찬 제단에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쳤듯이 구주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68쪽)
63. 니파이후서 25:20 참조.
64. 모로나이서 7:24 참조.
65. 모로나이서 7:25.



칼 비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봉사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회원이 필요하며, 모든 회원은 봉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소 년 시절 저는 라이만 삼촌과 도로시 숙모네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보통 라이만 삼촌이 작업을 주도하고 도로시 숙모는 일을 거들면서 오래된 소형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면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라이만 삼촌은 “도로시, 기어를 복합으로 놔!”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기어와의 씨름 끝에, 도로시 숙모는 기어를 복합 위치에 둘 수 있었습니다. 바퀴 네 개가 모두 회전하면서 트럭은 앞으로 튀어나갔고 우리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어를 복합으로” 놓는 것은 기어를 특별한 기어로 전환하여 여러 개의 기어들이 함께 구동하며 더 큰 회전력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¹ 운전자는 복합 기어와 사륜구동을 이용하여 기어를 내리고 동력을 끌어올려서 차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즉 와드, 지부, 정원회와 보조 조직에서 함께 봉사할 때 우리 각자는 복합 기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어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며 더 강한 힘을 내듯, 우리도 함께 일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서로 봉사할 때,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봉사하고 도움을 줄 때 함께

참여하고 단합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갖는 가장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봉사하는 기회입니다.² 주님께서는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라고 하였고,³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깁니다.⁴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⁵ 달리 경험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을 알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커집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삶이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봉사하려는 열망도 커집니다. 이 축복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처럼 되고 그분께 돌아갈 준비를 더 잘하게 됩니다.⁶

“봉사란 우리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이 지상에서 참아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근간입니다.”⁷

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에 지칠 때도 있으며, 또는 끌리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엔 아프리카 남동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상대적으로 아직 초창기여서 이제 자리를 잡아 가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이 났고, 그곳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본부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열의가 솟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무에는 전에 몰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해 생각하던 어느 날 밤, 저의 5대조이신 조셉 스킨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지에서 그분이 부인 마리아와 함께 나부로 이주했고,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찾아가 어떻게 도울지를 물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그분을 농장에서 일하도록 보내며 온 힘을 다해 일해 달라고 말했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한 곳은 스미스 가의 농장이었습니다.⁸

저는 그런 방법으로 임무를 받으신 조셉 스킨 할아버지의 특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그러한 특권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름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임명하신 종들을 통해 옵니다.⁹

저는 저의 새 임무가 영감받은 것이라는 분명한 영적 확신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부름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 온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의 태도는 바뀌었고, 저는 봉사하려는 열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회개의 축복과 저의 변화된 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새로운 임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혹 자신의 교회 부름이 단순히 신권 지도자의 생각이며, 달리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에게 온 부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봉사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한다면, 우리의 봉사에 추가적인 권능이 더해질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됩니다.

봉사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름을 성취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조셉 할아버지가 그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이 들어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일푼이었고 주변엔 낯선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조셉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돌아서게 하려 했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일했고 우리가 자그마한 신앙을 모아 교회를 꼭 붙들었다.”¹⁰

저는, 다른 수백 명의 후손들과 함께, 조셉 할아버지와 마리아 할머니가 돌아서지 않은 것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과 책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으로 버틴다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복음 교리반 교사를 압니다. 그 자매님은 가르칠 때 반원들을 고양합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후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르치는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봉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고, 가르치는 것을 피하려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방문 교사가 그녀의 부재를 인지하고 방문하여 돌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감독님과 와드 회원들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결국 신앙이 더 커진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원리들을 적용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노력을 축복하셨고 그녀는 재능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¹¹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난 아직 봉사할 준비가 안 됐어. 더 배워야 해.” “이제 지쳤어. 좀 쉴래.” “난 너무 나이가 많아. 이제 다른 사람들 차례야.” 또는 “너무나 바빠.” 같은 핑계로 봉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거듭 가르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¹² 우리가 버겁다고 느끼든, 실망하든, 죽도록 겁이 나든, 죽도록 지루하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어를 내리고, 힘을 끌어올리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이나 그분의 보좌들이나 사도들에게서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쳤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임무를 받아들이고, 결의와 헌신으로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 삶에 오는 권능을 영감 어린 방식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분들은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기를¹³ 여러 해 전에 시작하셨으며, 계속해서 앞을



향하고 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분들은 중요한 부름을 받고 계십니다만, 모든 부름과 임무는 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 회장이자 선지자였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도 작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¹⁴ 모든 부름이 중요합니다.¹⁵

봉사합시다

신앙으로 일어서서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¹⁶ 충실한 숙모 도로시와 함께 “기어를 복합으로” 넣도록 합시다. 형제와 자매로서 봉사합시다.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주님께서 제가 어디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족 상황과, 직장 일을 고려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여러분에게 적합한 부름을 줄 것입니다. 성별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 부름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신권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회원이 필요하며, 모든 회원은 봉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¹⁷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에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세상이 조직되기 전 천국 회의에서, 태초로부터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께서는 기꺼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¹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의 속죄로 인해 받는 권능을 통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¹⁹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교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봉사하지 못하지만 봉사의 정신을 지니고 생활하시는 분들께 마음속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중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 중에도 주말에도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분들과 곧 봉사할 부름을 받으실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여와 희생은 소중하며, 특히 우리가 섬기는 그분께서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²⁰

우리의 나이와 상황이 어떠하든, 봉사가 우리의 “좌우명”이 되게 합시다.²¹ 부름에서 봉사하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어머니에게 봉사하십시오. 낯선 자에게 봉사하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그냥 봉사하십시오.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²² 주께서 살아 계시고 이 일을 인도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Compound Gears,” technologystudent.com/gears1/gears3.htm; “Compound Gear Reduction,” curriculum.vexrobotics.com 참조.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87쪽 참조.
3. 교리와 성약 42:29; 59:5 참조.
4. 마태복음 25:40; 모사이야서 2:17 참조.
5. 요한복음 12:26 참조.
6. 교리와 성약 81:4~6 참조.
7. 매리언 지 롬니, “자립심-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성품”,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145쪽.
8. Joseph Skeen, *reminiscences and diary*, 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또한 *Journal and History of Joseph Skeen*, ed. Greg S. Montgomery and Mark R. Montgomery (1996), 23 참조.
9. 교리와 성약 1:38; 신앙개조 제5조 참조.
10. Skeen, *reminiscences and diary*, 8, 철자와 구두법 수정; 또한 *Journal and History of Joseph Skeen*, 23; 누가복음 22:31; 니파이후서 28:19~24; 앨머서 30:60; 교리와 성약 10:22~27 참조.
11. *주님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 37~38;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3, 5.5.4.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13.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14. 고든비 힝클리,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9~70쪽. 힝클리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전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데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제 부름과 같이 선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주님이 행하셨듯이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71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부름에 따른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43쪽)
15. 앨머서 37:6 참조.
16.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17. 지침서 제2권, 3.3.1, 3.3.3, 19.1.1, 19.4 참조. “하나님의 사업은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하는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복음 원리*[2009], 163쪽)
18. 아브라함서 3:27.
19. 교리와 성약 76:5 참조.
20. 모사이야서 18:26 참조.
21. “They, the Builders of the Nation,” *Hymns*, no. 36.
22. 모로나이서 7:48 참조.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잊어버리지 말라

특히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영을 느꼈던 때와 여러분의 간증이 강했던 때를 떠올려 보며 여러분이 쌓았던 영적 토대를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의 첫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노력하고, 성장하고, 진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와 전 세계에 계신 교회 회원들의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 오래도록 알아 온 이들과 최근에 사귀어 여러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자신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제게 나누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영적으로 느꼈었지만 지금은 잃어 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저는 주님께서 제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고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 친구는 초등학교 찬송가에 나오는 단순하면서도 가슴 저미게 표현된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정말 거기 계신가요?]”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조언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적인 제자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과,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실망과 부서진 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사랑을 확증해 주는 그런 느낌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심한 괴로움과 시련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몇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처절했지만,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그분의 희생은 그분이 지닌 순수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죄도, 어떤 선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행동이 용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또한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물문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²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에 빠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친구는 자신이 벼랑 끝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친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스러웠던 경험을 잊고 약해지며 의심을 품게 만든 결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특히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영을 느꼈던 때와 간증이 강했던 때를 떠올려 보며 자신이 쌓았던 영적 토대를 기억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며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들을 멀리하신다면, 간증이 차고 넘쳤던 그 소중한 시절이 겸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다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안전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을 장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한 뒤에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경전을 탐독하시고, 경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통찰과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다른 근원들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경전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³ 교회 모임, 특히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언제나 구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또는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인지 느끼고 있든 간에,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보이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봉사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강력한 권고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⁴

우리가 하는 선택들에 의해 여러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삶에서 영을 인식했을 때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기억해 보고 그 느낌을 일지와 개인 역사 기록에 적어 보라고 격려하십시오. 언젠가 필요할 때, 그들이 스스로 적은 그 글귀를 통해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늦쇠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늦쇠판에는 그들 민족의 역사가 일부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기록을 통해 과거를 잊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물문경에서 힐라맨은 주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의 “첫 번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볼지어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노라]. ... 볼지어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나온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하노라.”⁵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을 잊지 않을 목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경전에 나오는 영웅이나 충실했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로 지어졌습니다. 제 성은 부계의 혈통을 나타냅니다. 제 중간 이름의 첫 글자 A는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 모계쪽 조상을 잊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제 고조부이신 젠스 앤더슨은 덴마크 출신이셨습니다. 1861년 주님께서서는 두 명의

물론 선교사들을 제스 앤더슨과 앤 캐서린 앤더슨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그 선교사들은 그 두 분과 그들의 열여섯 살 짜리 아들인 앤드루에게 회복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물론경을 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 앤더슨 가족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성도들과 연합하라는 선지자의 요청을 듣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슬프게도, 제스 할아버지는 대서양을 향해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아들은 솔트레이크밸리로의 여정을 계속하여 1862년 9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고초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많은 후손들의 신앙 역시 사들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저의 조상들과 그 헌신적인 초기 선교사들의 첫 만남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⁶ 저는 제 조상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제 이름 덕분에 그들의 충실함과 희생의 유산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스러운 영적 경험을 결코 잊거나,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획은 영적인 증거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더 참여하고 교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는 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던 때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 응답은 뚜렷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응답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래스번드 장로는 이 그림이 그의 선조들과 초기 물문 선교사들 사이의 첫 번째 만남을 “떠올리게 해 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 분도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며칠 후, 제가 잠에서 깬 때 다음 성구가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증거를 더 원하면 ...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⁷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로널드야, 나는 이미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었느니라. 이제 그 일을 행하라!” 사랑에 찬 그런 가르침과 인도에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느낌으로 인해 즉시 위안을 받았고, 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경험을 빨리 잊을 수 있는지, 또한 그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침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친구에게, 그리고 신앙을 강화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보호되고 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십시오. 개인적인 간증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강화하고 영적인 경험을 부지런히 나누는 그런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삼촌, 친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라는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충실하고 굳건하십시오. 여러분을 영적으로 고양하고 강화해 주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소위 “진리”라고 불리는 거짓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관한 여러분의 느낌을 기억하여

기록하십시오.⁸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이 지닌 신성한 유산을,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엘마의 이 상냥하고 친절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⁹

자신의 신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자신의 말로 기록하였듯이, 저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분들과 대화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그 경험을 잊지 않고 기록하였기에 우리도 그의 간증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엄숙히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다른 어떤 목소리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스럽고 영원한 진리들을,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아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만을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2. 힐라맨서 5:12.
3. 니파이후서 9:29, 강조체 추가.
4. 신명기 4:9; 강조체 추가.
5. 힐라맨서 5:6~7.
6. 원화는 크리스탈 달스고르가 1856년에 그렸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그림은 아놀드 프리베르크가 1964년에 복제한 것입니다.
7. 교리와 성약 6:22~23.
8. 갈라디아서 5:22~23.
9. 엘마서 5:26.



에번 에이 쉬무츠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께서 ...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모든 시련을 이겨 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에 따르면, 슬픔은 필멸의 삶을 경험할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¹ 고통스러운 시련은 각기 정도가 다르지만, 분명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눈으로 삶의 험겨운 경험들을 바라볼 때, 분명 고난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은 모순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조언이 참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기록했습니다.² 우리가 “깨닫고자 마음을 기울”인다면,³ 시련을 잘 견딜 힘과, 시련을 통해 배우고 단련될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선한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영원한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고독과 절망, 비탄과 아픔, 슬픔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없어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이 진실로 영원한 행복의 계획임을 알 때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이, 이생에서 경험하는 불행과 고통 때문에 흐려지거나 가려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⁵

하나님께서서는 각자 주어진 시련을 겪는 동안 신앙으로 행함으로써 축복을 얻고,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도록 권유하십니다.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큼] 것이므로,⁶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또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일 [우리]가 슬프면, [우리 영]혼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우리] 하나님을 불러 간절히 구”해야 함을 압니다.⁷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시련을 겪었으며, 그는 그 시련을 바탕으로 사람이 인내하며 잘 견뎠을 때 생기는 영원한 관점을 아름답고 심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⁸ 바꿔 말하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시험과 박해, 슬픔을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여 그가 겪은 고난이 가벼운 것이었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복음의 영원한 관점이 있었기에 그 혹독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섯 번 매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였습니다. 역사당할 뻔하고, 강도와, 심지어 거짓 형제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기도 여러 번이었고, 수고와 고통, 굶주림, 갈증, 추위, 헐벗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⁹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고통의 원인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면서, 바라던 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분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버리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유가 있기에 시련을 멈추지는 않으시지만¹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¹¹



한 성구에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세 번이나 무릎 꿇고 그것을 없애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가시를 없애 주는 대신 평안을 말씀하시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응답하시어 그가 이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해의 눈을 뜬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¹²

인생에서 이러한 영원한 관점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견딜 힘이 커지고 구조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알게 됩니다.¹³ 또한,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서 허락하신 경험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힘겹게 고난을 겪는 중에는, 자신이 걷는

제자의 길에서 시련이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절망을 느낄 때든 궁극의 행복을 느낄 때든, 다른 이의 고난을 통해 배우고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최근에 필리핀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다니엘 아필라도 형제님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필라도 형제님 부부는 1974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감사하게도 어여쁜 자녀 다섯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7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아필라도 형제님의 작은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필라도 형제님의 장남인 미카엘은 불이 난 집에서 아버지를 끌고 나와 구조한 후, 다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화염은 아필라도 형제님의 아내 도밍가와 다섯 자녀를 삼켜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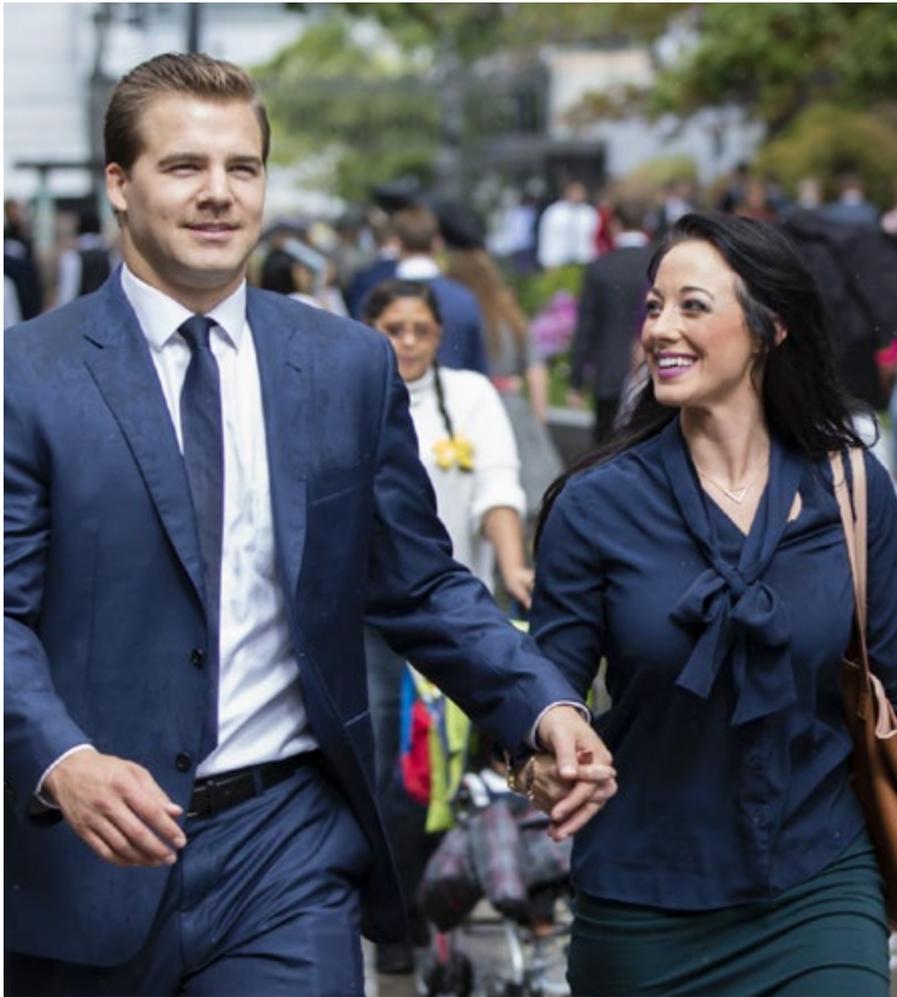
비극이 닥칠 당시 아필라도 형제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여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후의 슬픔이 무더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실하게 성약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서 가족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은 그의 영혼의 닻이 되었습니다.¹⁴

현재 스테이크 축복사인 아필라도 형제님은 스테이크를 방문한 저에게 새로 맞은 아내인 시모네태와 두 아들 라파엘과 다니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며,¹⁵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입니다.

아필라도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께서 자신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아필라도 형제님의 상황과 비교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비교는 접어 두시고, 고난의 용광로를 헤쳐 나가는 동안 영원한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¹⁶이시라면,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과



슬픔, 고통, 시련, 그리고 모든 결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알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감해지십시오!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돕는 것]”¹⁷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구주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이러한 선물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고난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겪어 나가지 않는다면, 고난으로만 배울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목적이 있는 고통을 통해 배운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은 잘 견디기만 하면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잘 견딘다는 말에는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 고통 가운데 있으나 무척 온유해진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냥 스쳐 가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¹⁸

저는 다른 이들의 삶과 모범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강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행사하면 앞으로 올 더 나은 것들에 대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우리에게 견딜 힘과 권능을 선사하며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¹⁹ 고난을 필멸의 삶이 주어진 목적에 대한 확신, 즉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지고 영혼을 위로받습니다.

그런 후에 역경의 터널 끝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역경의 끝에서 빛이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며,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끝없는 빛’입니다.[모사이야서 16:9]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입니다.”²⁰

충실한 자들에게는 인생의 힘겨운 경험이 모두 일시적이며, 밤의 암흑조차도 여명이 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힘을 연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시다.²¹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와서 당신의 속죄를 취하라고 권유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모든 시련을 이겨 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신앙으로 잘 견디며, 그분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얻기를 권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창세기 3:16-19 참조.
- 베드로전서 3:14; 경조제 추가.
- 모사이야서 12:27.
- 이더서 12:19.
- 제3니파이 28:10; 또한 니파이후서 31:19~21 참조.
- 교리와 성약 58:2.
- 교리와 성약 136:29.
- 고린도후서 4:17.
- 고린도후서 11:23~27 참조.
- 교리와 성약 121:7~8; 122편.
- 모사이야서 24:12~15 참조.
- 고린도후서 12:7~9 참조.
- 모사이야서 4:16 참조.
- 이더서 12:4 참조.
- 이사야 61:1 참조; 또한 2~3절 참조.
- 마태복음 11:28.
- 엘마서 7:11~12.
- 닐 에이 맥스웰, “잘 견딤”, 리야호나, 1999년 4월호, 12쪽.
- 이더서 12:4 참조.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42쪽.
- 요한계시록 7:17; 또한 요한계시록 21:4 참조.



케이 브렛 내트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녀들이 구주를 알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구주를 알고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다음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복음을 알게 될 통로가 부모밖에 없다면 그들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될까?” 이 질문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며, 영향을 주는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소년 시절에 저는 어머니께서 양육하기 가장 힘들어 하셨던 자녀였습니다. 저는 넘치는 활기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가장 큰 걱정거리가 과연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 있을까였다고 지금에서야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나치게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한 특별한 성찬식에서 가족과 함께 앉아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막 새로운 경전을 받으셨던 때였습니다. 그 새 경전은 표준 경전이 모두 담긴 합본이었으며 정중앙에 필기할 수 있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모임 동안에 저는 어머니께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제가 더 경건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경전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경전을 훑어보다가 메모지에 적어 놓으신 개인 목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표를 알려 드리기 전에, 제가 여섯 자녀 중에서 둘째였고 제 이름이 브렛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신 단 한 가지 목표는 “브렛에게 인쇄심 갖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느라 고초가 얼마나 크셨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가족의 경전 읽기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에게 물문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제 형 데이브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경건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리얼 상자에 인쇄된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걸 하세요? 왜 매일 아침 물문경을 읽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인정하기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듭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듣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애정 어린 답변을 해 주신 그 순간은 제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께서 경전 읽기의 축복에 관해서 가르치셨던 모임에 갔었다. 모임 동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매일 물문경을 읽어 주면 그 아이들을 잃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 그런 후에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결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은 제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제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소년을 위한 완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제 어머니와, 자녀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천사들”이라고 부를 모든 자매님들은 지상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출산을 했든 안 했든 모두가 시온의 어머니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일회장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성애는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봉사입니다. 그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에 버금가게 됩니다.”¹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담아 담대하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전체의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물문경의 은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입니다. 진정한 의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매일 물문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중에 간증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의 약속에는 대적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만물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10:4~5 참조)

저는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한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9)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44) 그분은 걸보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범법, 고통, 그리고 병고를 극복하도록 속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니파이후서 31:19)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기쁨, 화평, 행복,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소수 외에, 완전한 용서의 약속에서 제외될 습관, 중독, 반항, 범법, 배도나 범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입니다.”²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한 가지는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셔서 성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성전에 모인 성도의 무리를 사랑과 다정함으로 돌보시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제 자녀들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제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하시며 팔을 내미시는 모습과, 아이들이 한 명씩 나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부드럽게 만지는 모습과, 한 명씩 일어나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라고 간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3니파이 11:14~17 참조; 또한 17:21; 18:25 참조) 제 자녀들이 돌아서서 “엄마, 아빠, 예수님이예요!”라고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주를 알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그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25:26)

-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자녀와 함께 기도합니다.
-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그들과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이에게 봉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8:35;
모사이야서 2:17 참조)

우리가 제자로서 이 간단한 행동
방식에 전념할 때, 우리 자녀들은 구주의
사랑과 신성한 인도 및 보호를 받게 되어
대적의 거센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한 것이며(누가복음 15:3~7),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것이고(요한복음
4:5~30), 한 명의 탕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누가복음 15:11~32)

그것은 듣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
어린 소년을 위한 것이며,

불완전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구주와 하나가
되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요한복음
17:21 참조)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시며,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저는 더 나아가 구원이 다른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손을 온전히
내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essage of the First Presidency," in Conference Report, Oct. 1942, 12-13; read by President J. Reuben Clark Jr.
2. 보이드 케이 패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0쪽.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우리의 구주 덕분에, 회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열두 살 때 제 가족은 스웨덴
남쪽 해변가에 있는 예테보리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테보리는 올해 여름에 작고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인 페르 지 맘¹ 장로님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분의 고결함과 고귀한 봉사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훌륭한 가족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 가족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50년 전 그 시절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큰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들어서자 지부에서
저와 함께하는 유일한 집사였던 제 친구
스테판²이 조금 흥분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테판은 예배당 뒤쪽에

칸막이로 가려진 확장 공간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커다란 폭죽과
성냥을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십 대 특유의
허세로 저는 폭죽을 들고 긴 초록색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폭죽이 터지기 전에
심지에 붙은 불을 끌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려다 손가락을 텐 바람에
폭죽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테판과 저는 무섭게 타들어가는 심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죽이 터졌고, 자욱한 연기와 화약
냄새가 확장 공간과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급히 폭죽의 잔해를 그러모고
창문을 열어 냄새를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손상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약 냄새는 회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알아챌 정도로 강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냄새로 인해 성스러워야 할 성찬식은 어수선해졌습니다. 지부에 아론 신권 소유자가 몇 안 되었기에, 저는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짓과 지금 하려는 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취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찬기가 제 앞에 왔을 때, 저는 빵과 물을 모두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짓이 부끄러웠고, 그 일로 하나님도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모임이 끝나자 기쁨 있는 은회색 머릿빛의 프랭크 린드버그 지부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의자에 앉자, 회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제가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 짓을 아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제 심정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저는 머뭇거리며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린드버그 회장은 닳아빠진 오래된 교리와 성약 책을 펼치시더니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³

제가 그 구절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보았던 린드버그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조금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제가 다시 성찬을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부 회장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기쁨은 회개에 내재된 고유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에는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며 “변화”를 내포합니다.⁴ 그 단어를 스웨덴어로는 *omvänd*[옴벤드]라고 하는데, 한 마디로 “돌아서다”를 의미합니다.⁵ 기독교 작가 시 에스 루이스는 그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저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옳은 길로 다시 돌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총액이 잘못되면 다시 맞추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 실수한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한다.”⁶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옳은 길”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과 죄를 거부하는 일 또한 포함됩니다.⁷ 에스겔에 설명되어 있듯이, 회개란 “돌이켜 …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⁸

그러나 이것마저도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회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권능인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결부되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앙,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더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라 믿는 신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그분의 속죄는 우리 삶에 효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돌아설”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담긴 소망을 얻고 용서가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속주가 없다면, 회개에 내재된 소망과 기쁨은 사라져 버리며, 회개는 보잘것없는 행동의 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하실 권능을 지니시고 또 기꺼이 용서하려 하시는 그분께로 개심하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그분이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연차 대회에서 회개라는 희망찬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의 속죄에 갖든 치유의 권능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마치 그분이 반세기 동안 사도직을 수행하시면서 얻은 지혜의 집약과도 같았습니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는 아무런 자국도,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속죄가 고치면 고쳐칩니다. 속죄는 치유할 뿐이며, 치유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⁹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개선할 수 있으며,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구주]께서 속죄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구주께서 속죄를 하셨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

… 속죄는 얼마나 어렵든, 오래 되었든,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¹⁰

여러분과 제게 끼칠 수 있는 구주의 속죄의 영향력은 그 폭과 깊이가 무한합니다. 그러나 속죄가 우리에게 강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리하이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기에¹¹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¹² 다시 말해서, 회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때때로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들은 본질적으로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에 진정한 회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테보리에 살던 열두 살짜리 소년의 입장에서 저는 스테판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큰 폭죽과 성냥을 교회에 가져온 것은 스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할 때, 우리 스스로 행할 필요성과 행할 능력은 모두 약화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행동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불운한 피해자로 만들게 됩니다.¹³

회개에서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선택은 우리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에테보리의 폭죽 사건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별다른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성찬식도 그대로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겠다는 동기를 앗아갑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의 잘못과 죄에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식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니허가 제이라헤를라 백성들에게 가르친 다음 내용은 믿고 싶어질 만큼 유혹적입니다.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 두려워 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¹⁴ 그러나 이 유혹적인 개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께,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 부릅니다. 그분의 승인과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구하느냐를 포함해서 말합니다.¹⁵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만약 성찬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폭죽 냄새가 그 에테보리의 성찬식에 지장을 주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묵살함으로써 죄를 가버어 여기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구주의 신성과 그분이 이 후기에 이끄시는 사업의 참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변명 대신, 회개를 선택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 자신을 되찾을 수 있으며,¹⁶ 우리의 행동이 갖는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 참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유혹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다음 이야기로 자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혹받고 있는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얻는가?
허황된 꿈, 한 번의 날숨, 스쳐 지나가는 쾌락뿐이지.
한 순간의 기쁨을 얻고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 살려는가.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 영원한 운명을 포기하려는가?¹⁷

만일 우리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 때문에 영원에 대한 시각을 잃었다면, 회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 버린 장난감은 환불이 가능하며, 우리는 다시 영원에 대한 소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췌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¹⁹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비길 데 없는 연민과 자비와 사랑을 지니셨기에 용서하기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성한 특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그러하듯이, 그분은 우리가 회개를 선택할 때 기뻐하십니다.²⁰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있다 해도,²¹ 회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즉시 구주를 우리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앰올레크가 가르쳤듯이, “참으로 너희가 나아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²²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근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구주께서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에서 얻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²³ 죄책감은 “씻기워”질 수 있습니다.²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²⁵ 절망감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채워지며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²⁶ 우리의 구주 덕분에, 회개가 가능했음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폭죽 사건 이후 지부 회장실에서 저를 감쌌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제 죄책감은 사라졌고, 우울함은 날아가 버렸으며, 제 마음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화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시기를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재한다는 지식에서 오는 기쁨, 구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으며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회개를 선택할 때 오는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라”는 가르침을 따르시다.²⁷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구주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신 존재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증인이자 이를 수없이 반복해서 받은 수혜자입니다. 그분의 속죄에서 오는 구속의 축복이 저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리고 평생에 걸쳐 몇 번이고 거듭하여 임하기를²⁸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페르 지 맘(1948~2016) 장로는 2010년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맘 장로와 그의 아내 아그네타는 스웨덴 엔세핑에서 태어났지만 스웨덴 에테보리를 보금자리로 삼았다. 맘 장로도 201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훌륭한 말씀에서 에테보리를 회상하며 이야기했다. (“너희 마음이 짐을 얻으리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01~102쪽 참조)
2. 스테판이란 이름이 그 친구의 실명은 아니지만, 그의 동의를 얻어 이 일화를 소개한다.
3. 교리와 성약 58:42~43.
4. 그리스어 *metanoeo* 는 문자 그대로 “변화를 인식하다”를 의미한다. (*meta*, 는 ‘변화’를 의미하며, *noeo*, 는 ‘인식하다’를; *nous*, 는 ‘마음, 즉 도덕적 반성’을 의미한다.) (James Strong, *The New Strong’s*

Expanded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2010], Greek dictionary section, 162 참조)

5. *omvänd*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다. *Om*은 영어로 “around”라는 단어로, *Vänd*는 “turn”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
6. C.S. Lewis, *The Great Divorce* (1946), 6. 책의 서문에서 루이스는 어떤 이들은 천국과 지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그 둘을 “통합하려” 한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중 일부는] 발전이나 수정 또는 개선이 어떻게든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나는 이런 믿음이 끔찍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길이 있는 반지름처럼 원의 중심을 향해 있어 계속 걸기만 하면 조금씩 중심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중심에 다다른 그런 세상이 아니다. ...
- ... 잘못된 길을 선택한 모든 이들이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는 데 있다. ... 악을 고치고 되돌릴 수는 있지만, 단순히 악이 점차 선으로 “변환” 수는 없다. 시간이 간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조금씩이라도 악을 고치고 되돌려야 한다. ... 다른 방법은 없다.”(5~6)
7. 경전 안내서, “회개” 참조.
8. 에스겔 33:14~15.
9.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이 2015년 4월 연차 대회의 일부로 열린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전한 간증으로, 전체가 출판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모임에서 기록한 내 개인 노트에서 인용되었다.
10.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11. 니파이후서 2:5.
12. 니파이후서 2:27.
13. 니파이후서 2:26 참조.
14. 엘마서 1:4. 니호와 그의 추종자들은 회개를 믿지 않았다. (엘마서 15:15 참조)
15.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12~17쪽.
16. 누가복음 15:17 참조. 또한 11~24쪽 참조.
17. William Shakespeare, *The Rape of Lucrece*, lines 211~14.
18. 교리와 성약 18:11.
19. 이사야 53:5 참조.
20. 누가복음 15:4~7; 교리와 성약 18:10~13 참조.
21. 회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포함된다. (고린도후서 7:10)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구주께서는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시간, 즉 고통스러운 시간이 수반됩니다!” (“Keeping Covenants,” *Ensign*, May 1993, 7) 리차드 지 스크트 장로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때로 회개의 단계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Finding Forgiveness,” *Ensign*, May 1995, 77) 비록 회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죄가 용서되었음을 느끼게 될 때 그 결과물은 기쁠 것이다.
22. 엘마서 34:31; 강조체 추가.
23. 경전 안내서, “복음” 참조.
24. 이노스서 1:6.
25. 모사이야서 4:3.
26. 모사이야서 27:29.
27. 이사야 12:3.
28. 모사이야서 26:29~30 참조.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이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장을 나타낸다.

| 연사 | 일화 |
|---------------|--|
| 닐 엘 앤더슨 | (35) 교회의 회원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다가갈 때 많은 사람이 개종을 경험하게 된다. |
| 엠 러셀 벨라드 | (90)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성지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주면서 가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 |
| 더블유 마크 배셋 | (52) 어린 시절 더블유 마크 배셋과 그의 동생은 모험 금판의 봉인된 부분에서 금속 띠를 벗겨내 보려고 한다. |
| 진 비 빙엄 | (6) 바람에 맞서 카누를 타던 진 비 빙엄 자매와 청년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돛을 만든다. 자전거를 타고 “황금 창문”이 달린 집으로 간 소녀는 자신이 살던 집의 창문도 황금빛임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성공한 청년이 성장한 모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 (48) 선생님이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자, 헬렌 켈러는 큰 기쁨을 느낀다. |
| 칼 비 쿡 | (110)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5대조 할아버지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해 숙고하던 칼 비 쿡 장로는 교회에서 받은 자신의 새로운 임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다. 한 새로운 회원이 신앙을 키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
| 쿠엔틴 엘 쿡 | (40) 쿠엔틴 엘 쿡은 부친이 전신주를 전망해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
| 제이 데브 코니쉬 | (32) 제이 데브 코니쉬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준 병원 선배 레지던트 덕분에 삶이 달라진다. |
|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 (68) 팔리 피 프렛과 네 명의 형제들이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는 십 대 시절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 |
| 딘 엠 데이비스 | (93) 딘 엠 데이비스는 자신이 방문한 와드의 회원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성찬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깨닫는다. |
| 헨리 비 아이어링 | (75) 헨리 비 아이어링의 어린 시절 그의 부친과 신권 지도자들은 그의 시야를 넓혀 주고 그에게 확신을 준다. (99) 젊은 시절 헨리 비 아이어링은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계획하신 시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
| 로버트 디 헤일즈 | (22)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엘리 비젤에게 손자가 자신이 그를 더 사랑하면 그의 고통이 덜어질지를 묻는다. 한 다정한 남편이 일요일마다 아픈 아내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옷을 입히고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
| 제프리 알 홀런드 | (61) 가장 복음 교사가 지하실이 물에 잠긴 자매를 도울 기회를 놓친다. 한 가장 복음 교사가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돕는다. |
| 피터 에프 웨르 | (85) 다섯 살 난 피터 에프 웨르가 부친이 성찬을 축복하는 동안 성신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을 느낀다. |
| 토마스 에스 몬슨 | (78) 지혜의 말씀을 지켜 온 한 교회 회원이 밧줄을 타고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고자 기도로 힘을 구했고, 실제로 그 힘을 얻는다. (80) 1964년 세계 박람회에서의 행복의 추구라는 교회 영화를 본 한 젊은이가 구원의 계획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는다. |
| 케이 브렛 내트레스 | (119) 케이 브렛 내트레스는 어렸을 적 모친을 통해 비록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운다. |
| 러셀 엠 넬슨 | (81) 추방된 성도들이 추위 속에서 “유쾌한 밤”을 보낸 후,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던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교회 회원은 복음대로 생활할 때 얻는 기쁨에 집중함으로써 시련과 유혹,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다. |
| 보니 엘 오스카슨 | (12) 멕시코의 한 자매가 자신이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더 많은 청소년을 참석시킨다. 한 어머니가 가정 밖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비해 자녀들을 지키는. |
|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 (113)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친구에게 조언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의 조상들은 고난과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신앙을 행사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응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있다가 경전을 읽던 중에 행동해야 함을 깨닫는다. |
| 린다 에스 리브즈 | (88) 보이드 케이 패커가 회개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자신의 죄가 사라졌음을 간증한다. 회원과 선교사, 개종자는 진지한 회개를 통해 기쁨과 평화를 찾는다. |
| 데일 지 렌런드 | (121) 어린 데일 지 렌런드가 교회에서 폭죽을 터트린 일을 지부 회장에게 고백한 후 기쁨을 느낀다. |
| 에번 에이 슈무츠 | (116) 화재로 가족을 잃은 한 교회 회원이 다시 가족과 함께하고자 성약을 지키고 신앙을 행사한다. |
| 캐롤 엠 스티븐스 | (9) 조울증을 앓던 한 젊은 여성이 온 힘을 다해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간증한다. |
| 게리 이 스티븐슨 | (44) 열두 살의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가 물문경을 읽고 간증을 얻는다. 선교사 시절 게리 이 스티븐슨이 물문경에 대해 간증하며 물문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는다. |
| 후안 에이 우세다 | (30) 후안 에이 우세다가 선교 사업 중에 등산로에서 발을 헛디디자, 주님은 그를 구해 주시며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
|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15)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더 잘 들어 보세요.”라고 말한다. 한 어머니가 탕자와 같은 자신의 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두 명의 선교사가 4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집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고 결실을 얻는다. (19)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 소망, 신앙, 아내의 거듭된 격려, 엄청난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힘입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다. (71) 교회를 떠났던 한 사람이 친구와 성신, 선한 목자의 이끄심 덕분에 신앙을 되찾고 돌아온다. |
| 가즈히코 아마시타 | (55)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가즈히코 아마시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부를 품[은]” 한 선교사를 알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



아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라로통가를 방문하고 있다.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엘살바도르 공화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영국 윈저 궁에서 열린 종교적 박해에 관한 학회에서 경청하고 있다.



위, 위에서부터: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그의 아내 해리엇이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재헌납식에서 후기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과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루이지애나에서 홍수 피해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선지자 및 사도들의 성역

선 지자와 사도들은 온 세상에서 성역을 계속하고 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지난 연차 대회 이래로 그들이 베푼 성역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한다.

2016년 5월,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최근의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그곳의 회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난민들을 만났고, (완공 단계에 있는) 프랑스 파리 성전 건축 현장을 돌아보았으며, **체코 공화국**의 첫 번째 스테이크 창설 모임에 참석했다. 7월에는 **이탈리아**에 가서 난민 구호에 사용하도록 교회 기금 3백만 달러를 수표로 전달했으며, **그리스**의 난민촌을 방문했다. 9월에는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와 독일**의 회원들을 방문하였으며,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재헌납했다. 그는 복음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회원들은 “진심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6월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였으며, 다른 스테이크 회원들은 사라토프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였다. 그는 또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을 만났다.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6월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에 힘입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거주민이 종교의 자유라는 축복을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그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9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종교적 박해 및 강제 이민에 관한 학회에서,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경험은 현 시대의 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 준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난민들을 계속해서 돕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포함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회원들과 선교사들 및 지도자들을 만나 저활동 회원들이 교회로 돌아와 온전히 참여하도록 격려했다고 권고했다.

6월에 베트남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와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교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사회 사업 및 자선 사업을 지원하고 빈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또한 **캄, 미크로네시아와 일본**에서 개최된 모임을 감리했다.

그와 더불어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는 6월에 호주 브리즈번과 **쿡 제도**를 방문하여 그 지역을 축복했다. 앤더슨 장로는 또한 **라로통가** 섬을 방문하였으며, 사도 중 최초로 **망가이아** 섬을 방문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6월에 **콜롬비아, 페루 및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인 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으며 교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회원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8월에 **과테말라**를 방문한 쿠엔틴 엘 쿡 장로는 과테말라에서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그것이 회원들의 신앙의 증거라고 말씀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랜런드 장로는 6월에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교회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방문한 통가 국왕과 왕비를 환영하면서 가족 유대의 중요성에 관하여 소개 말씀을 전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회장과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미국 루이지애나**를 방문하여 8월과 9월에 걸쳐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파손된 집들을 청소하고 있는 홍수 피해자들을 방문했다. 벨라드 장로는 13개 주에서 온 11,0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리고 9월에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쿡 장로는 “우리가 이런 위험천만하고 힘든 세상에 살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는 청년 성인들에게 의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으며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신분을 속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성역에 관한 최신 정보는 그들 각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prophets.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운영 중인 152개의 성전

현 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교회의 성전은 152개이다.

최근에 헌납되었거나 재헌납된 성전은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18일에 헌납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성전** [미국], 2016년 9월 4일에 재헌납된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2016년 8월 21일에 헌납된 **일본 삿포로 성전**.

추가로 29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거나 개축 중이거나 발표되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헌납식이 계획된 성전은 다음과 같다.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성전** (2016년 10월 16일), **와이오밍 스타밸리 성전** (2016년 10월 30일),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 (2016년 11월 20일) 모두 미국 내에 있음.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다

십 이사도 정원희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2016년 9월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개최된 종교의 자유 회합에서 후기 성도들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종교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집회”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 유치원생으로부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부모와 친구 그리고 이웃들 모두가 종교적 자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또한 6월에 미국 유타 주에서 열린 애국 예배(patriotic service)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종교의 자유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오로지 예배할 권리만을 뜻한다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닌 이들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문화, 시민, 그리고 정치 단체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호주,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영국 및 미국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여하고 연설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를 거듭하여 다루고 언급해 왔다. Religiousfreedom.lds.org를 방문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찾고 알아보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내용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해당하지만, 그 원리들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교리 익히기

인 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청소년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세미나리 학생들은 교리 익히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복음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신앙으로 행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살펴보며, 주님이 정하신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함으로써 어려운 질문과 쟁점에 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희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직원 모임에서 교리 익히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이 자료는 시의적절하게 영감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리 익히기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다음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1. 영적인 지식을 얻는다.
2. 복음 교리와 그 교리를 가르치는 성구를 숙지한다.

성구 익히기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기반으로, 교리 익히기라는 이 심도 있는 자료를 통해 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개종과 결심을 강화하고, 대적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방책을 찾으며,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교리 익히기 자료는 lds.org/si/seminary/manual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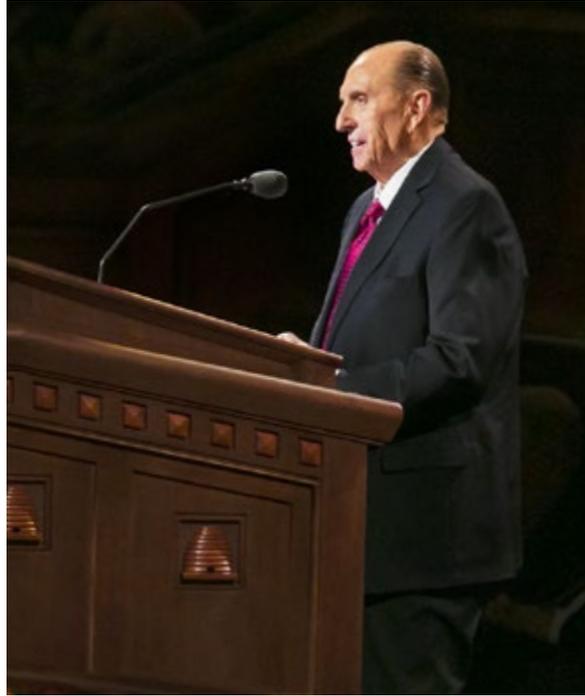


“그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0~81쪽.

보고 살았느니라, 벤 해먼드

민수기 21:4-9; 엘마서 33:18-22 참조. 모세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다. 놋뱀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의 제186차 반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따라 생활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